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3. 25.(목)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21. 3. 25.(목)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과장: 강유경 (042-481-2233) 사무관: 배영신 (042-481-2242)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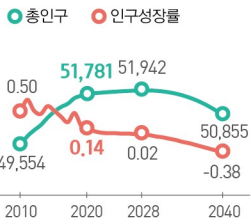
- ☐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습니다.
- ☐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재분류·가공하여 1979년부터 매년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 「2020 한국의 사회지표」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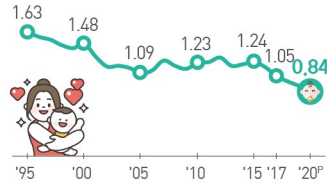
총인구

단위: 천 명, %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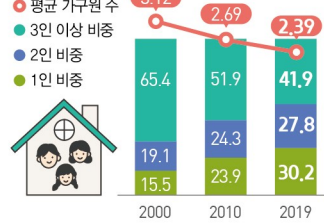
단위: 명/가임 여성 1명



가구·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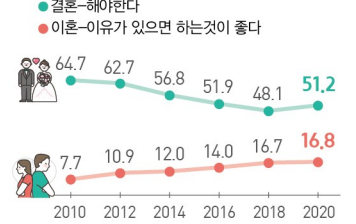
가구원 수

단위: 명, %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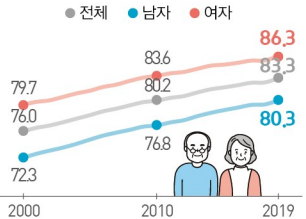
단위: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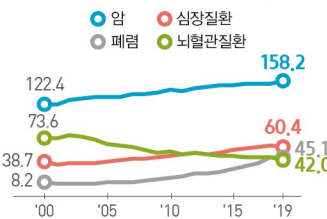
기대수명

단위: 년



사인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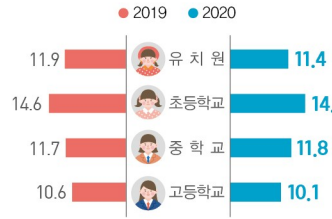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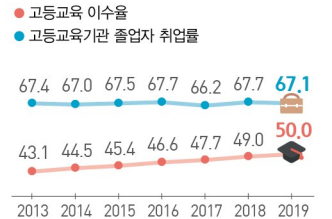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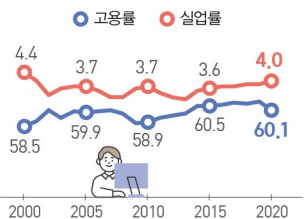
단위: %



노동·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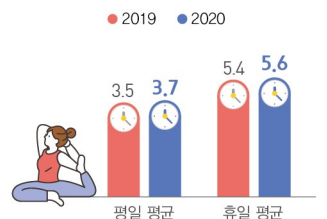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여가시간

단위: 시간



소득·소비·자산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단위: 배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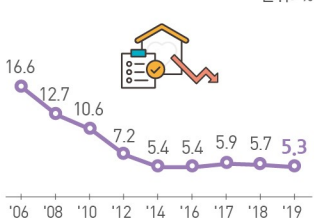
단위: %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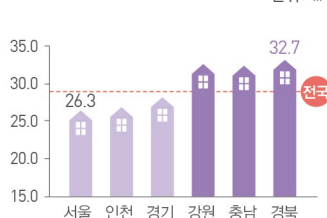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단위: %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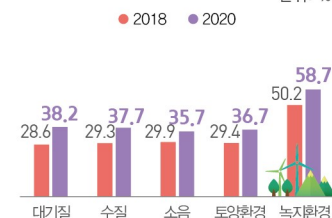
단위: m²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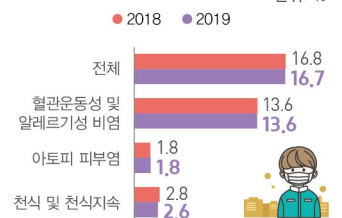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



환경성 질환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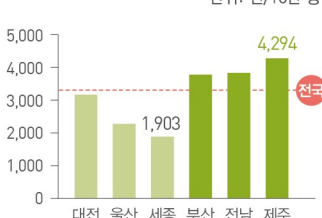
단위: %



범죄·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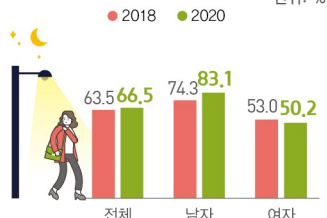
지역별 범죄율(2019)

단위: 건/10만 명



야간보행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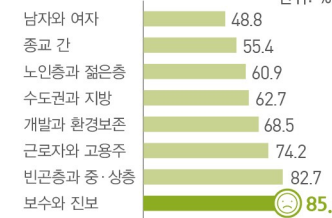
단위: %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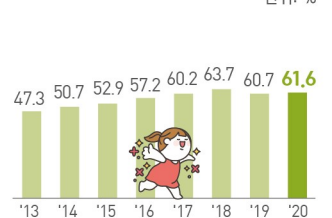
사회갈등 인식(2020)

단위: %



삶의 만족도

단위: %



목 차

□ 2020 한국의 사회지표[요약]	1
□ 2020 한국의 사회지표	6
I. 인구	
1. 인구성장과 구조	8
2. 출산율과 사망률	10
3. 지역별 인구	12
II. 가구·가족	
4. 가구	13
5. 가족 형성	15
6. 가족 규범	16
III. 건강	
7. 건강상태	18
8. 건강행태	22
9. 의료체계	24
IV. 교육·훈련	
10. 교육환경	25
11. 평생교육	26
12. 교육성과	28
V. 노동	
13. 경제활동	30
14. 취업자	31
15. 고용의 질	33

Ⅵ. 소득·소비·자산

16. 국민계정	35
17. 물가	36
18. 가구소득·소비·자산	37

Ⅶ. 여가

19. 여가생활	40
20. 여가결과	42

Ⅷ. 주거

21. 주택보급	43
22. 소득 대비 주거지출	45
23. 주거의 질	47

Ⅸ. 생활환경

24. 환경상태	51
25. 환경관리	54

Ⅹ. 범죄·안전

26. 사고	56
27. 범죄와 사법정의	58
28. 안전 인식	60

Ⅺ.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29. 사회 인식	62
30. 연대·포용	64
31. 주관적 웰빙	66

Ⅻ. 통계표	6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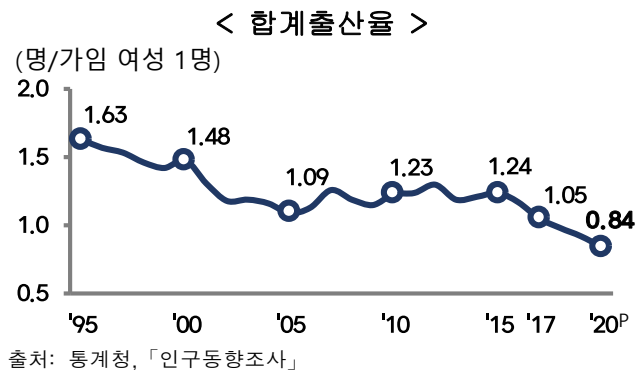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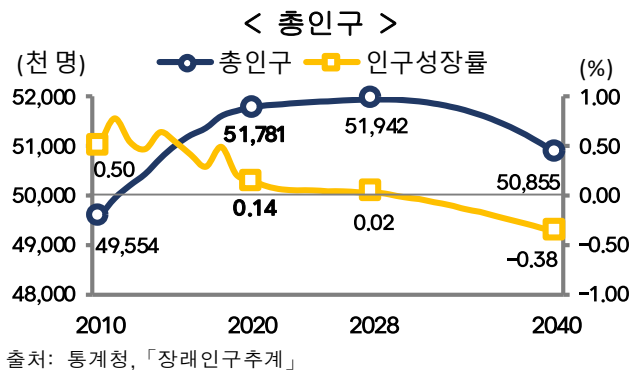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요약)

◆ 인구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

- '2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8만 명이며, '28년에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
- '20년 수도권 인구는 2,595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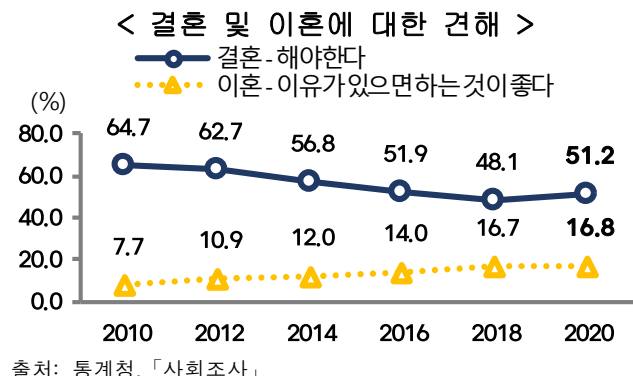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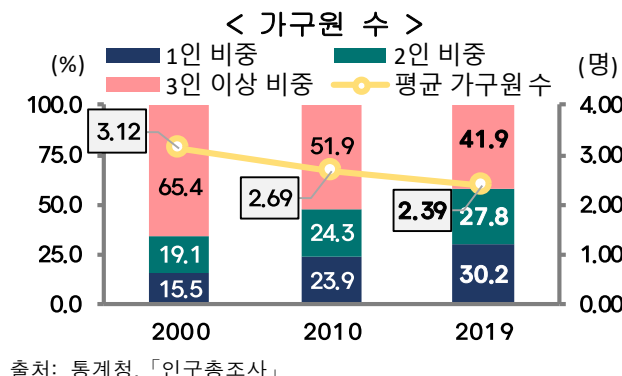
* 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 ('10) 49.3% → ('20) 50.1% → ('30) 51.0%



◆ 가구 · 가족

2019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 대비 0.73명 감소한 2.3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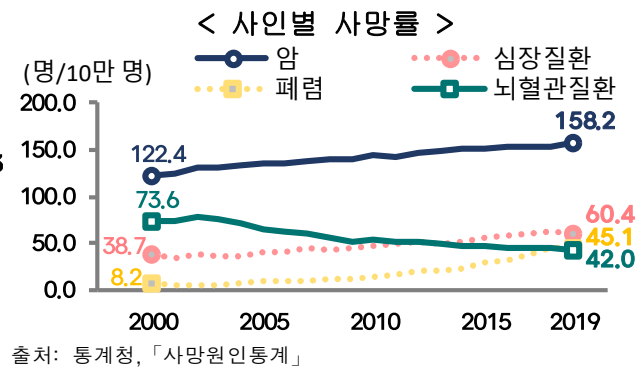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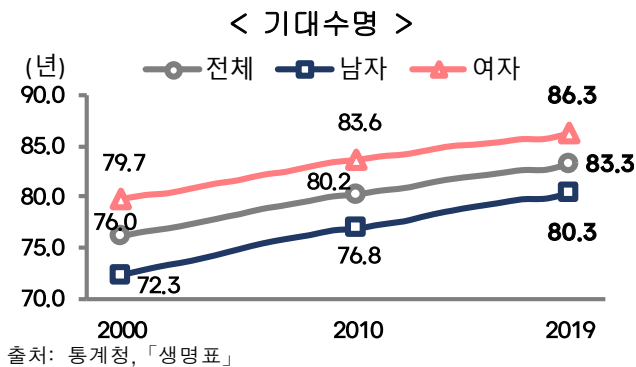
- '19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9명으로 '00년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20년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1.2%,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16.8%로, 각각 2년 전 대비 3.1%p, 0.1%p 증가함



◆ 건강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전년보다 0.6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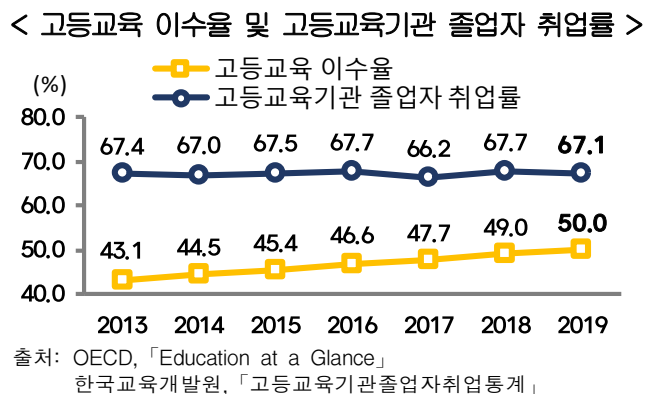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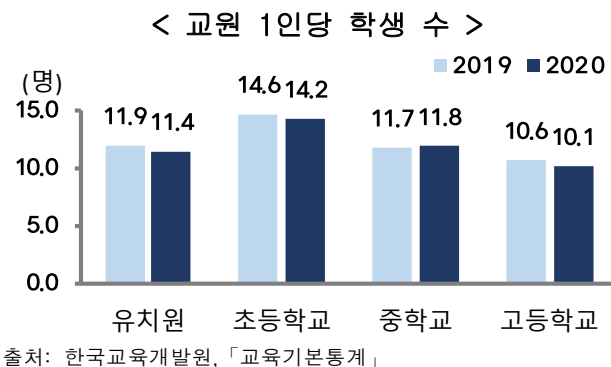
- '19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10년 전(80.0년)보다 3.3년, 전년(82.7년)보다는 0.6년 증가함
- '19년 사망률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하다가 '19년에는 전년보다 0.3명 감소함
 - * 폐렴 사망률 변화(명/10만 명): ('05) 8.6 → ('10) 14.9 → ('15) 28.9 → ('18) 45.4 → ('19) 45.1
- '19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0.2%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으며, 음주율은 57.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함



◆ 교육 · 훈련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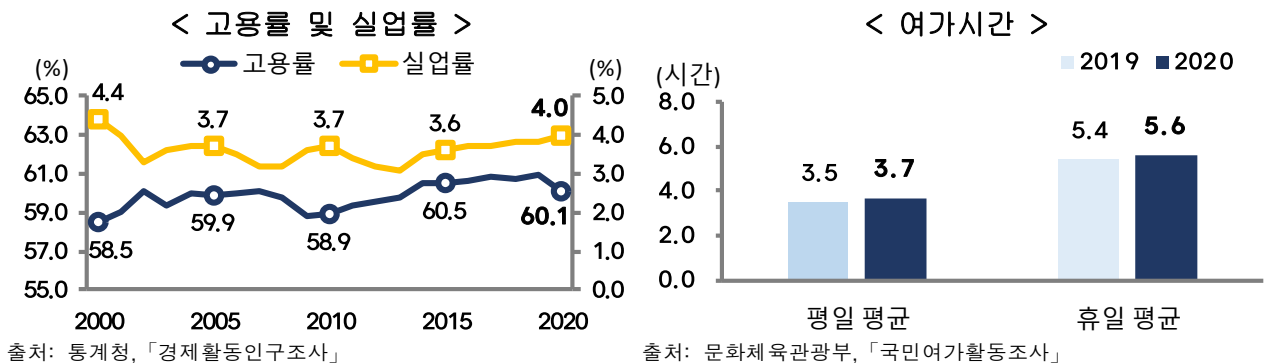
- '2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14.2명), 중학교(11.8명), 유치원(11.4명), 고등학교(10.1명) 순으로 많고,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 '20년 성인 10명 중 4명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1인당 평균 36만 원을 자부담학습비로 지출함
- '19년 25~64세 국민 2명 중 1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67.1%가 취업함



◆ 노동 · 여가

2020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8%p 하락한 60.1%, 실업률은 0.2%p 상승한 4.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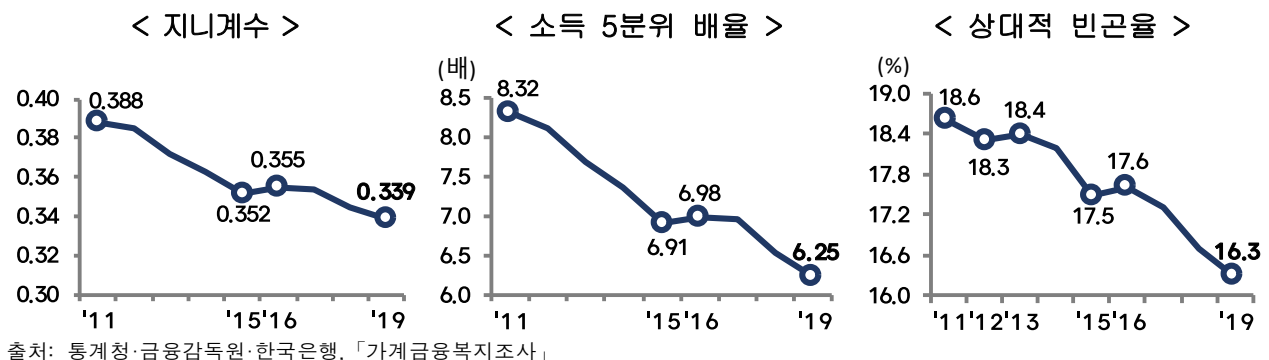
- '20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8%p 하락한 60.1%, 실업률은 0.2%p 상승한 4.0%임
- '2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69.8%, 건강보험 76.7%, 고용보험 72.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3%p, 1.0%p, 1.7%p 상승함
- '20년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6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2시간씩 증가함
 - 15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약 3명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 소비 · 자산

2019년 지니계수는 0.339, 소득5분위배율은 6.25배, 상대적 빈곤율은 16.3%임

- '19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전년보다 96만 원 증가한 5,924만 원이고,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46만 원임
- '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 소득 5분위 배율은 6.25배,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20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3억 6,2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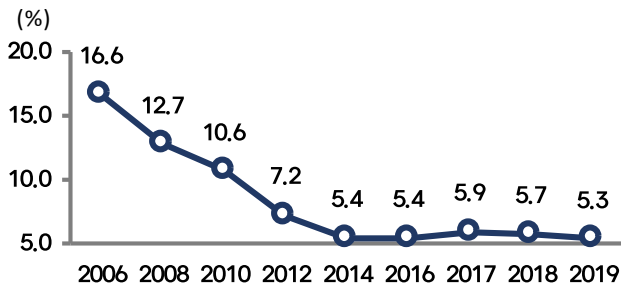


◆ 주거

2019년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보다 0.7㎡ 늘어난 2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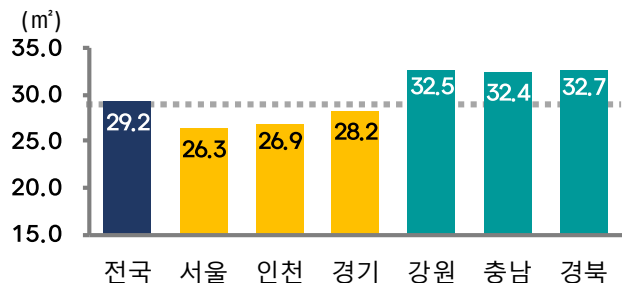
- '19년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5.3%로, '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19년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보다 0.7㎡ 늘어난 29.2㎡이며,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주거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 '19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3.00점으로 전년대비 0.02점 상승하였으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연립주택 순임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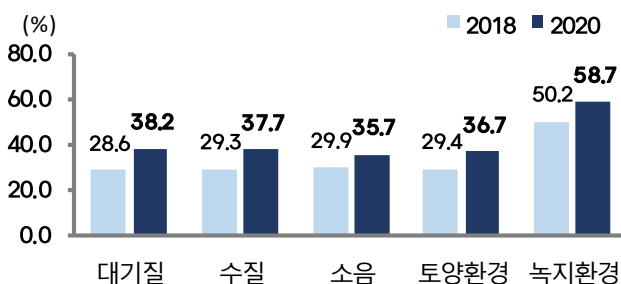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생활환경

2020년 국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2년 전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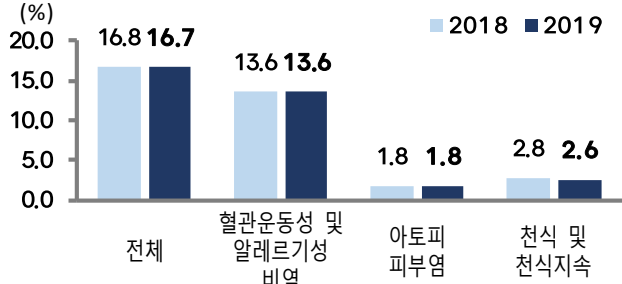
- '20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녹지환경(58.7%), 대기질(38.2%), 수질(37.7%), 토양환경(36.7%), 소음(35.7%) 순으로 높으며, 전 분야에서 2년 전 대비 상승함
- '19년 우리나라의 환경성 질환자 수는 861만 1천 명, 유병률은 16.7%로 전년도보다 각각 3만 7천 명, 0.1%p 감소함
- '18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각각 0.1%, 0.1%, 3.6%, 34.7%로 측정됨

< 생활환경 만족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환경성 질환 유병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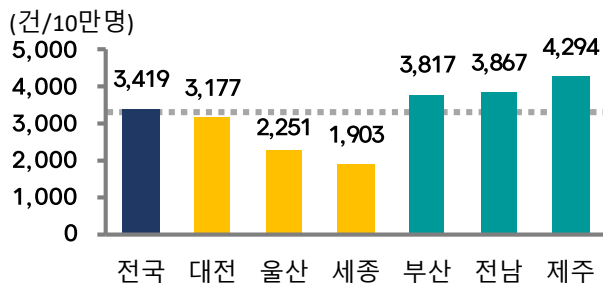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 범죄 · 안전

201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419건으로 10년 전 대비 22.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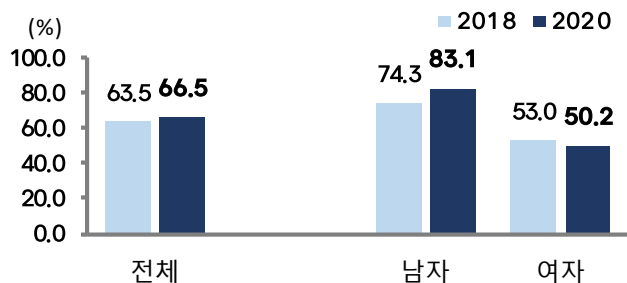
- '1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3,419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22.2% 감소함
-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의 범죄율이 인구 10만 명당 4,29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3,867건), 부산(3,81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년 국민 10명 중 7명(66.5%)은 야간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남자(83.1%)가 여자(50.2%)보다 30%p 이상 높음

< 지역별 범죄율(2019)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야간보행 안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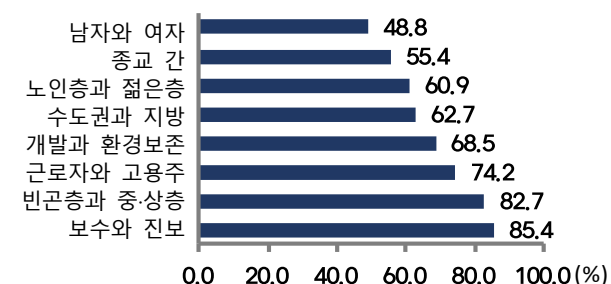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통합 · 주관적 웰빙

2020년 집단 간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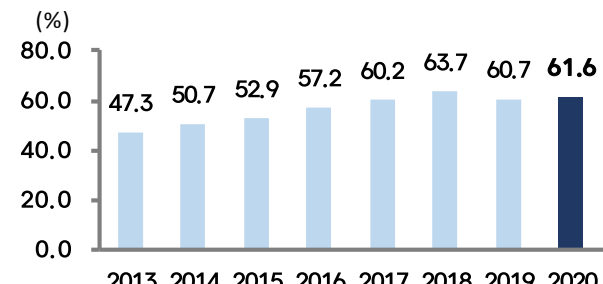
- '20년 집단 간 사회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보수와 진보(85.4%), 빈곤층과 중·상층(82.7%), 근로자와 고용주(74.2%) 집단이 높고, 남자와 여자(48.8%), 종교 간(55.4%) 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각각 69.4%, 57.0%임
- '20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0.9%p 증가한 61.6%임

< 사회갈등 인식(2020)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삶의 만족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 한국의 사회지표

I.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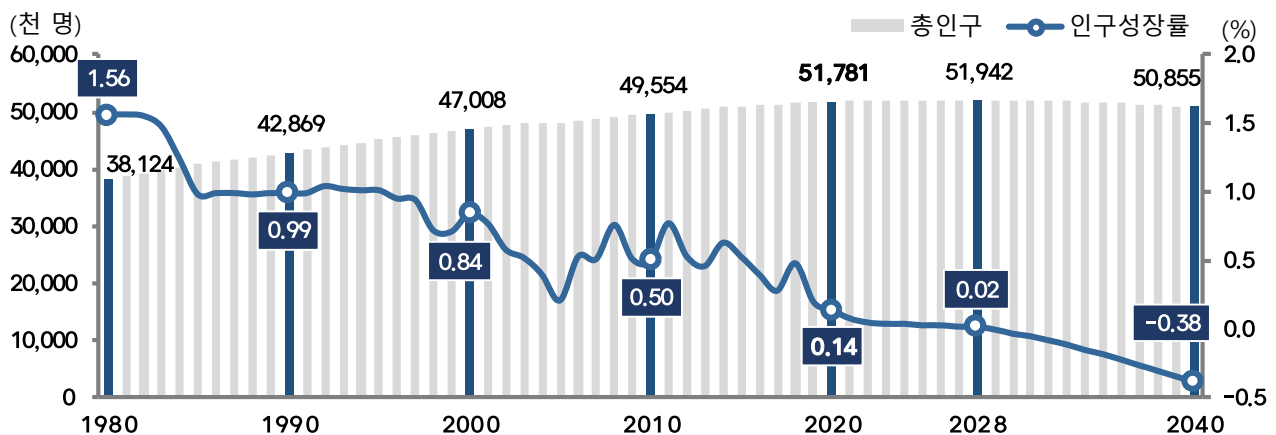
1. 인구성장과 구조

■ 총인구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 중위연령은 43.7세임

- '2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8만 명이며, '28년에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년 중위연령은 43.7세로 40년 전 21.8세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향후 매 10년마다 5~6세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

(단위: 천 명, %, 명/1,000명, 세)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2028	2030	2040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9,554	51,015	51,362	51,607	51,709	51,781	51,942	51,927	50,855
인구성장률	1.56	0.99	0.84	0.50	0.53	0.28	0.48	0.20	0.14	0.02	-0.03	-0.38
자연증가율 ¹⁾	15.4	9.5	8.2	4.3	3.2	1.4	0.5	0.1	-0.6 ^p	-	-	-
중위연령	21.8	27.0	31.8	37.9	40.9	42.0	42.6	43.1	43.7	48.4	49.5	54.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주: 1) 자연증가율 = 조출생률 - 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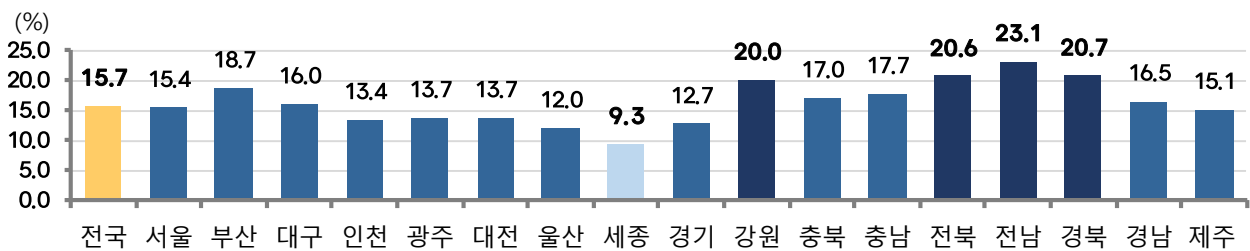
■ 지역별 고령인구

202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7%로 전남(23.1%)이 가장 높고, 세종(9.3%)이 가장 낮음

□ '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약 44만 명 증가한 8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함

- 전남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1%로 가장 높고,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도 각각 35.5, 19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반면, 세종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9.3%로 가장 낮고,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각각 13.1, 46.3으로 가장 낮음
-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은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 등 4개 지역임

< 지역별 고령인구 구성비(2020)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지역별 고령인구 및 부양비(2020) >

(단위: 천 명, %,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명/유소년인구 100명)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노년부양비 ¹⁾	노령화지수 ²⁾
전국	51,781	8,125	15.7	21.7	129.0
서울	9,602	1,480	15.4	20.7	151.9
부산	3,344	625	18.7	26.5	175.2
대구	2,419	388	16.0	22.3	134.9
인천	2,951	397	13.4	18.1	108.2
광주	1,488	204	13.7	18.7	103.0
대전	1,500	206	13.7	18.6	109.6
울산	1,140	137	12.0	16.2	87.5
세종	349	32	9.3	13.1	46.3
경기	13,405	1,709	12.7	17.3	95.0
강원	1,515	302	20.0	28.9	180.3
충북	1,632	277	17.0	23.9	139.4
충남	2,204	389	17.7	25.4	138.2
전북	1,792	369	20.6	30.5	174.3
전남	1,764	408	23.1	35.5	196.1
경북	2,655	549	20.7	30.4	182.3
경남	3,350	554	16.5	23.5	126.8
제주	670	101	15.1	21.4	104.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노년부양비 = 고령 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2) 노령화지수 = 고령 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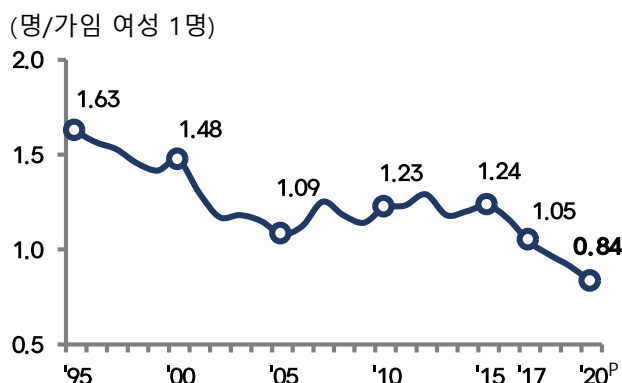
2. 출산율과 사망률

■ 출산율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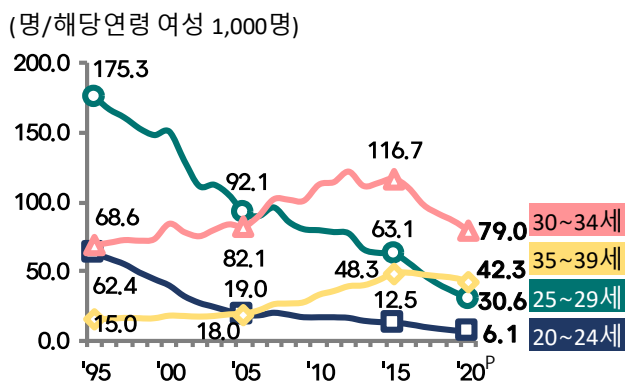
- '20년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
 - 연령대별 여성 천 명당 출산율은 30대 초반(79.0명), 30대 후반(42.3명), 20대 후반(30.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천 명당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가장 많이 감소(-7.2명)함

< 합계출산율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모의 주요 연령대별 출산율 >



<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대별 출산율 >

(단위: 명/가임 여성 1명, 명/해당 연령 여성 1,000명)

	합계출산율 ¹⁾	모의 연령대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95	1.63	3.7	62.4	175.3	68.6	15.0	2.4	0.2
2000	1.48	2.6	39.2	150.3	84.1	17.6	2.7	0.2
2005	1.09	2.2	18.0	92.1	82.1	19.0	2.5	0.2
2010	1.23	1.8	16.5	79.7	112.4	32.6	4.1	0.2
2015	1.24	1.4	12.5	63.1	116.7	48.3	5.6	0.2
2016	1.17	1.3	11.5	56.4	110.1	48.7	5.9	0.2
2017	1.05	1.0	9.6	47.9	97.7	47.2	6.0	0.2
2018	0.98	0.9	8.2	41.0	91.4	46.1	6.4	0.2
2019	0.92	0.8	7.1	35.7	86.2	45.0	7.0	0.2
2020 ^P	0.84	0.7	6.1	30.6	79.0	42.3	7.1	0.2
증감	-0.08	-0.1	-1.0	-5.1	-7.2	-2.7	0.1	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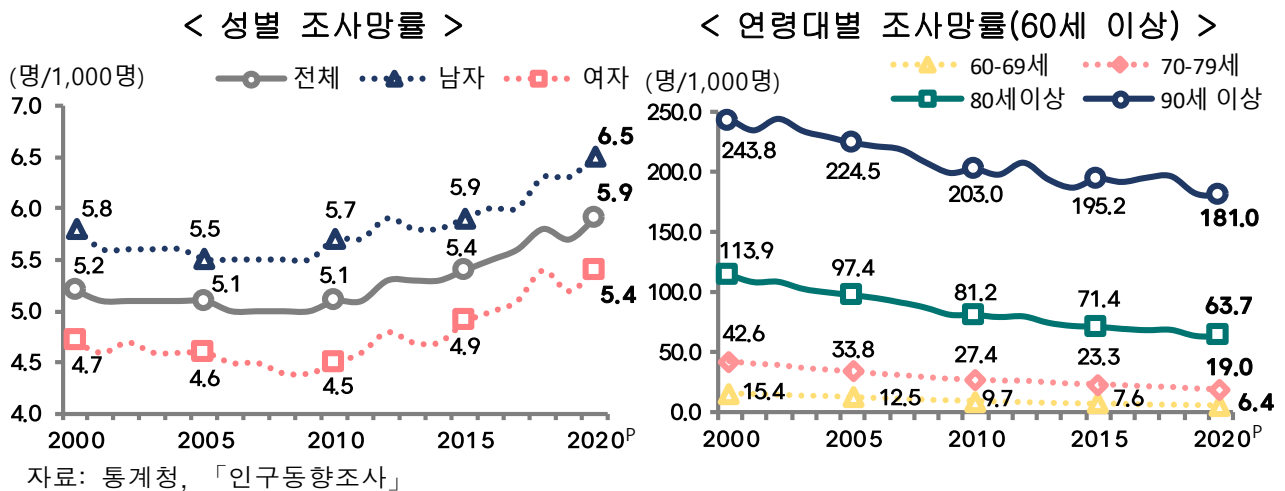
주: 1)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각 세별 출산율의 합

■ 사망률

2020년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함

□ '20년 사망자 수는 30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증가했으며,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5.7명)보다 0.2명 증가함

- 남자 조사망률은 6.5명으로 여자 5.4명보다 1.1명 높음
- 20대의 조사망률(0.4명)은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며, 이외 연령대의 조사망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

(단위: 천 명, %, 명/1,000명)

	사망자 수			사망률									
	2019	2020 ^P	증감률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P	증감률
계	295.1	305.1	3.4	5.2	5.1	5.1	5.4	5.5	5.6	5.8	5.7	5.9	3.4
남자	160.3	165.3	3.1	5.8	5.5	5.7	5.9	6.0	6.0	6.3	6.3	6.5	3.1
여자	134.8	139.9	3.8	4.7	4.6	4.5	4.9	5.0	5.1	5.4	5.2	5.4	3.7
0세	0.8	0.7	-17.3	4.8	4.2	3.5	2.8	2.8	2.7	2.8	2.7	2.4	-9.5
1~9세	0.4	0.3	-20.4	0.4	0.2	0.2	0.1	0.1	0.1	0.1	0.1	0.1	-17.4
10~19세	0.8	0.8	-3.8	0.3	0.2	0.2	0.2	0.2	0.2	0.2	0.2	0.2	-0.5
20~29세	2.6	2.7	5.7	0.7	0.5	0.5	0.4	0.4	0.4	0.4	0.4	0.4	5.8
30~39세	4.9	4.8	-3.2	1.3	1.0	0.9	0.7	0.7	0.7	0.7	0.7	0.7	-0.4
40~49세	11.9	11.6	-2.8	3.0	2.4	2.0	1.6	1.5	1.5	1.5	1.4	1.4	-1.7
50~59세	27.3	26.4	-3.1	6.8	5.1	4.2	3.5	3.5	3.3	3.3	3.2	3.1	-3.4
60~69세	39.4	41.1	4.3	15.4	12.5	9.7	7.6	7.4	6.9	6.8	6.5	6.4	-2.1
70~79세	68.3	68.3	0.0	42.6	33.8	27.4	23.3	22.4	21.4	20.9	19.5	19.0	-2.7
80~89세	99.5	105.8	6.4	113.9	97.4	81.2	71.4	69.9	68.7	68.9	64.0	63.7	-0.3
90세 이상	39.1	42.6	8.9	243.8	224.5	203.0	195.2	192.4	196.0	197.3	183.1	181.0	-1.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지역별 인구

■ 시도별 인구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1%)이 수도권에 거주함

- '20년 수도권 인구는 2,595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5.4%), 제주(1.6%), 경기(1.3%) 순이고,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0.9%), 서울·대전·울산·전북(-0.6%) 순임
 - 향후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특·광역시인 인천과 세종, 시·도 지역은 경기, 강원, 충청, 제주 지역임

<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 명)

	1990	2000	2010	2019		2020			2030	2040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률	구성비		
전국	100.0	100.0	100.0	51,709	100.0	51,781	0.1	100.0	100.0	100.0
수도권 ¹⁾	42.8	46.3	49.3	25,844	50.0	25,958	0.4	50.1	51.0	51.4
서울	24.4	21.4	20.4	9,662	18.7	9,602	-0.6	18.5	17.6	17.2
부산	8.9	7.9	7.0	3,373	6.5	3,344	-0.9	6.5	6.0	5.7
대구	5.3	5.4	5.0	2,432	4.7	2,419	-0.5	4.7	4.4	4.2
인천	4.4	5.4	5.5	2,944	5.7	2,951	0.2	5.7	5.8	6.0
광주	2.6	2.9	3.0	1,494	2.9	1,488	-0.4	2.9	2.7	2.6
대전	2.4	3.0	3.1	1,509	2.9	1,500	-0.6	2.9	2.8	2.7
울산	1.9	2.2	2.2	1,147	2.2	1,140	-0.6	2.2	2.1	2.0
세종	-	-	-	331	0.6	349	5.4	0.7	0.9	1.1
경기	13.9	19.5	23.4	13,238	25.6	13,405	1.3	25.9	27.5	28.3
강원	3.6	3.2	3.0	1,517	2.9	1,515	-0.1	2.9	2.9	3.0
충북	3.2	3.2	3.1	1,626	3.1	1,632	0.4	3.2	3.2	3.3
충남	4.6	4.0	4.2	2,188	4.2	2,204	0.8	4.3	4.5	4.6
전북	4.8	4.1	3.6	1,803	3.5	1,792	-0.6	3.5	3.3	3.3
전남	5.8	4.3	3.6	1,773	3.4	1,764	-0.5	3.4	3.3	3.3
경북	6.4	5.9	5.3	2,665	5.2	2,655	-0.3	5.1	5.0	4.9
경남	6.5	6.5	6.5	3,350	6.5	3,350	0.0	6.5	6.4	6.3
제주	1.2	1.1	1.1	660	1.3	670	1.6	1.3	1.4	1.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서울, 인천, 경기

II. 가구 · 가족

4. 가구

■ 가구 구성

2019년 평균 가구원 수는 2.39명이며,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매년 증가함

□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19년 우리나라 1인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30.2%, 27.8%로, 전년보다 0.9%p, 0.5%p 증가함

○ 평균 가구원 수는 2.39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00년보다 0.73명 감소함

<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

(단위: 명, %)

	평균 가구원 수	가구원 수별 구성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0	3.12	15.5	19.1	20.9	31.1	10.1	3.3
2005	2.88	20.0	22.2	20.9	27.0	7.7	2.3
2010	2.69	23.9	24.3	21.3	22.5	6.2	1.8
2015	2.53	27.2	26.1	21.5	18.8	4.9	1.5
2016	2.51	27.9	26.2	21.4	18.3	4.8	1.4
2017	2.47	28.6	26.7	21.2	17.7	4.5	1.3
2018	2.44	29.3	27.3	21.0	17.0	4.3	1.2
2019	2.39	30.2	27.8	20.7	16.2	3.9	1.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가족 형태별 가구 구성) '19년 가구 구성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43.9%), 부부(24.5%), 한부모와 미혼자녀(14.6%) 순임

○ '00년 이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나,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가족 형태별 가구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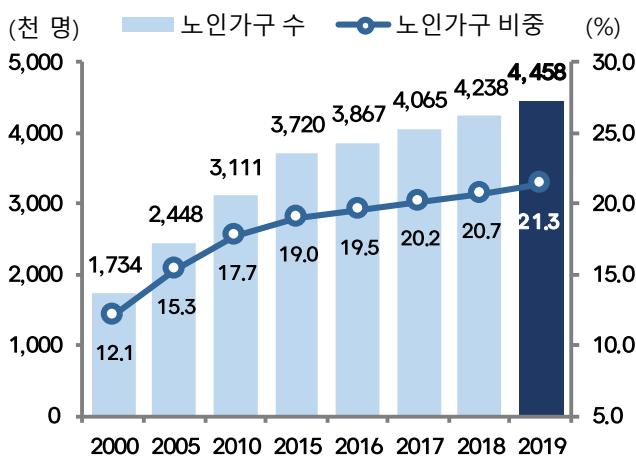
(단위: %)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미혼자녀	
2000	14.8	57.8	9.4	1.2	6.8	10.1
2005	18.1	53.7	11.0	1.2	5.7	10.4
2010	20.6	49.4	12.3	1.2	5.0	11.6
2015	21.8	44.9	15.0	1.1	4.2	13.0
2016	21.9	45.2	14.6	1.1	4.2	13.1
2017	22.7	44.8	14.6	1.0	3.9	12.9
2018	23.5	44.4	14.6	1.0	3.7	12.8
2019	24.5	43.9	14.6	1.0	3.4	12.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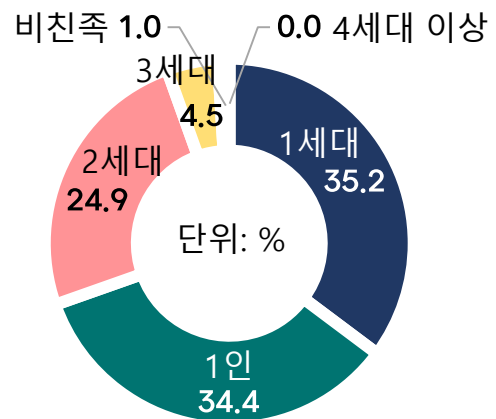
- **(노인 가구)** '19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전년보다 22만 가구 증가한 445만 8천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3%를 차지함
- 노인가구 중 1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35.2%로 가장 많음
 - 노인가구 중 1인가구는 34.4%로 노인가구 3가구당 1가구가 1인가구임
 -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4세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년 0%에 도달함

< 노인가구 수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유형별 노인가구 구성비(2019) >



< 노인가구¹⁾ 수 및 유형별 구성비 >

(단위: 천 가구, %)

	노인가구		가구 유형별 구성비					
	수	비중 ²⁾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1인	비친족
2000	1,734	12.1	33.9	24.2	9.9	0.3	31.3	0.5
2005	2,448	15.3	34.6	23.8	9.0	0.2	32.0	0.4
2010	3,111	17.7	34.5	23.3	7.4	0.1	34.3	0.4
2015	3,720	19.0	34.0	26.2	6.3	0.1	32.9	0.6
2016	3,867	19.5	33.9	26.1	5.8	0.1	33.5	0.7
2017	4,065	20.2	34.4	25.7	5.4	0.1	33.7	0.8
2018	4,238	20.7	34.8	25.3	4.9	0.1	34.1	0.8
2019	4,458	21.3	35.2	24.9	4.5	0.0	34.4	1.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노인가구 비중 = (노인가구 수 ÷ 전체 가구 수) × 100

5. 가족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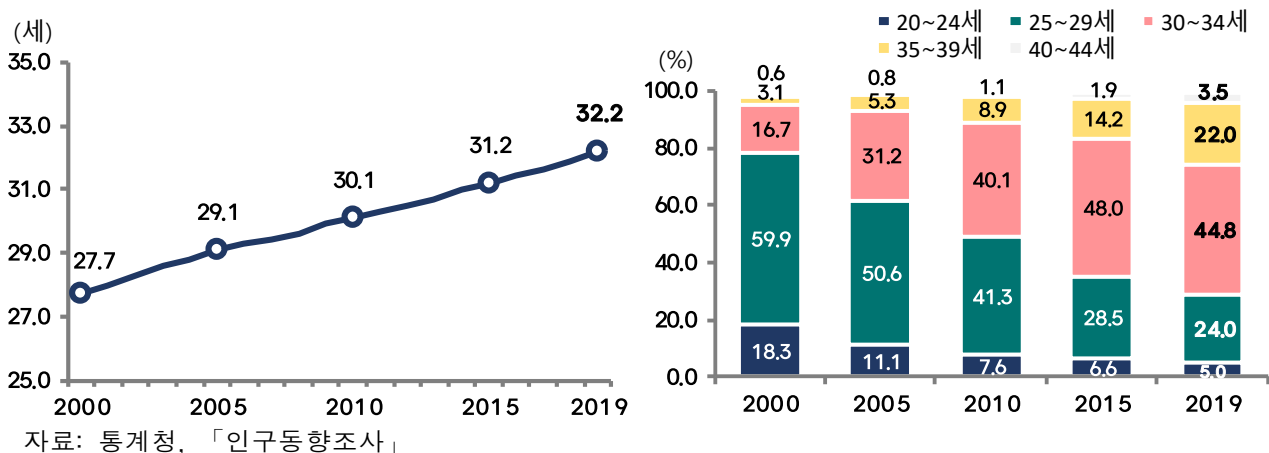
■ 모(母)의 첫 자녀 출산 연령

2019년 첫 자녀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3세 증가한 32.2세임

□ '19년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3세 높아진 32.2세로, '93년 이래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첫 자녀 출생 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44.8%), 25~29세(24.0%), 35~39세(22.0%) 순으로, 29세 이하 모의 비중은 감소를 거듭하여 올해 처음으로 3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함

< 첫 자녀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 > < 첫 자녀 출산 모(母)의 연령대별 구성비 >



< 첫 자녀 출산 모(母)의 연령대별 구성비 및 평균 연령¹⁾ >

(단위: 세, %)

	첫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2000	27.7	1.4	18.3	59.9	16.7	3.1	0.6	0.0
2005	29.1	0.9	11.1	50.6	31.2	5.3	0.8	0.1
2010	30.1	1.0	7.6	41.3	40.1	8.9	1.1	0.1
2011	30.3	1.1	7.7	38.5	41.9	9.4	1.3	0.1
2012	30.5	1.0	7.3	34.7	45.5	9.9	1.4	0.1
2013	30.7	1.1	7.3	31.1	47.7	11.2	1.5	0.0
2014	31.0	1.0	7.0	29.1	48.7	12.4	1.7	0.0
2015	31.2	0.9	6.6	28.5	48.0	14.2	1.9	0.0
2016	31.4	0.8	6.6	27.5	46.8	16.1	2.1	0.1
2017	31.6	0.7	6.1	26.8	45.1	18.6	2.5	0.1
2018	31.9	0.7	5.5	25.4	44.6	20.8	2.9	0.1
2019	32.2	0.6	5.0	24.0	44.8	22.0	3.5	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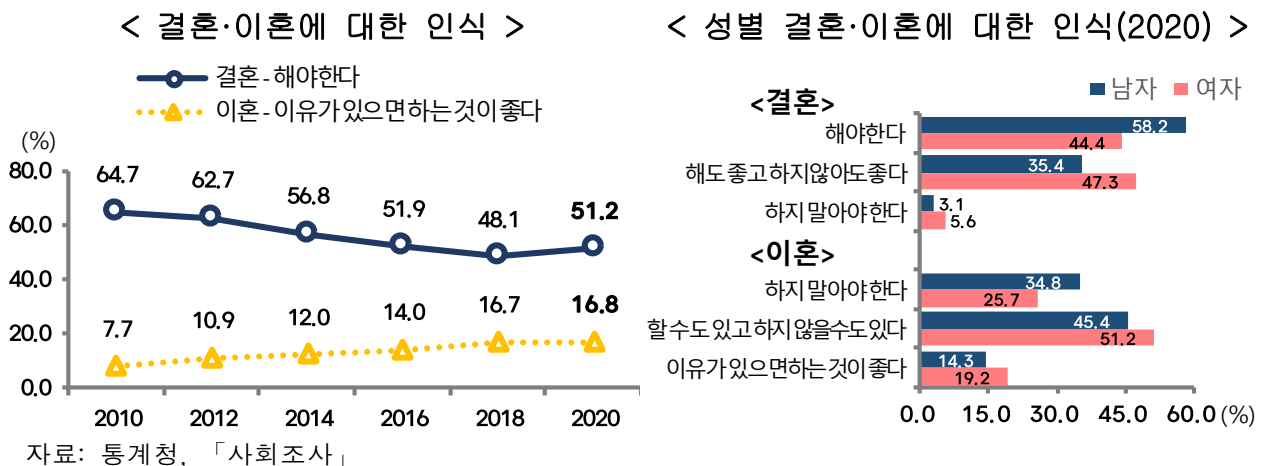
주: 1) 연령대별 구성비 및 평균 연령은 연령미상자 제외 값임

6. 가족 규범

■ 결혼·이혼에 대한 인식

2020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결혼에 대한 인식) '20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1.2%로 2년 전보다 3.1%p 증가함
 -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58.2%)가 여자(44.4%)보다 13.8%p 높음
- (이혼에 대한 인식)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16.8%로 증가하는 추세임



< 결혼·이혼에 대한 인식¹⁾ >

(단위: %)

	결혼				이혼			
	해야 한다 ²⁾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³⁾	잘 모르겠다	하지 말아야 한다 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2010	64.7	30.7	3.3	1.3	56.6	33.4	7.7	2.4
2012	62.7	33.6	1.8	1.9	48.6	37.8	10.9	2.7
2014	56.8	38.9	2.0	2.2	44.4	39.9	12.0	3.7
2016	51.9	42.9	3.1	2.2	39.5	43.1	14.0	3.4
2018	48.1	46.6	3.0	2.3	33.2	46.3	16.7	3.8
2020	51.2	41.4	4.4	3.0	30.2	48.4	16.8	4.6
남자	58.2	35.4	3.1	3.3	34.8	45.4	14.3	5.4
여자	44.4	47.3	5.6	2.8	25.7	51.2	19.2	3.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비중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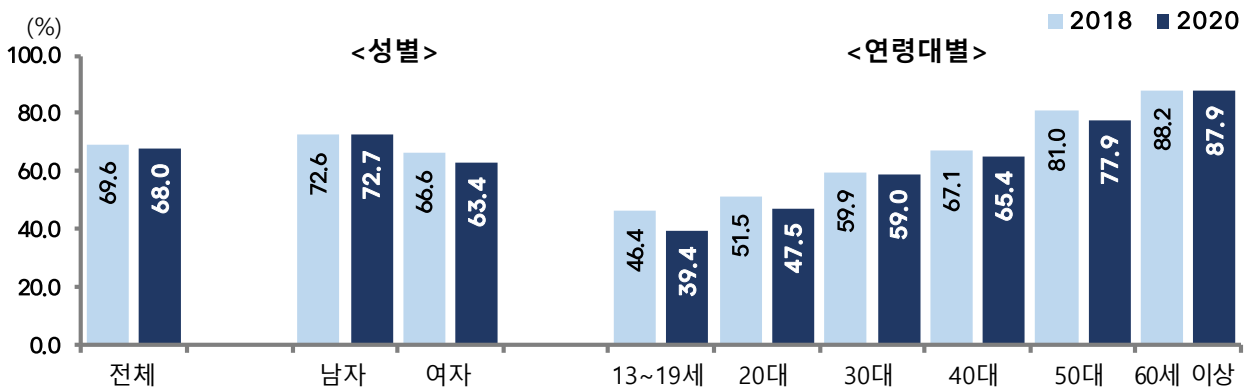
4)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비중

■ 자녀 필요성 인식

2020년 국민 10명 중 7명은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8.0%이며, 2년 전과 비교하여 1.6%p 감소함
-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자는 2년 전보다 0.1%p 증가했지만, 여자는 3.2%p 감소하여 성별에 따른 자녀 필요성 인식 격차는 9.3%p로 더 커짐
 -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2년 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결혼 후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각각 39.4%, 47.5%로 절반도 채 되지 않음

<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¹⁾²⁾ >

(단위: %, %p)

	2018	2020	증감
전체	69.6	68.0	-1.6
남자	72.6	72.7	0.1
여자	66.6	63.4	-3.2
13~19세	46.4	39.4	-7.0
20대	51.5	47.5	-4.0
30대	59.9	59.0	-0.9
40대	67.1	65.4	-1.7
50대	81.0	77.9	-3.1
60세이상	88.2	87.9	-0.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약간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한 비중임

III.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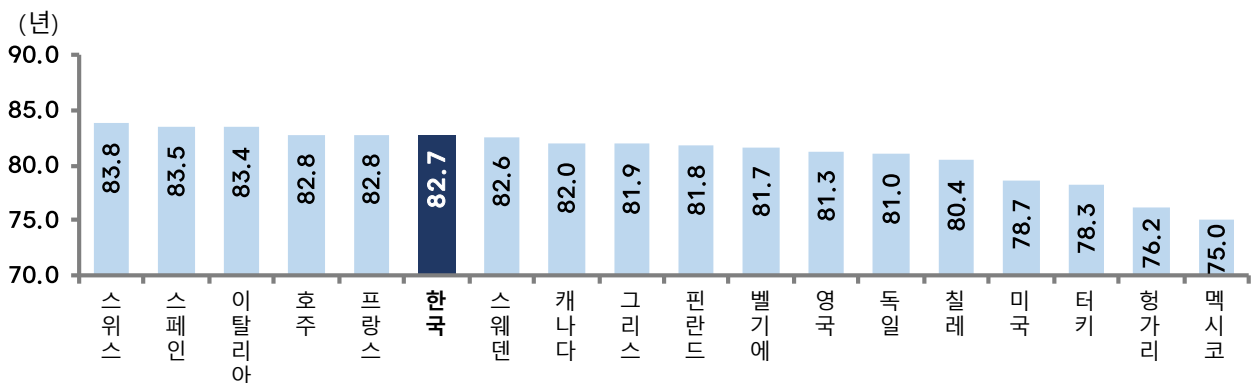
7. 건강상태

■ 기대수명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전년보다 0.6년 증가함

- '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10년 전(80.0년)보다 3.3년 증가했으며, 전년(82.7년)보다는 0.6년 증가함
 -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차이는 감소 추세로 그 격차가 '80년 8.5년에서 '17년 6.0년까지 좁혀졌으며, '17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보임
- '18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9위이며, 이는 1위인 스위스에 비해 약 1.1년 낮은 수준임

< OECD 주요국의 기대수명(2018)¹⁾ >



자료: OECD, 「Health Status, OECD stat」

주: 1) 일본의 기대수명은 2017년 84.2년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자료 결측으로 순위 집계에서 제외

< 성별 기대수명¹⁾ 및 건강수명 >

(단위: 년)

	1980	1990	2000	2009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증 감	
											'09 대비	'18 대비
전 체	66.1	71.7	76.0	80.0	80.2	82.1	82.4	82.7	82.7	83.3	3.3	0.6
남자 (A)	61.9	67.5	72.3	76.7	76.8	79.0	79.3	79.7	79.7	80.3	3.6	0.6
여자 (B)	70.4	75.9	79.7	83.4	83.6	85.2	85.4	85.7	85.7	86.3	2.9	0.6
차이 (B-A)	8.5	8.4	7.4	6.7	6.8	6.2	6.1	6.0	6.0	6.0	-0.7	0.0
건강수명 ²⁾	-	-	-	-	-	-	64.9	-	64.4	-	-	-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 1)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2)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임. 2012년 최초 작성하였으며, 2년 주기로 공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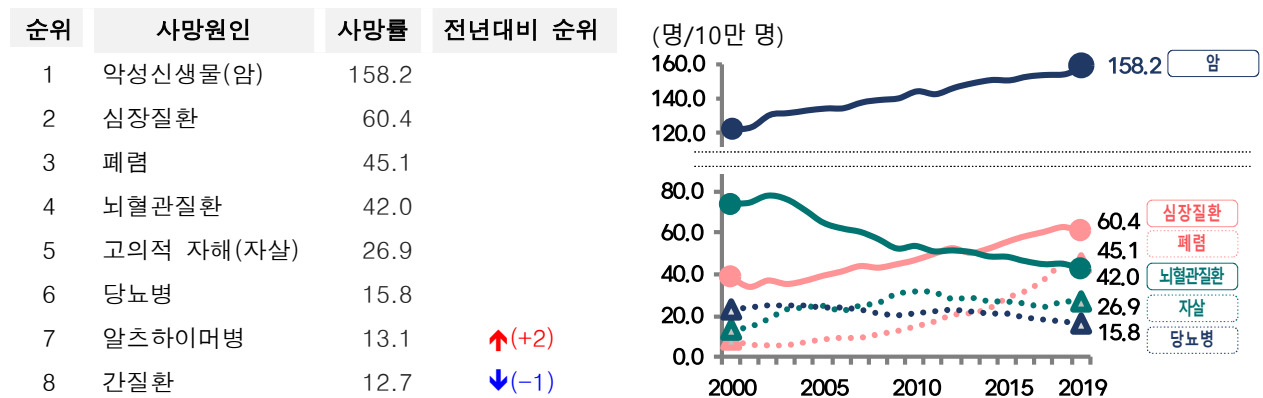
■ 사인별 사망률

2019년 사망원인은 암 > 심장질환 > 폐렴 > 뇌혈관질환 순임

□ '19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10만 명당 158.2명이 사망하였고, 뒤를 이어 심장질환(60.4명), 폐렴(45.1명) 순으로 나타남

-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19년에는 전년보다 0.3명 감소한 45.1명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임
- 남자는 여자보다 암, 고의적 자해(자살), 간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여자는 알츠하이머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많음

< 주요 사망원인 순위 추이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¹⁾ >

(단위: 명/10만 명)

	악성신생물 (암)	심장질환 ²⁾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2000	122.4	38.7	8.2	73.6	13.7	22.7	0.3	23.0
2005	134.6	39.6	8.6	64.5	24.8	24.3	2.3	17.4
2010	144.4	46.9	14.9	53.2	31.2	20.7	4.1	13.8
2015	150.8	55.6	28.9	48.0	26.5	20.7	9.9	13.4
2016	153.0	58.2	32.2	45.8	25.6	19.2	9.4	13.3
2017	153.9	60.2	37.8	44.4	24.3	17.9	9.8	13.3
2018	154.3	62.4	45.4	44.7	26.6	17.1	12.0	13.4
2019	158.2	60.4	45.1	42.0	26.9	15.8	13.1	12.7
증감	3.9	-2.0	-0.3	-2.7	0.3	-1.3	1.1	-0.7
남자	196.3	59.6	47.5	41.5	38.0	16.1	7.5	18.6
여자	120.2	61.3	42.8	42.6	15.8	15.5	18.7	6.7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사망률 =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2)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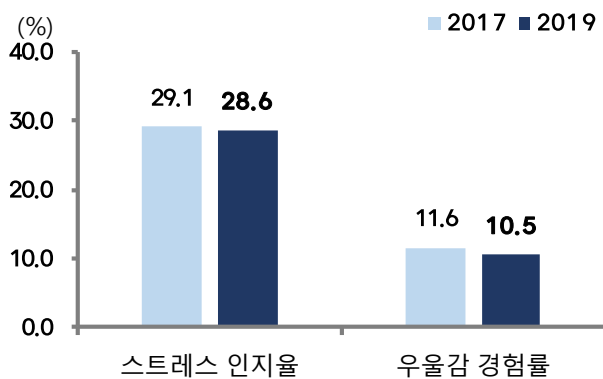
■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2019년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6%,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2년 전보다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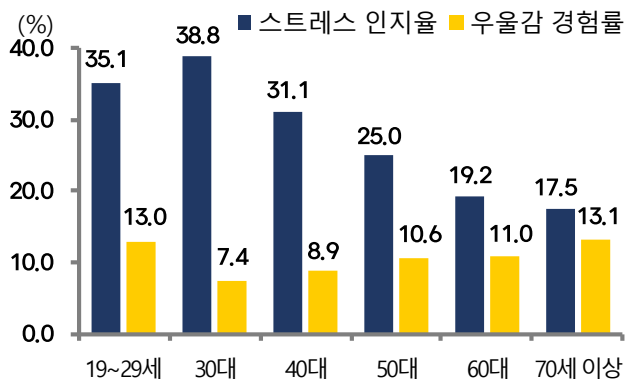
□ '19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6%,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2년 전보다 각각 0.5%p, 1.1%p 감소함

-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은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30대 미만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



< 연령대별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2019)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 ¹⁾²⁾	2015	29.6	28.6	30.5	36.9	38.7	28.9	26.4	20.0	18.6
	2016	27.9	27.0	28.8	32.8	37.7	28.4	24.5	20.7	16.6
	2017	29.1	27.5	30.7	37.9	36.0	27.5	26.5	20.9	21.4
	2018	27.3	24.9	29.6	35.7	34.3	28.1	22.8	21.3	16.8
	2019	28.6	27.4	29.8	35.1	38.8	31.1	25.0	19.2	17.5
우울감 경험률 ¹⁾³⁾	2015	13.3	9.7	16.8	14.9	10.3	10.8	13.1	18.2	15.2
	2017	11.6	9.4	13.9	13.5	9.1	7.8	11.0	14.7	17.3
	2019	10.5	8.2	12.9	13.0	7.4	8.9	10.6	11.0	13.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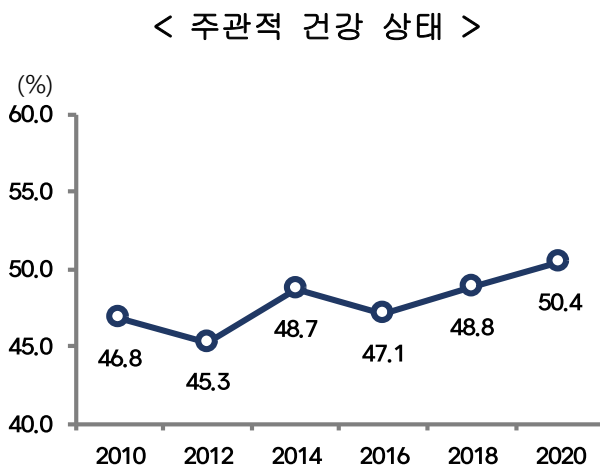
2)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와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는 응답자의 비중

3)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

■ 주관적 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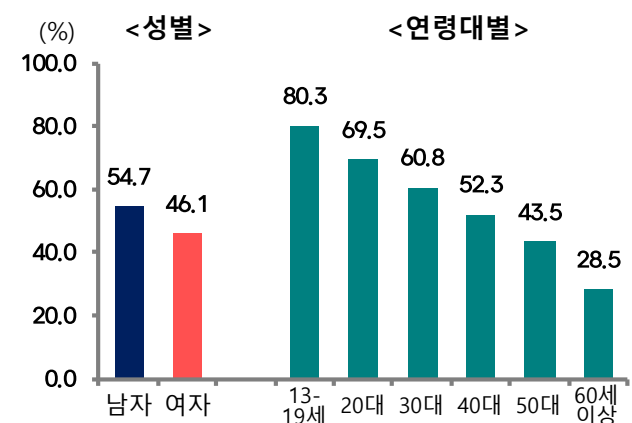
2020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게 평가함

- '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의 비중은 50.4%로 2년 전보다 1.6%p, 10년 전보다 3.6%p 증가함
 - 남자가(54.7%)가 여자(46.1%)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고 있음
 - 60세 이상은 10명 중 약 3명(28.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는 반면, 10대는 10명 중 8명(80.3%)이 좋게 평가하는 등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 큰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성 및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 상태(2020) >



< 주관적 건강 상태¹⁾²⁾ >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0	46.8	51.1	42.6	70.1	-	63.9	52.8	45.8	38.6	23.6
2012	45.3	49.6	41.2	-	73.0	62.0	50.4	43.6	36.9	21.6
2014	48.7	52.7	44.7	-	74.7	67.1	56.2	47.3	41.2	23.9
2016	47.1	51.3	43.1	-	74.8	63.9	54.2	46.2	40.3	25.4
2018	48.8	52.0	45.7	-	75.7	67.2	58.4	48.2	42.2	27.2
2020	50.4	54.7	46.1	-	80.3	69.5	60.8	52.3	43.5	28.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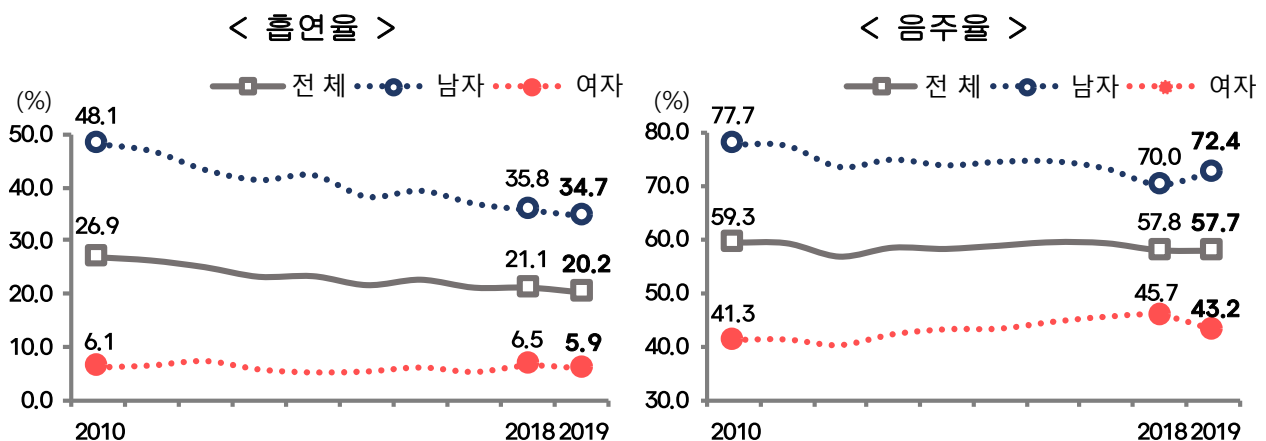
2) 자신의 전반적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

8. 건강행태

■ 흡연과 음주

2019년 성인의 흡연율은 20.2%, 음주율은 57.7%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19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0.2%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으며, 음주율 또한 57.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함
- 흡연율은 남자(34.7%), 여자(5.9%) 모두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음주율의 경우 남자(72.4%)는 증가하고 여자(43.2%)는 감소함
- '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4.4%) 및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14.2%)은 전년보다 각각 0.5%p, 2.3%p 증가함
- 고위험 음주율은 12.1%로 전년보다 1.7%p 감소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흡연율 및 음주율 >

(단위: %)

	흡연율 ¹⁾²⁾³⁾			간접흡연 ⁴⁾ 노출률 (가정실내)	간접흡연 ⁵⁾ 노출률 (직장실내)	음주율 ¹⁾⁶⁾			고위험 음주율 ⁷⁾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26.9	48.1	6.1	14.4	49.1	59.3	77.7	41.3	13.5
2015	21.6	38.3	5.3	8.2	27.7	58.7	74.4	43.3	12.7
2016	22.6	39.4	6.1	6.1	17.8	59.4	74.5	44.5	13.2
2017	21.1	37.0	5.2	4.7	13.4	59.2	73.1	45.4	13.4
2018	21.1	35.8	6.5	3.9	11.9	57.8	70.0	45.7	13.8
2019	20.2	34.7	5.9	4.4	14.2	57.7	72.4	43.2	12.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응답자의 비율

3) '19년부터 일반담배(필러)로 문향이 변경되어 연도비교 시 주의

4)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비율('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5) 현재 일을 하는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비율('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6)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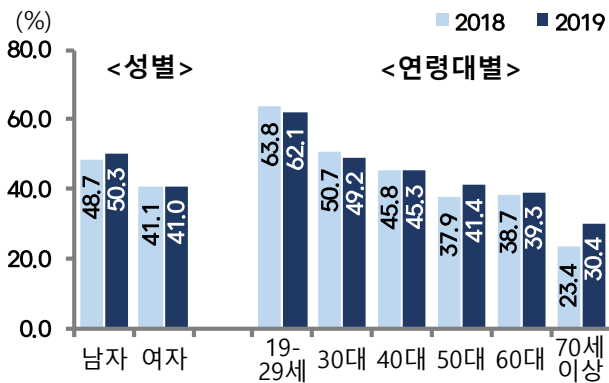
7)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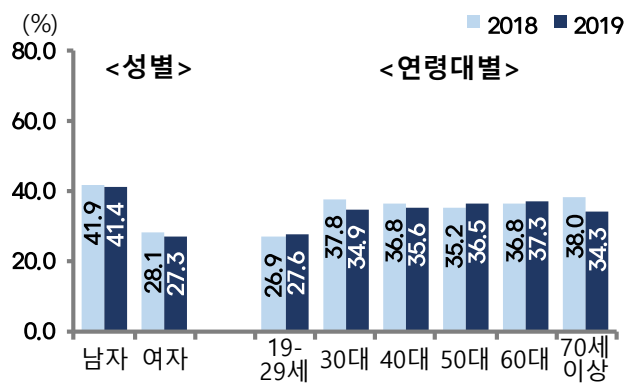
2019년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년 대비 증가, 비만 유병률은 감소함

- '19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5.6%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으며, 비만 유병률은 34.4%로 전년보다 0.6%p 감소함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와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여자와 40대 이하에서는 감소함
- 비만유병률은 남녀 모두 감소하였고, 60대가 37.3%로 가장 높고, 20대가 27.6%로 가장 낮음

< 성 및 연령대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 성 및 연령대별 비만 유병률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및 비만 유병률 >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¹⁾²⁾	2015	51.0	54.7	47.5	66.7	51.2	54.5	46.2	45.7	29.8
	2016	47.8	51.3	44.3	61.9	49.1	47.9	45.4	45.8	28.5
	2017	46.4	49.1	43.8	65.6	47.5	47.5	44.4	35.8	27.2
	2018	44.9	48.7	41.1	63.8	50.7	45.8	37.9	38.7	23.4
	2019	45.6	50.3	41.0	62.1	49.2	45.3	41.4	39.3	30.4
비만 유병률 ¹⁾³⁾	2015	34.1	39.6	28.8	23.5	32.9	35.6	38.3	40.1	37.4
	2016	35.5	41.8	29.2	27.2	34.2	39.0	36.1	40.2	37.5
	2017	34.8	41.1	28.4	29.4	33.4	35.3	38.0	38.0	34.7
	2018	35.0	41.9	28.1	26.9	37.8	36.8	35.2	36.8	38.0
	2019	34.4	41.4	27.3	27.6	34.9	35.6	36.5	37.3	34.3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유산소 신체활동실천율을 의미하며, 1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사람의 비율

3) 체질량지수가 25kg/m² 이상인 사람의 비율

9. 의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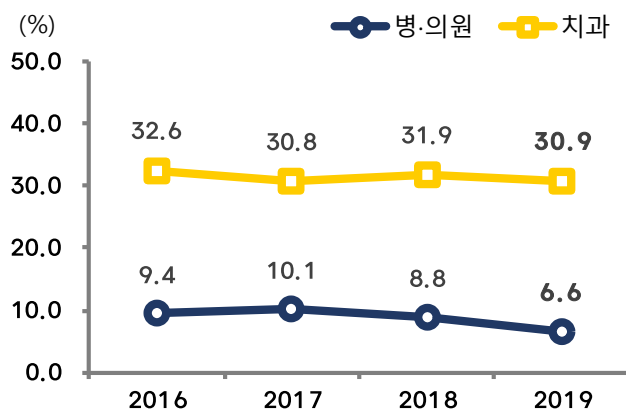
■ 연간 미충족 의료율

2019년 병·의원의 미충족 의료율은 6.6%, 치과의 미충족 의료율은 30.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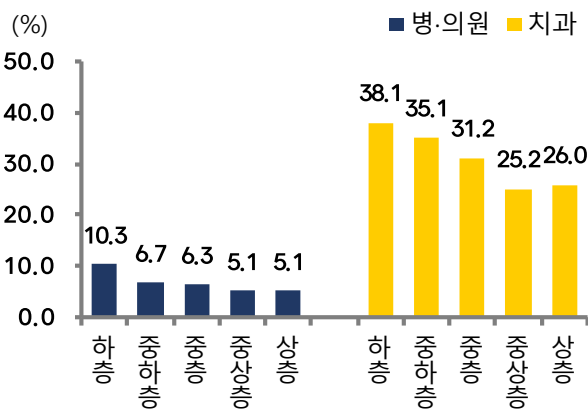
□ '19년 우리나라 국민 중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은 6.6%,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은 30.9%로 전년보다 각각 2.2%p, 1.0%p 감소함

- 병·의원 미충족 의료율은 여자(7.7%)가 남자(5.5%)보다 2.2%p 더 높고,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남자(31.0%)가 여자(30.9%)보다 0.1%p 더 높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미충족 의료율이 낮으며,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이 치과보다 낮음

< 연간 미충족 의료율 >



< 소득수준별 연간 미충족 의료율(2019)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연간 미충족 의료율¹⁾²⁾ >

(단위: %)

	2016	2017	2018	2019	소득계층별						
					남자	여자	하층 ³⁾	중하층 ³⁾	중층 ³⁾	중상층 ³⁾	상층 ³⁾
병·의원	9.4	10.1	8.8	6.6	5.5	7.7	10.3	6.7	6.3	5.1	5.1
치과	32.6	30.8	31.9	30.9	31.0	30.9	38.1	35.1	31.2	25.2	26.0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및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

3) 월 가구 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5분위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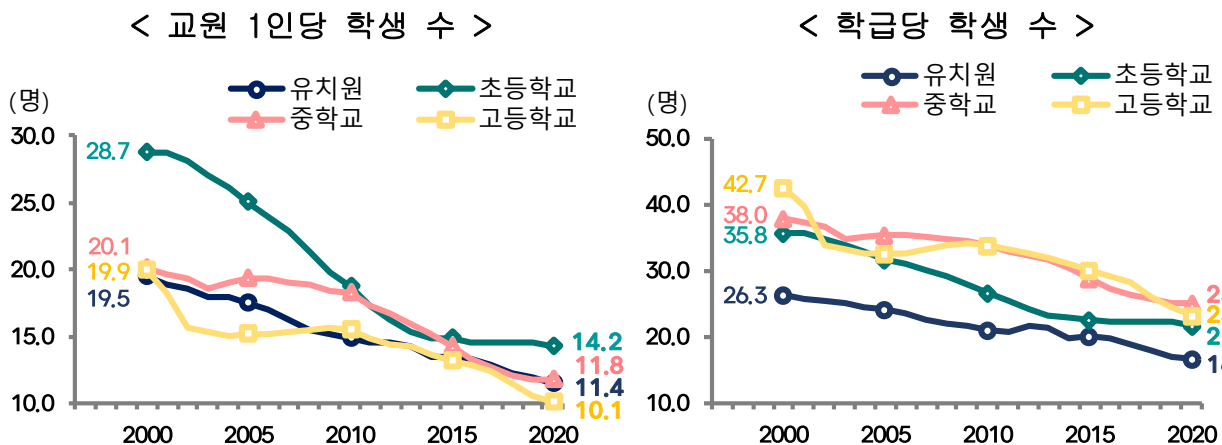
IV. 교육 · 훈련

10. 교육환경

■ 학생 수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11.8명), 유치원(11.4명), 고등학교(10.1명) 순임
 - '20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00년 대비 각각 58%, 49%, 59%, 51% 수준임
-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서 전년대비 가장 큰 폭(1.1명)으로 감소하였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각각 0.4명, 0.3명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0.1명 증가함
 - '20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16.7명, 21.8명, 25.2명, 23.4명으로 '00년 대비 각각 63%, 61%, 66%, 55% 수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학교급별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 >

(단위: 명)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19.5	28.7	20.1	19.9	26.3	35.8	38.0	42.7
2005	17.5	25.1	19.4	15.1	24.2	31.8	35.3	32.7
2010	14.8	18.7	18.2	15.5	21.0	26.6	33.8	33.7
2015	13.4	14.9	14.3	13.2	20.0	22.6	28.9	30.0
2019	11.9	14.6	11.7	10.6	17.0	22.2	25.1	24.5
2020	11.4	14.2	11.8	10.1	16.7	21.8	25.2	2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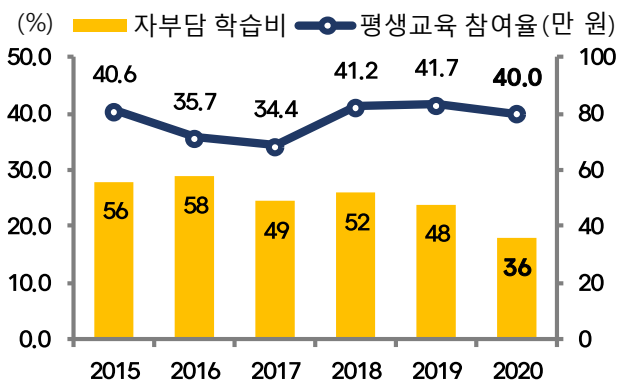
11. 평생교육

■ 평생교육 참여 및 성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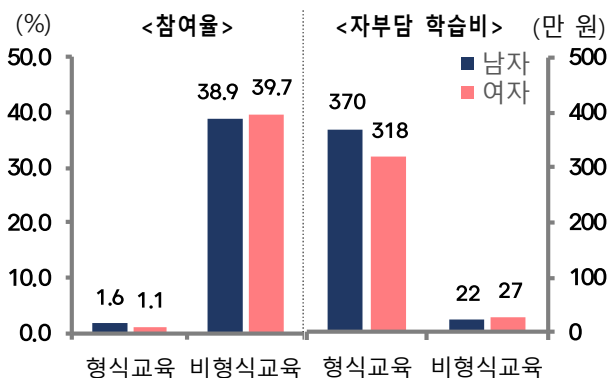
2020년 성인 10명 중 4명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1인당 평균 36만 원을 자부담 학습비로 지출함

- '20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0.0%로 전년보다 1.7%p 감소함
 - 형식교육(1.4%) 및 비형식교육(39.3%) 참여율은 전년보다 각각 0.1%p, 1.6%p 감소했으나,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1%로 전년보다 1.4%p 증가함
 - 참여자 1인당 자부담 학습비는 36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 감소함
 - 남자는 형식교육에서, 여자는 비형식교육에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10.6%p 높음

< 평생교육 참여 현황 >



< 성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202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평생교육 참여 현황¹⁾ >

(단위: %, 만 원)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교육 자부담 학습비		
	전체	형식교육 ²⁾	비형식교육 ³⁾	직업 관련 ⁴⁾	전체	형식교육 ²⁾	비형식교육 ³⁾
2016	35.7	2.8	34.2	17.3	58	409	28
2017	34.4	1.9	33.4	14.1	49	345	31
2018	41.2	2.3	40.4	18.8	52	396	30
2019	41.7	1.5	40.9	18.7	48	429	33
2020	40.0	1.4	39.3	20.1	36	349	24
남자	39.7	1.6	38.9	25.4	36	370	22
여자	40.3	1.1	39.7	14.8	36	318	2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2016년까지 25~64세, 2017년부터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함

3)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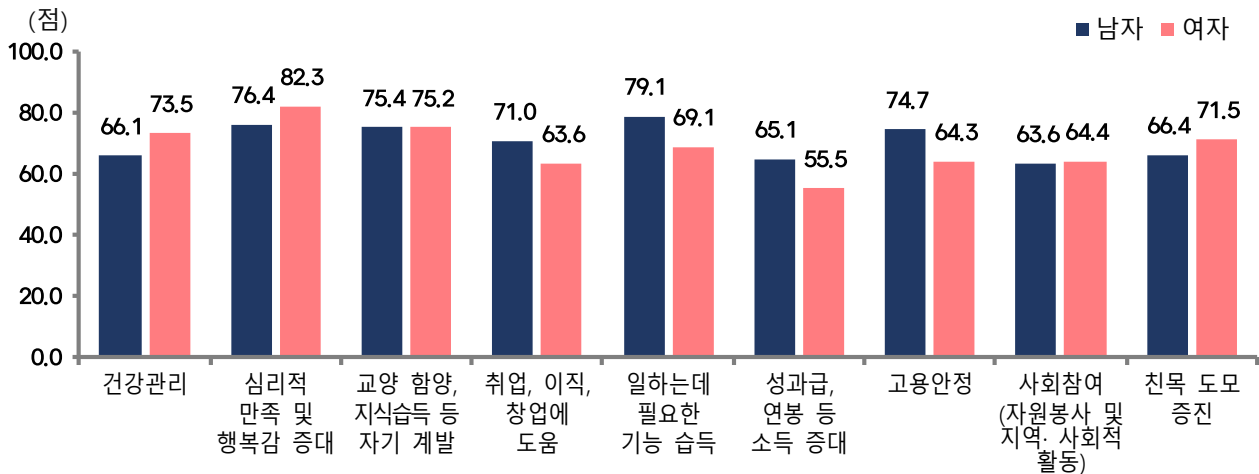
4) 비형식교육 참여의 주된 목적에서 취업·이직·창업에 도움,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일자리 유지)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행복감 증대」, 「자기 계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순으로 참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20년 우리나라 성인은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79.3점)」, 「교양 함양, 지식습득 등 자기 계발(75.3점)」,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74.8점)」을 평생교육의 주요 성과로 생각함

- 평생교육 성과 인식은 건강관리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상승함
- 남자는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소득 증대」, 「고용 안정」에 대한 성과 인식이, 여자는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친목 도모」에 대한 성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별 평생교육 성과 인식(202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 조사」

< 평생교육 성과 인식¹⁾²⁾ >

(단위: 점)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함양,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사회참여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적 활동)	친목도모 증진
2017	67.8	78.7	75.5	58.7	68.8	51.8	60.6	59.6	67.2
2018	70.6	78.9	75.1	59.6	69.2	54.6	64.2	64.8	69.9
2019	70.4	77.7	71.6	60.4	68.2	53.2	63.7	59.9	67.4
2020	69.8	79.3	75.3	67.8	74.8	61.0	70.3	64.0	69.0
남자	66.1	76.4	75.4	71.0	79.1	65.1	74.7	63.6	66.4
여자	73.5	82.3	75.2	63.6	69.1	55.5	64.3	64.4	7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 조사」

주: 1)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전혀 도움이 안 된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도움이 된다'를 5점으로 한 응답점수의 100점 환산 평균점수임

12. 교육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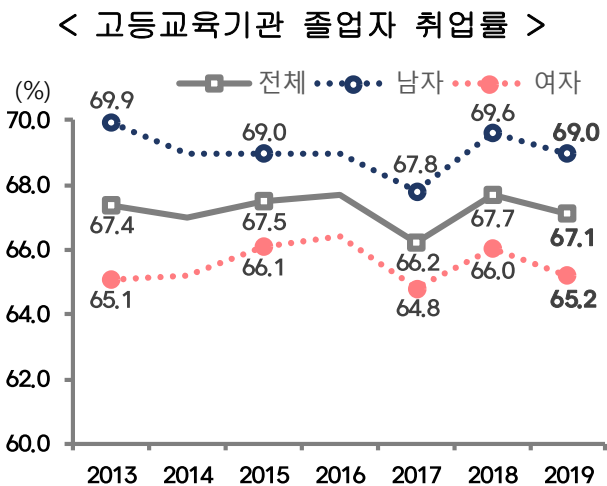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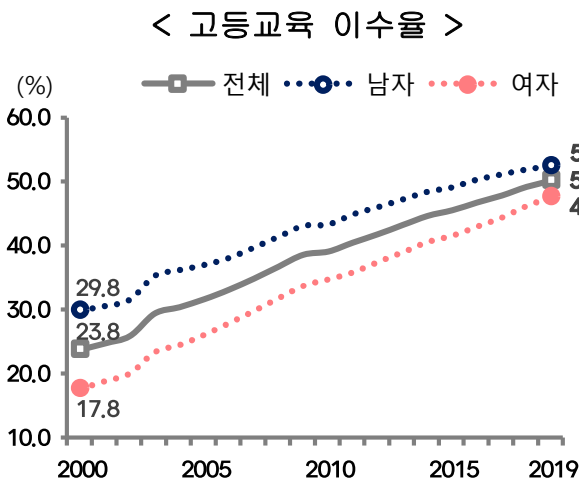
■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019년 25~64세 국민 2명 중 1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67.1%가 취업함

□ (고등교육 이수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0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년에는 25~64세 국민 2명 중 1명(50.0%)은 대학을 졸업하였음

○ 성별 이수율 격차는 '00년 12.0%p에서 '19년 4.7%p로 줄어듦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1%로 전년보다 0.6%p 감소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 한국교육개발원·통계청,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단위: %, %p)

	고등교육 이수율 ¹⁾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²⁾³⁾⁴⁾			
	전체	남자	여자	차이	전체	남자	여자	차이
2000	23.8	29.8	17.8	12.0	-	-	-	-
2005	31.6	36.9	26.2	10.7	-	-	-	-
2010	39.0	43.2	34.8	8.4	-	-	-	-
2015	45.4	49.0	41.6	7.4	67.5	69.0	66.1	2.9
2016	46.6	50.2	43.0	7.2	67.7	69.0	66.4	2.6
2017	47.7	51.0	44.4	6.6	66.2	67.8	64.8	3.0
2018	49.0	51.8	46.2	5.6	67.7	69.6	66.0	3.6
2019	50.0	52.3	47.6	4.7	67.1	69.0	65.2	3.8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 한국교육개발원·통계청,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주: 1)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임

2)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3)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4)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교내취업자 TLO + 해외취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1인 창(사)업자 + 프리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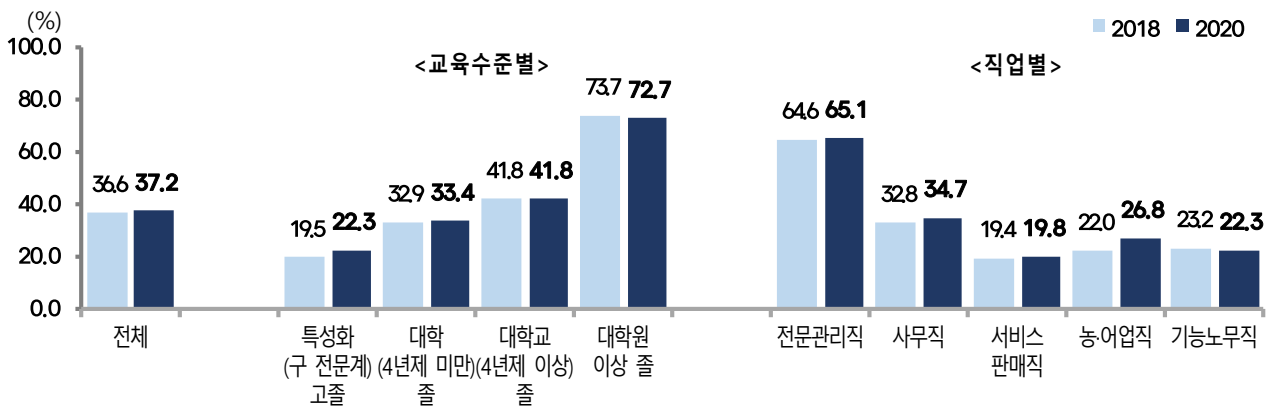
■ 전공직업 일치도

2020년 대학원 졸업자와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가장 높음

□ '20년 자신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2%로 10년 전보다 0.9%p, 2년 전보다는 0.6%p 상승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아져 대학원 졸업의 경우 72.7%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에서 일치한다는 비중이 65.1%로 가장 높은 반면, 농·어업직, 서비스판매직, 기능노무직은 불일치도가 높음

< 전공직업 일치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전공직업 일치도¹⁾²⁾ >

(단위: %)

	전체	교육수준별				직업별				
		특성화 (구 전문계) 고졸	대학 (4년제 미만) 졸	대학교 (4년제 이상) 졸	대학원 이상 졸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직	기능 노무직
2010	36.3	18.4	35.2	45.7	76.7	62.8	36.7	17.5	20.0	22.4
2012	38.3	21.5	35.9	44.1	72.6	66.7	37.8	19.7	20.6	22.2
2014	36.9	18.7	35.0	43.0	76.7	63.1	36.7	17.3	19.8	22.5
2016	36.3	21.1	32.6	42.3	71.0	62.3	35.7	17.0	24.3	22.1
2018	36.6	19.5	32.9	41.8	73.7	64.6	32.8	19.4	22.0	23.2
2020	37.2	22.3	33.4	41.8	72.7	65.1	34.7	19.8	26.8	22.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거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자신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편이다'와 '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V. 노동

13. 경제활동

■ 고용과 실업

2020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0.1%, 실업률은 0.2%p 상승한 4.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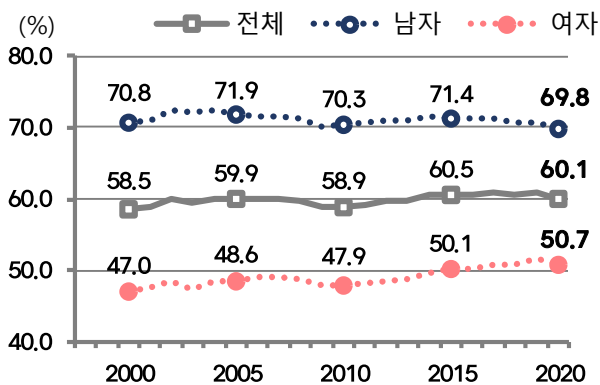
□ (고용률) '20년 고용률은 60.1%로 전년보다 0.8%p 하락, '10년보다 1.2%p 상승함

○ 남자의 고용률은 69.8%로 '00년 이후 처음으로 70% 미만을 기록함

□ (실업률) '20년 실업률은 4.0%로 전년보다 0.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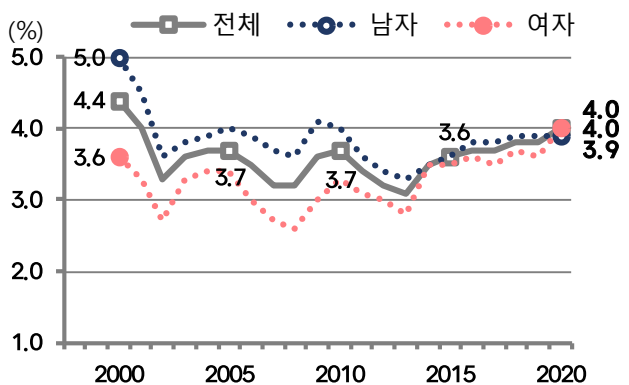
○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여자의 실업률(4.0%)이 남자의 실업률(3.9%)을 추월함

< 고용률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 >



<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p)

	고용률 ¹⁾				실업률 ²⁾			
	전체	남자	여자	차이(남-여)	전체	남자	여자	차이(남-여)
2000	58.5	70.8	47.0	23.8	4.4	5.0	3.6	1.4
2005	59.9	71.9	48.6	23.3	3.7	4.0	3.4	0.6
2010	58.9	70.3	47.9	22.4	3.7	4.0	3.3	0.7
2015	60.5	71.4	50.1	21.3	3.6	3.6	3.5	0.1
2016	60.6	71.2	50.3	20.9	3.7	3.8	3.6	0.2
2017	60.8	71.2	50.8	20.4	3.7	3.8	3.5	0.3
2018	60.7	70.8	50.9	19.9	3.8	3.9	3.7	0.2
2019	60.9	70.7	51.6	19.1	3.8	3.9	3.6	0.3
2020	60.1	69.8	50.7	19.1	4.0	3.9	4.0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14. 취업자

■ 산업·직업별 구성

2020년 취업자 중 광공업 및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줄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늘었음

□ (산업별) '20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8.0%), 도소매·숙박음식점업(21.0%), 광공업(16.3%),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8%) 순임

○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농림어업은 남자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여자의 취업 비중이 높음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p)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 금융업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2015	5.1	17.6	7.1	11.8	23.0	35.4
2016	4.8	17.4	7.1	11.7	22.9	36.1
2017	4.8	17.2	7.4	11.4	22.8	36.4
2018	5.0	16.9	7.6	11.8	22.2	36.5
2019	5.1	16.4	7.4	11.7	22.0	37.4
2020	5.4	16.3	7.5	11.8	21.0	38.0
증감	0.3	-0.1	0.1	0.1	-1.0	0.6
남자	5.7	20.5	11.8	15.2	17.7	29.2
여자	4.9	10.8	1.8	7.4	25.4	4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업별) '20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4%), 사무 종사자(17.4%), 단순노무 종사자(13.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p)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5	1.4	19.8	17.0	10.7	12.0	4.7	9.1	12.2	13.1
2016	1.3	20.0	17.3	10.9	11.8	4.5	9.1	12.1	13.0
2017	1.2	20.3	17.4	11.0	11.6	4.5	8.9	11.9	13.2
2018	1.4	20.5	17.8	11.1	11.3	4.7	8.7	11.6	13.0
2019	1.5	20.5	17.5	11.5	11.2	4.9	8.7	11.2	13.0
2020	1.5	20.4	17.4	11.3	10.8	5.1	8.7	11.0	13.8
증감	0.0	-0.1	-0.1	-0.2	-0.4	0.2	0.0	-0.2	0.8
남자	2.2	18.6	15.0	6.6	9.4	5.6	13.4	17.0	12.2
여자	0.5	22.8	20.6	17.6	12.6	4.5	2.5	2.9	16.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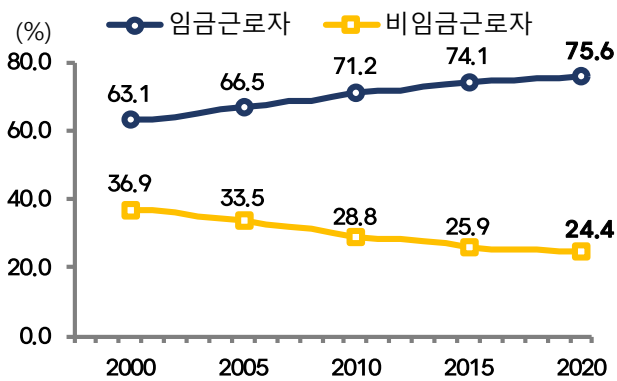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 구성

2020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5.6%, 비임금근로자는 24.4%를 차지함

□ '20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5.6%로 전년 대비 0.2%p, '00년 대비 12.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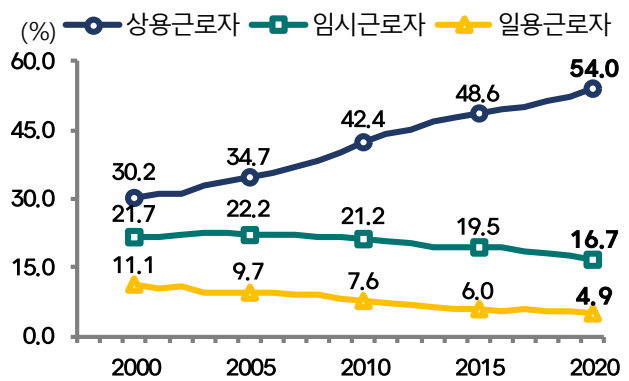
- 상용근로자 비중은 '00년 이후 23.8%p 증가하였으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은 '00년 이후 각각 5.0%p, 6.2%p 감소함
-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4.4%로 '98년 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남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비중이, 여자는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의 취업자 구성비 >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2000	63.1	30.2	21.7	11.1	36.9	6.9	20.9	9.2
2005	66.5	34.7	22.2	9.7	33.5	7.3	19.6	6.6
2010	71.2	42.4	21.2	7.6	28.8	6.3	17.2	5.3
2015	74.1	48.6	19.5	6.0	25.9	6.1	15.3	4.4
2016	74.5	49.5	19.4	5.6	25.5	6.0	15.3	4.3
2017	74.6	50.2	18.7	5.7	25.4	6.0	15.2	4.2
2018	74.9	51.3	18.1	5.4	25.1	6.2	14.9	4.1
2019	75.4	52.4	17.7	5.3	24.6	5.7	15.0	4.0
2020	75.6	54.0	16.7	4.9	24.4	5.1	15.5	3.9
남자	73.5	56.3	11.4	5.7	26.5	6.6	18.9	1.0
여자	78.3	50.8	23.7	3.8	21.7	3.2	10.8	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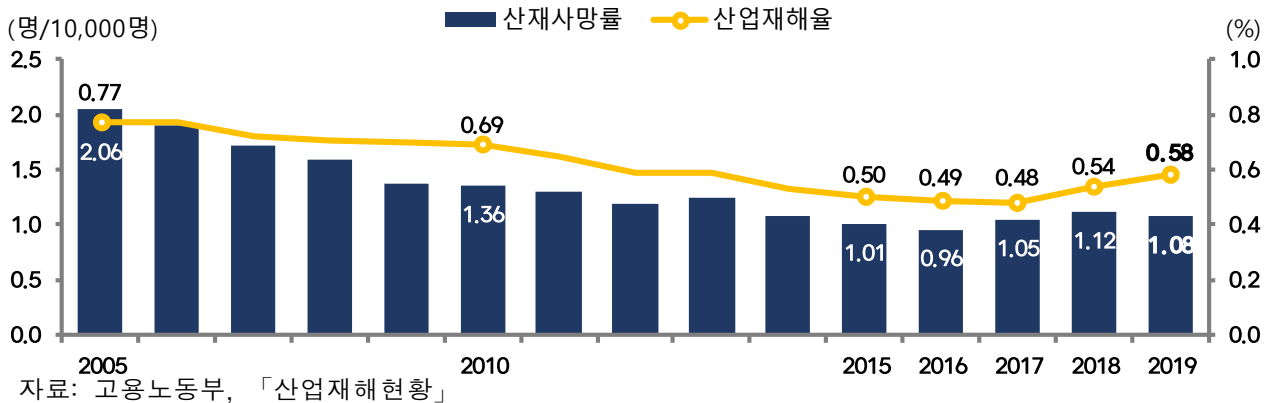
15. 고용의 질

■ 산업재해 발생

2019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만 명당 1.08명, 산업재해율은 0.58%임

- '19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만 명당 1.08명으로 '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전년보다는 0.04명 감소함
- 산업재해율은 '03년 이후 감소추세로 '17년 최저치(0.48%)를 기록한 후 '19년 0.58%로 다시 증가함
- 산업별로는, 광업의 산재사망률(365.5명) 및 산업재해율(22.89%)이 타 업종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산재사망률 및 산업재해율 >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단위: 명, 명/10,000명, %)

	근로자 수	산재 사망자수	산재 사망률 ¹⁾	산업재해자수	산업재해율 ²⁾
2005	11,059,193	2,282	2.06	85,411	0.77
2010	14,198,748	1,931	1.36	98,645	0.69
2015	17,968,931	1,810	1.01	90,129	0.50
2016	18,431,716	1,777	0.96	90,656	0.49
2017	18,560,142	1,957	1.05	89,848	0.48
2018	19,073,438	2,142	1.12	102,305	0.54
2019	18,725,160	2,020	1.08	109,242	0.58
광업	11,108	406	365.50	2,543	22.89
제조업	4,045,048	492	1.22	29,274	0.72
건설업	2,487,807	517	2.08	27,211	1.09
전기·가스·수도업	76,687	5	0.65	111	0.14
운수·창고·통신업	910,585	153	1.68	6,173	0.68
임업	91,682	17	1.85	1,017	1.11
기타의 사업	10,239,876	406	0.40	41,811	0.41
기타 ³⁾	862,367	24	0.28	1,102	0.13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주: 1) 산재사망률 = (사망자수 ÷ 산재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사망자에는 재해 당시 사망자, 요양 중 사망자,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포함됨

2) 산업재해율 = (재해자수 ÷ 산재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3)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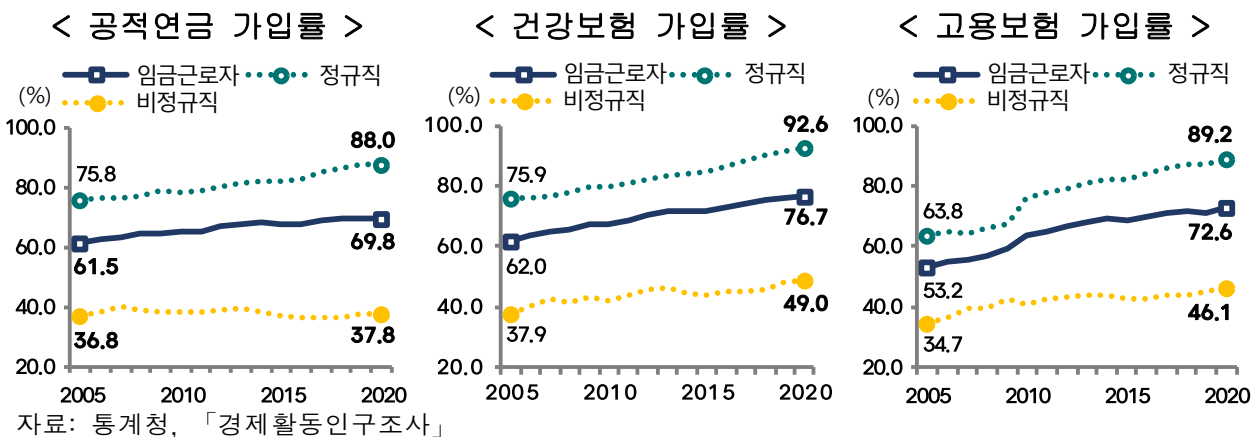
202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69.8%, 건강보험 76.7%, 고용보험 72.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3%p, 1.0%p, 1.7%p 상승함

□ '2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69.8%, 건강보험 76.7%, 고용보험 72.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3%p, 1.0%p, 1.7%p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37.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으며, 건강보험(49.0%) 및 고용보험(46.1%) 가입률은 각각 1.0%p, 1.2%p 상승함

○ '05년 이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년에는 각각* 50.2%p, 43.6%p, 43.1%p의 차이를 보임

*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순임



<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¹⁾ >

(단위: %)

	공적연금(직장가입자) ²⁾³⁾			건강보험(직장가입자) ²⁾			고용보험 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5	61.5	75.8	36.8	62.0	75.9	37.9	53.2	63.8	34.7
2010	65.1	78.5	38.1	67.1	79.5	42.1	63.4	75.7	41.0
2015	67.5	82.1	37.0	71.6	84.8	43.9	68.7	82.4	42.6
2016	67.7	83.0	36.4	72.6	86.2	44.9	69.7	84.2	42.9
2017	69.1	85.0	36.6	74.2	88.4	45.3	71.2	85.9	44.1
2018	69.8	86.2	36.6	75.5	90.1	45.9	71.6	87.0	43.6
2019	69.5	87.5	37.9	75.7	91.5	48.0	70.9	87.2	44.9
2020	69.8	88.0	37.8	76.7	92.6	49.0	72.6	89.2	4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각 연도 8월 기준임

2)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3) 국민연금 및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4)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VI. 소득 · 소비 ·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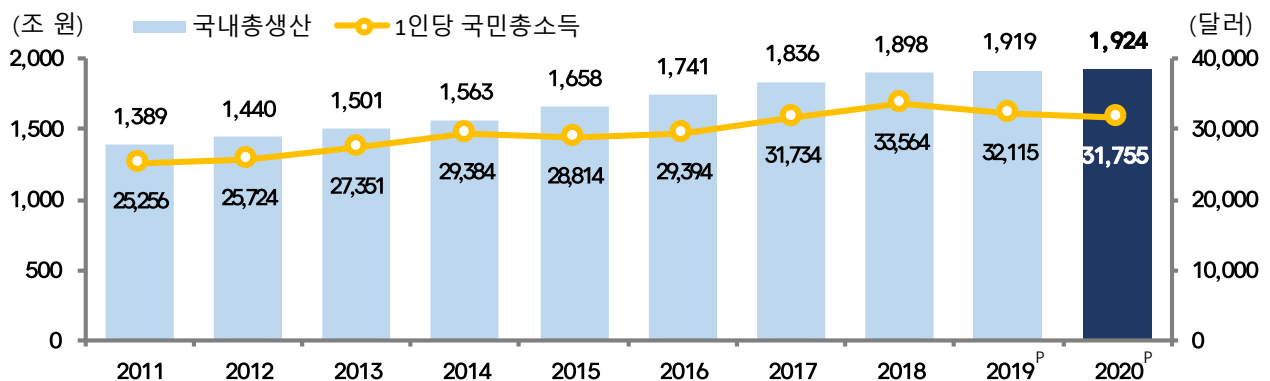
16. 국민계정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755달러로 전년보다 1.1% 감소함

- **(국내총생산, GDP)** '2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924조 원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함
-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GNI)**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755달러로 전년보다 1.1% 감소함

<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 >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p	2020 ^p
GDP (명목)	조 원	1,389	1,440	1,501	1,563	1,658	1,741	1,836	1,898	1,919	1,924
	증감률(%)	5.0	3.7	4.2	4.1	6.1	5.0	5.5	3.4	1.1	0.3
	10억 달러	1,253	1,278	1,371	1,484	1,465	1,500	1,623	1,725	1,646	1,631
	증감률(%)	9.6	2.0	7.2	8.3	-1.3	2.4	8.2	6.3	-4.6	-0.9
1인당 GNI (명목)	만 원	2,799	2,899	2,995	3,095	3,260	3,411	3,589	3,693	3,744	3,747
	증감률(%)	4.7	3.6	3.3	3.3	5.3	4.6	5.2	2.9	1.4	0.1
	달러	25,256	25,724	27,351	29,384	28,814	29,394	31,734	33,564	32,115	31,755
	증감률(%)	9.2	1.9	6.3	7.4	-1.9	2.0	8.0	5.8	-4.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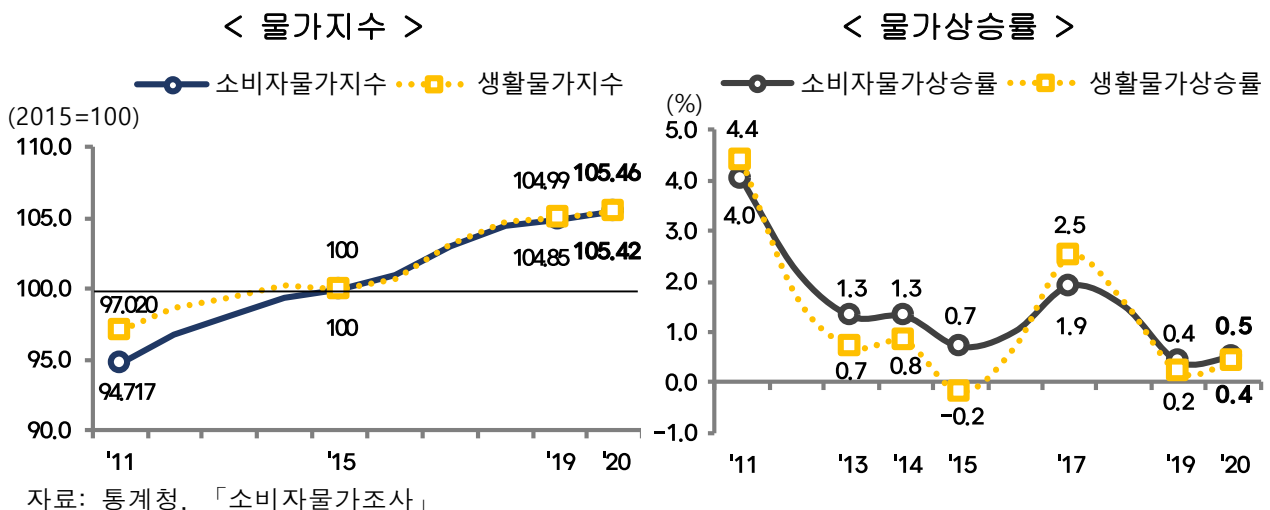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7. 물가

■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5%, 생활물가지수는 0.4% 상승함

- (소비자물가) '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보다 0.5% 상승함
 - 물가상승률은 '6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전년 대비 0.1%p 상승함
 - 품목별로 보면 상품 부문의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0.9% 상승한 103.25, 서비스 부문의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0.3% 상승한 107.18임
- (생활물가) '20년 생활물가지수*는 105.46으로 전년보다 0.4% 상승함
 - *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¹⁾ >

(2015=100)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지수 ¹⁾	94.717	96.789	98.048	99.298	100.00	100.97	102.93	104.45	104.85	105.42
	상승률(%) ²⁾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상품	95.774	98.759	99.769	100.697	100	99.4	101.31	102.65	102.35	103.25
	서비스	93.857	95.22	96.68	98.189	100	102.25	104.25	105.92	106.91	107.18
생활물가지수 (2015=100)	지수 ¹⁾	97.020	98.671	99.383	100.220	100.00	100.67	103.14	104.77	104.99	105.46
	상승률(%) ³⁾	4.4	1.7	0.7	0.8	-0.2	0.7	2.5	1.6	0.2	0.4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주: 1) 2014년까지 소수점 3자리 수, 2015년부터 소수점 2자리 수까지 공표

2) 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

3) 생활물가상승률 = (당해 연도 생활물가지수 - 직전 연도 생활물가지수) ÷ 직전 연도 생활물가지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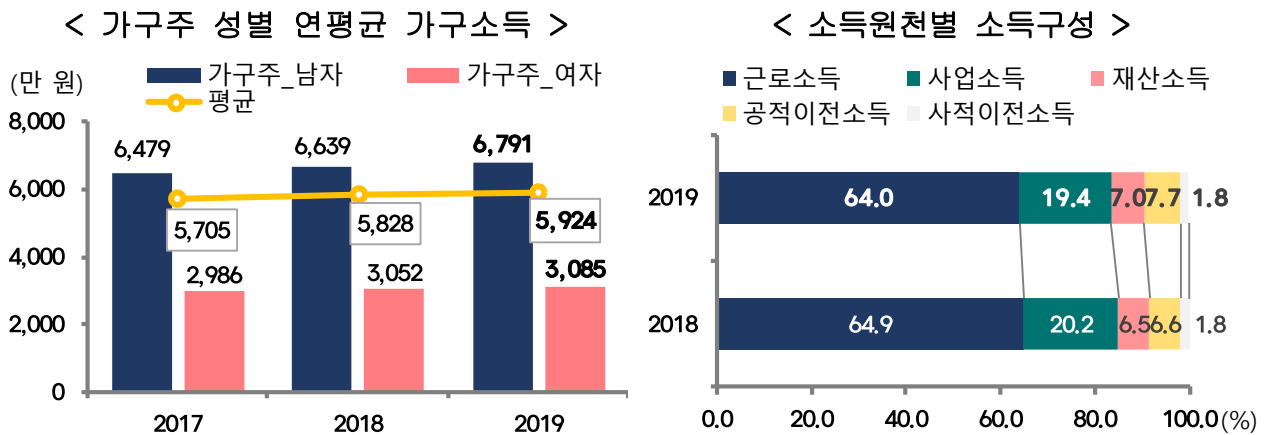
18. 가구소득 · 소비 · 자산

■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2019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5,924만 원, 월평균 소비지출은 246만 원임

□ (가구소득) '19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5,924만 원으로 전년보다 96만 원 증가함

- 가구주가 남자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6,791만 원으로, 가구주가 여자인 가구의 평균소득(3,085만 원)의 약 2.2배 수준임
- 소득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64.0%)과 사업소득(19.4%)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재산소득(7.0%) 및 공적이전소득(7.7%)은 증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비지출) '19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46만 원임

- 고소득 가구는 음식·숙박, 교통 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및 지출구성비(2019)¹⁾ >

(단위: 만 원, %)

	소비지출액	지출 1순위	지출 2순위	지출 3순위	지출 4순위
2018	254	식료품·비주류음료(14.4)	음식·숙박(13.8)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2019 ²⁾	246	음식·숙박(14.1)	식료품·비주류음료(13.5)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3)
소득 1분위	102	식료품·비주류음료(19.9)	주거·수도·광열(19.5)	보건(12.9)	음식·숙박(10.9)
소득 2분위	168	주거·수도·광열(16.3)	식료품·비주류음료(15.3)	음식·숙박(14.0)	교통(10.1)
소득 3분위	235	음식·숙박(14.5)	식료품·비주류음료(14.0)	교통(13.1)	주거·수도·광열(12.2)
소득 4분위	300	음식·숙박(14.7)	식료품·비주류음료(13.4)	교통(12.8)	주거·수도·광열(9.7)
소득 5분위	422	음식·숙박(14.2)	교통(12.8)	교육(11.9)	식료품·비주류음료(1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대상

2) 표본체계(1/12 순환 → 6-6-6 연동) 및 조사방법(가계부, 연간조사표 → 가계부) 개편으로 직접 비교 시 유의 필요

■ 자산 및 부채

2020년 가구당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1,352만 원, 부채는 346만 원 증가함

□ **(자산총액)** '20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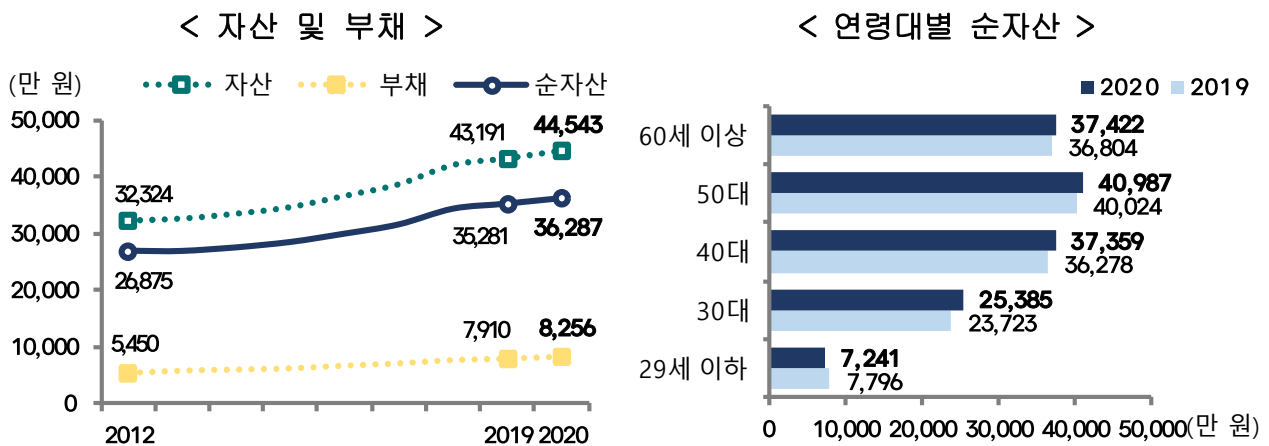
○ 전년 대비 금융자산은 0.6% 감소, 실물자산은 4.3% 증가함

□ **(부채)** '20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8,256만 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함

□ **(순자산)** 순자산액은 3억 6,287만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함

○ 연령대별 순자산액 규모는 50대(4억 987만 원), 60세 이상(3억 7,422만 원), 40대(3억 7,359만 원), 30대(2억 5,385만 원), 30세 미만(7,241만 원) 순임

○ 29세 이하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555만 원 감소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산 및 부채 현황¹⁾ >

(단위: 만 원, %)

	자산	금융자산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순자산 ²⁾
2015	34,685	8,914	6,550	2,363	25,772	23,649	6,256	4,361	1,896	28,429
2016	36,637	9,279	6,826	2,453	27,358	25,237	6,719	4,721	1,998	29,918
2017	38,671	9,722	7,208	2,514	28,950	26,835	7,099	5,041	2,058	31,572
2018	42,036	10,346	7,685	2,662	31,689	29,380	7,668	5,539	2,129	34,368
2019	43,191	10,570	7,873	2,697	32,621	30,379	7,910	5,755	2,155	35,281
2020	44,543	10,504	7,632	2,873	34,039	31,962	8,256	6,050	2,207	36,287
증감	1,352	-66	-241	176	1,418	1,583	346	295	52	1,006
증감률	3.1	-0.6	-3.1	6.5	4.3	5.2	4.4	5.1	2.4	2.9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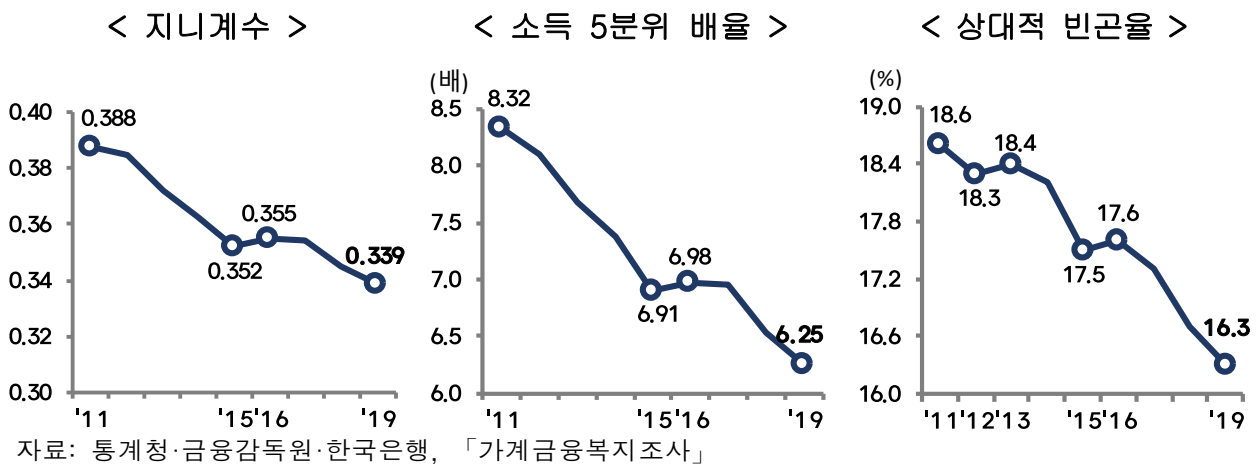
주: 1) 전체 가구 평균임

2) 순자산 = 자산 - 부채

■ 소득분배지표

2019년 지니계수는 0.339, 소득5분위 배율은 6.25배, 상대적 빈곤율은 16.3%임

- '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 소득 5분위 배율은 6.25배,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 근로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1.1%로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



<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¹⁾ >

(단위: 배,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니계수 ²⁾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0.339
소득 5분위 배율 ³⁾	8.32	8.10	7.68	7.37	6.91	6.98	6.96	6.54	6.25
상대적 빈곤율 ⁴⁾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근로연령인구 (18~65세)	14.0	13.9	13.8	13.7	12.9	12.9	12.6	11.8	11.1
은퇴연령인구 (66세 이상)	47.8	47.0	47.7	46.0	44.3	45.0	44.0	43.4	43.2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4)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VII.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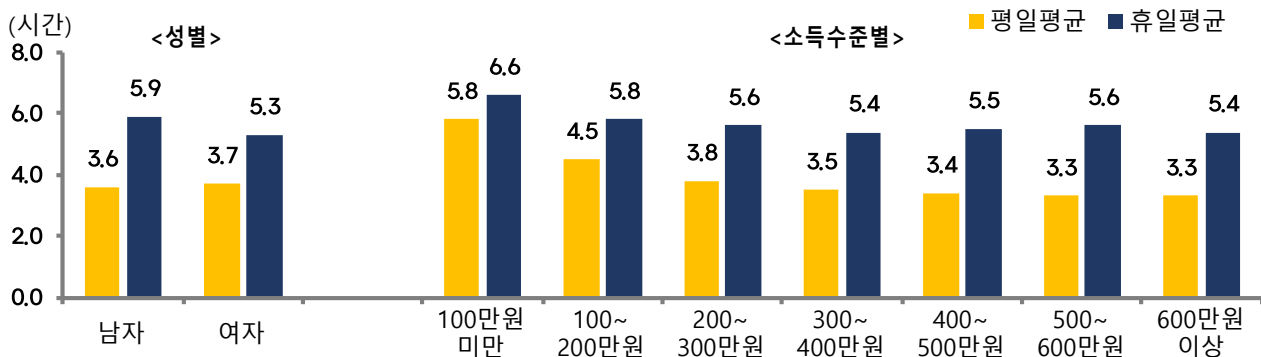
19. 여가생활

■ 여가 활용

2020년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6시간임

- (여가시간) '20년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6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2시간씩 증가함
 - 평일 여가시간은 여자가 3.7시간으로 남자보다 0.1시간 더 많고, 휴일은 남자가 5.9시간으로 여자보다 0.6시간 더 많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적은 경향을 보임
- (여가활동 동반자) 15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약 3명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 및 소득수준별 여가시간(202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동반자¹⁾²⁾ >

(단위: 시간, %)

	여가시간		여가활동 동반자 ³⁾					
	평일 평균	휴일 평균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직장동료	기타
2014	3.6	5.8	56.8	32.1	8.3	1.6	1.1	0.1
2016	3.1	5.0	59.8	29.7	8.8	1.0	0.8	0.0
2018	3.3	5.3	59.5	29.7	8.7	1.0	1.0	0.0
2019	3.5	5.4	54.3	35.5	8.4	1.2	0.6	0.1
2020	3.7	5.6	60.0	28.8	9.2	1.5	0.4	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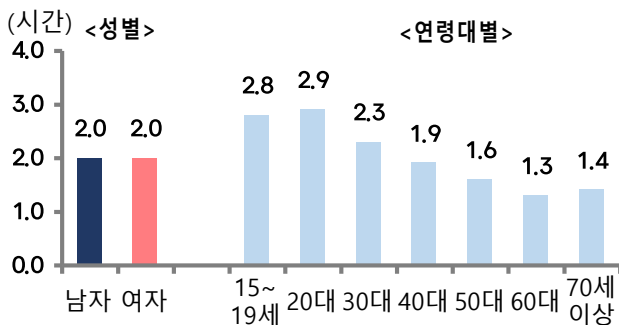
3)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1순위)의 주 동반자임

■ 스마트기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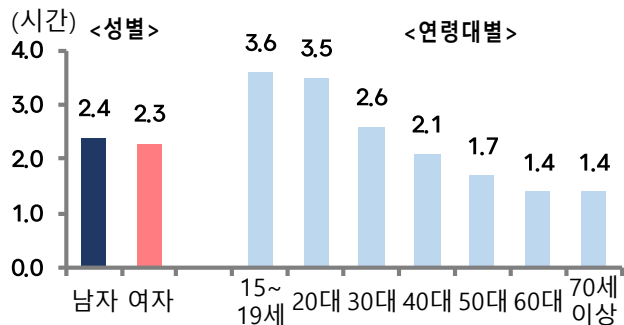
2020년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남

-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평일 2.0시간, 휴일 2.3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씩 증가함
 - 평일은 남녀 모두 2.0시간으로 같고, 휴일은 남자가 0.1시간 더 많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20대 이하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60대 이상의 사용 시간의 2배 이상임
- (스마트폰 과의존율) '20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23.3%)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전년보다 3.3%p 증가함

< 성 및 연령대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2020, 평일) >



< 성 및 연령대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2020, 휴일)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및 스마트폰 과의존율 >

(단위: 시간, %)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¹⁾²⁾³⁾		스마트폰 과의존율 ⁴⁾		
	평일 평균	휴일 평균	과의존위험군 ⁵⁾	고위험군 ⁶⁾	잠재적위험군 ⁷⁾
2016	1.3	1.6	17.8	2.5	15.3
2017	-	-	18.6	2.7	15.9
2018	1.3	1.8	19.1	2.7	16.4
2019	1.3	1.6	20.0	2.9	17.1
2020	2.0	2.3	23.3	4.0	19.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3)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4) 3~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5) 과의존위험군 비율 = 고위험군 비율 + 잠재적위험군 비율

6)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 문제, 건강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

7)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

20. 여가결과

■ 여가여건 충족도

2020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설 충족도는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함

- '20년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시간 충족도는 평일 49.1%, 휴일 64.7%로 전년 대비 각각 4.0%p, 0.4%p 하락함
 - 여가비용과 여가시설 충족도는 각각 42.1%, 40.4%로, 이 역시 전년 대비 7.6%p, 3.2%p 감소한 수치임
 - 평일 여가시간과 여가시설 충족도는 여자가, 휴일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충족도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일 여가시간 충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비용과 여가시설 충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여가여건 충족도¹⁾²⁾ >

(단위: %)

	여가시간 ³⁾		여가비용 ⁴⁾	여가시설 ⁵⁾
	평일	휴일		
2014	62.2	70.2	56.1	-
2016	53.3	66.9	47.4	57.2
2018	46.3	58.5	36.2	59.0
2019	53.1	65.1	49.7	43.6
2020	49.1	64.7	42.1	40.4
남자	48.6	68.9	43.6	39.5
여자	49.5	60.8	40.7	41.4
100만원 미만	75.4	79.2	33.0	29.4
100~200만원	66.4	74.4	36.2	32.7
200~300만원	48.4	62.5	36.2	36.1
300~400만원	45.1	59.1	40.9	41.0
400~500만원	46.5	61.9	43.0	41.6
500~600만원	44.5	65.7	45.7	43.4
600만원 이상	44.2	65.1	48.0	4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3) 지난 1년 동안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에 대해 '약간 충분하다'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4)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여가비용(한 달 평균)에 대해 '다소 충분하다'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5) 공공 문화 및 여가 시설 충분 여부에 대해 '다소 그렇다'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VIII. 주거

21. 주택보급

■ 주택 수

2019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411.6호로 전년보다 8.4호 증가함

- '19년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411.6호로 '10년보다 54.8호, 전년보다 8.4호 증가함

<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

(단위: 호/1,000명)

	1995	2000	2005 ²⁾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1,000명당 주택 수 ¹⁾	214.5	248.7	330.4	356.8	383.0	387.7	395.0	403.2	411.6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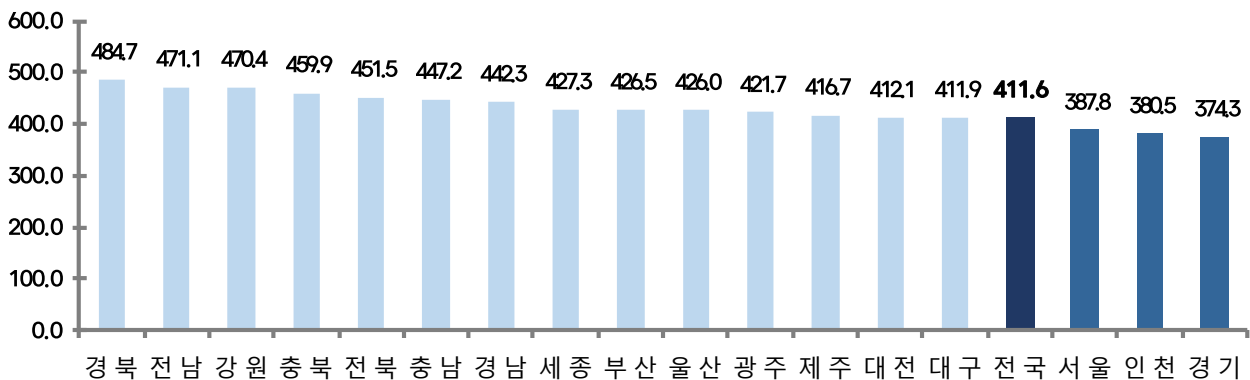
주: 1)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 (주택 수/총인구) × 1,000. 총인구는 인구총조사 인구임

2) 2005년부터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 반영

- 수도권 3개 지역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데, 경기도가 374.3호로 가장 적으며, 그다음은 인천(380.5호), 서울(387.8호) 순임
- 인구 천 명당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484.7호), 전남(471.1호), 강원(470.4호) 순임

<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2019) >

(호/1,000명)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 주택보급률

2019년 주택보급률은 104.8%로 전년보다 0.6%p 상승함

- '19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4.8%로 10년 전보다 3.6%p, 전년보다 0.6%p 상승했으며,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주택보급률 >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택보급률 ¹⁾²⁾	101.2	100.5	100.9	101.1	101.3	101.9	102.3	102.6	103.3	104.2	104.8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주: 1)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일반가구 수) × 100.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 반영

2)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10년 자료부터 재산정함

-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며, 인천(100.2%), 대전(101.4%), 경기(101.5%), 대구(103.3%), 부산(104.5%)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117.3%)이며, 그다음은 충북(114.5%), 전남(113.6%) 순임
 - 인천(-1.0%p), 대구(-0.7%p), 대전(-0.2%p)은 전년 대비 주택보급률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함

< 지역별 주택보급률 >

(단위: %, %p,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	'19년 순위
전국	102.3	102.6	103.3	104.2	104.8	0.6	-
서울	96.0	96.3	96.3	95.9	96.0	0.1	17
부산	102.6	102.3	103.1	103.6	104.5	0.9	12
대구	101.6	103.3	104.3	104.0	103.3	-0.7	13
인천	101.0	100.9	100.4	101.2	100.2	-1.0	16
광주	103.5	104.5	105.3	106.6	107.0	0.4	11
대전	102.2	101.7	101.2	101.6	101.4	-0.2	15
울산	106.9	107.3	109.3	110.3	111.5	1.2	7
세종	123.1	108.4	111.5	110.0	111.4	1.4	8
경기	98.7	99.1	99.5	101.0	101.5	0.5	14
강원	106.7	106.4	107.7	109.6	112.8	3.2	5
충북	111.2	110.7	111.4	113.8	114.5	0.7	2
충남	108.3	109.2	110.5	112.7	113.3	0.6	4
전북	107.5	107.3	107.7	109.4	110.5	1.1	9
전남	110.4	110.7	111.3	112.5	113.6	1.1	3
경북	112.5	113.0	114.7	116.1	117.3	1.2	1
경남	106.4	106.7	108.6	110.1	112.1	2.0	6
제주	100.7	103.1	105.2	107.0	109.2	2.2	10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22. 소득 대비 주거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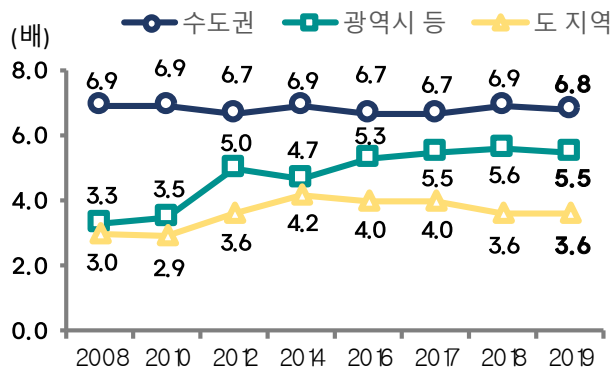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2019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5.4배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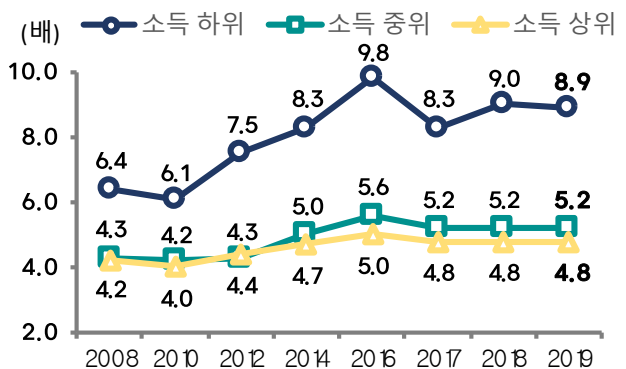
□ '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전년 5.5배보다 소폭 감소한 5.4배로, '17년 이후 감소 추세임

- '08년과 비교하여 수도권은 1.4%(6.9→6.8배) 감소, 광역시는 66.7%(3.3→5.5배), 도 지역은 20.0%(3.0→3.6배) 증가함
- '08년 대비 소득수준 상위 계층의 증가(14.3%)보다, 소득 중위(20.9%) 및 소득 하위 계층(39.1%)의 증가 폭이 컸음

< 지역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 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¹⁾²⁾³⁾ >

(단위: 배)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체		4.2	4.3	4.3	5.1	4.7	5.6	5.6	5.5	5.4
지역별 ⁴⁾	수도권	5.7	6.9	6.9	6.7	6.9	6.7	6.7	6.9	6.8
	광역시 등	4.1	3.3	3.5	5.0	4.7	5.3	5.5	5.6	5.5
	도 지역	3.3	3.0	2.9	3.6	4.2	4.0	4.0	3.6	3.6
소득수준별 ⁵⁾⁶⁾	소득 하위	6.3	6.4	6.1	7.5	8.3	9.8	8.3	9.0	8.9
	소득 중위	3.4	4.3	4.2	4.3	5.0	5.6	5.2	5.2	5.2
	소득 상위	3.6	4.2	4.0	4.4	4.7	5.0	4.8	4.8	4.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현재주택가격 ÷ 연 가구소득. 주택가격과 연 가구소득은 중위값임

2) PIR: Price to Income Ratio

3)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4)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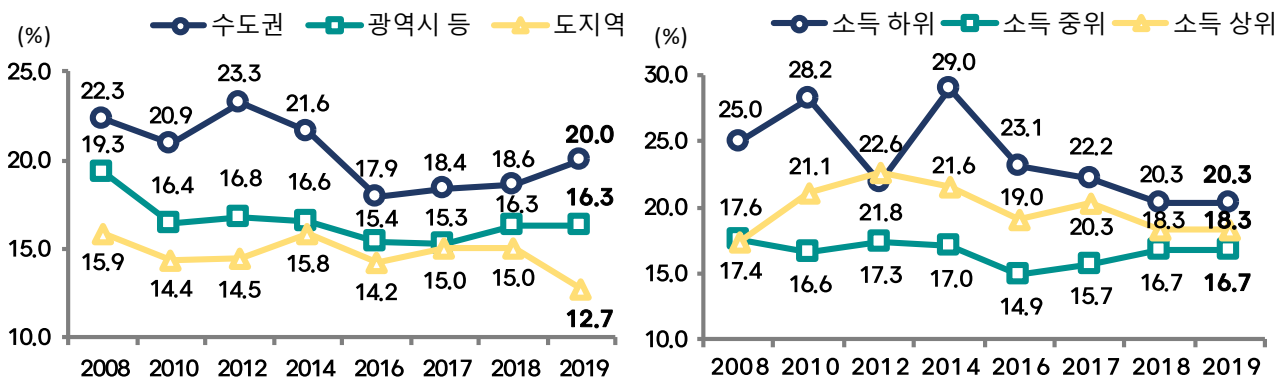
6) 소득 하위: 1~4분위, 소득 중위: 5~8분위, 소득 상위: 9~10분위

■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19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전년보다 0.6%p 증가함

- '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전년보다 0.6%p 증가하였으며, '14년(20.3%) 이후 계속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세를 보임
 - 지역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수도권(20.0%) > 광역시 등(16.3%) > 도 지역(12.7%) 순으로 높음
 -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소득 하위계층, 상위 계층, 중위계층 순으로 높으며, 계층 간 비율 차이는 '14년 ~ '18년까지 점차 감소하다 '19년 보합세를 이룸

< 지역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 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¹⁾²⁾³⁾⁴⁾ >

(단위: %)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체		18.7	17.5	19.2	19.8	20.3	18.1	17.0	15.5	16.1
지역별 ⁵⁾	수도권	19.9	22.3	20.9	23.3	21.6	17.9	18.4	18.6	20.0
	광역시 등	18.5	19.3	16.4	16.8	16.6	15.4	15.3	16.3	16.3
	도 지역	17.8	15.9	14.4	14.5	15.8	14.2	15.0	15.0	12.7
소득수준별 ⁶⁾⁷⁾	소득 하위	27.6	25.0	28.2	21.8	29.0	23.1	22.2	20.3	20.3
	소득 중위	18.9	17.6	16.6	17.3	17.0	14.9	15.7	16.7	16.7
	소득 상위	16.1	17.4	21.1	22.6	21.6	19.0	20.3	18.3	18.3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주: 1)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월임대료 ÷ 월가구소득) × 100. 월 임대료와 월 가구소득은 중위값임
 2) 보증금은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월세전 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
 3) RIR: Rent to Income Ratio
 4)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5)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7) 소득 하위: 1~4분위, 소득 중위: 5~8분위, 소득 상위: 9~10분위

23. 주거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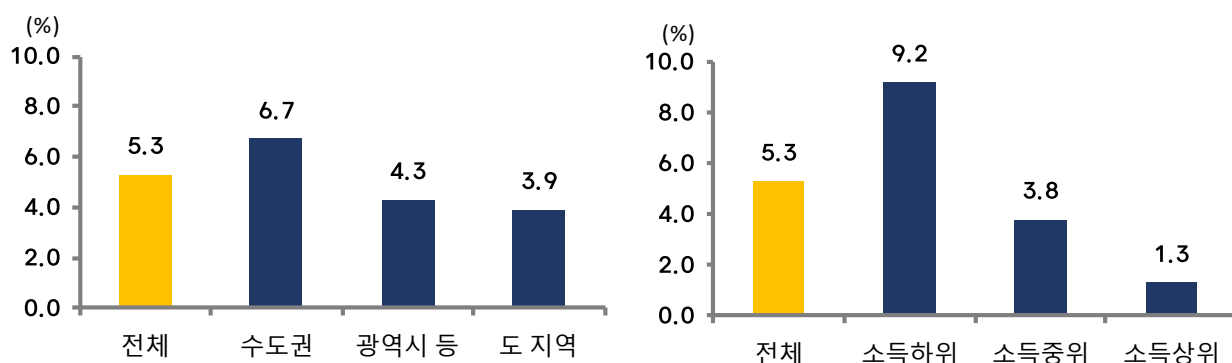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2019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5.3%로 전년보다 0.4%p 감소함

□ '19년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5.3%로, '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기준 미달 유형별로는 면적기준 미달 3.8%, 시설기준 미달 3.0%, 침실기준 미달 0.3%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6.7%로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하위계층이 9.2%로 가장 높음

< 지역별¹⁾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2019) > < 소득수준별²⁾³⁾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2019)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3) 소득 하위: 1~4분위, 소득 중위: 5~8분위, 소득 상위: 9~10분위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¹⁾²⁾ 비율 >

(단위: %)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6.6	12.7	10.6	7.2	5.4	5.4	5.9	5.7	5.3
면적기준 미달가구 ³⁾	8.0	5.3	5.7	3.2	2.8	3.1	4.1	4.0	3.8
시설기준 미달가구 ⁴⁾	9.9	7.9	5.6	4.3	2.9	2.6	3.3	3.1	3.0
침실기준 미달가구 ⁵⁾	1.9	1.0	0.9	-	0.5	0.5	0.3	0.4	0.3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에 따른 기준

2)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3)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5)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미만인 가구

■ 주거면적

2019년 1인당 주거면적은 29.2㎡로 전년보다 0.7㎡ 늘어남

□ '19년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29.2㎡로 전년보다 0.7㎡, '05년보다 6.1㎡ 늘어남

- 주택유형별 1인당 주거면적은 단독주택(35.3㎡)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32.7㎡) > 아파트(27.8㎡) > 연립주택(27.7㎡) > 오피스텔(27.2㎡) > 다세대주택(21.3㎡) 순임

< 주택유형별 1인당 주거면적¹⁾²⁾ >

(단위: ㎡)

	전체 ³⁾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2005 ⁴⁾	23.1	23.8	22.8	22.5	20.2	25.1	29.1
2010	25.0	26.2	24.6	25.1	21.6	26.5	30.4
2015	26.9	30.2	26.3	25.5	19.9	28.7	26.0
2016	27.3	31.4	26.4	25.9	20.1	29.5	26.4
2017	27.9	32.6	26.8	26.4	20.4	30.6	26.3
2018	28.5	33.9	27.3	27.0	20.8	31.5	26.7
2019	29.2	35.3	27.8	27.7	21.3	32.7	27.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2015년부터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과 함께 공표 주기 1년으로 변경

2) 1인당 주거면적 = 전체 가구 총주거면적 ÷ 전체 가구 총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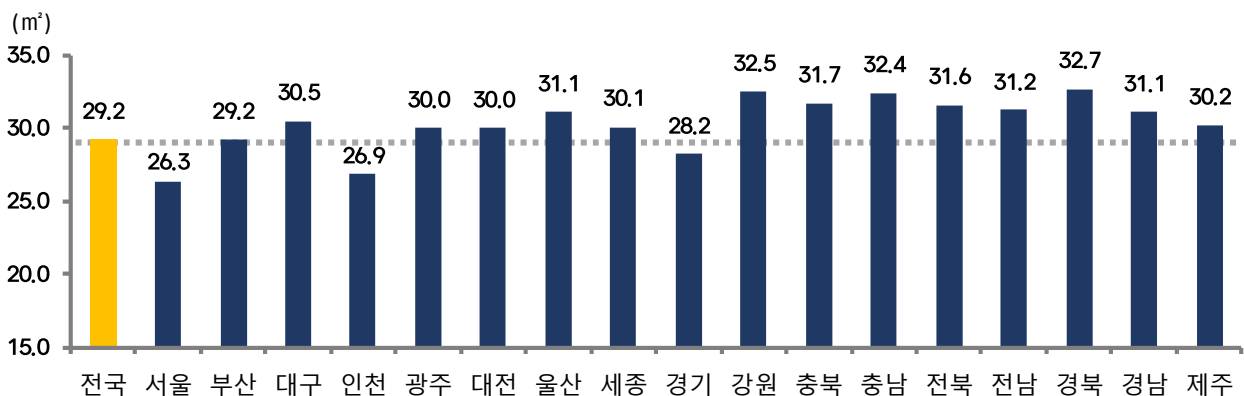
3) 오피스텔 주거면적을 포함함

4) 2005년 주거면적은 평수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수치임

□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주거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부산은 전국 평균 수준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서울이 26.3㎡로 가장 좁고, 경북이 32.7㎡로 가장 넓음

<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2019)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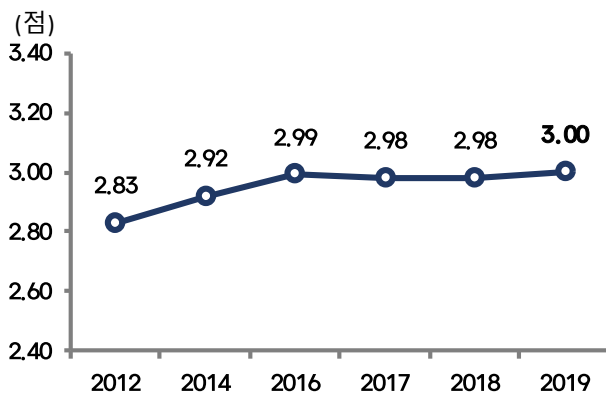
■ 주택 만족도

2019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3.00점으로 전년 대비 0.02점 상승함

□ '19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3.00점으로 전년(2.98점) 대비 0.02점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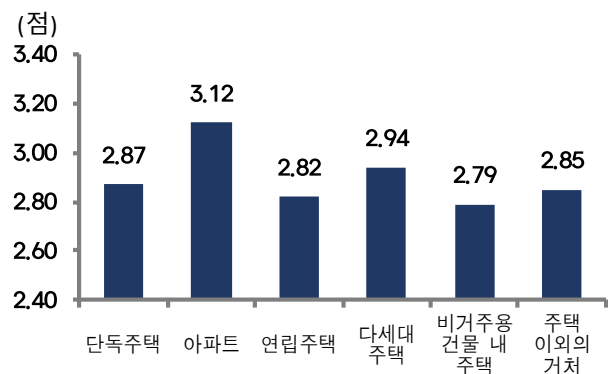
- 주택유형별 주택 만족도는 아파트(3.12점) > 다세대주택(2.94점) > 단독주택(2.87점) > 주택 이외의 거처(2.85점) > 연립주택(2.82점)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2.79점) 순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만족도가 높으며, 모든 소득수준에서 전년 보다 소폭 상승함

< 주택 만족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주택유형별 주택만족도(2019) >



< 주택 만족도¹⁾²⁾³⁾ >

(단위: 점)

	전체	주택유형별						소득수준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하위 (1~4분위)	중위 (5~8분위)	상위 (9~10분위)
2012	2.83	2.75	2.92	2.80	2.72	2.73	2.77	2.75	2.85	2.95
2014	2.92	2.79	3.04	2.78	2.78	2.87	2.97	2.80	2.95	3.08
2016	2.99	2.83	3.15	2.81	2.82	2.76	3.07	2.86	3.04	3.18
2017	2.98	2.86	3.12	2.80	2.84	2.84	2.84	2.86	3.02	3.16
2018	2.98	2.84	3.11	2.86	2.88	2.73	2.79	2.85	3.02	3.14
2019	3.00	2.87	3.12	2.82	2.94	2.79	2.85	2.88	3.03	3.16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주택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2) 2012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3) 2012년은 5점 척도로 조사하여 4점 척도로 환산, 2014년부터 4점 척도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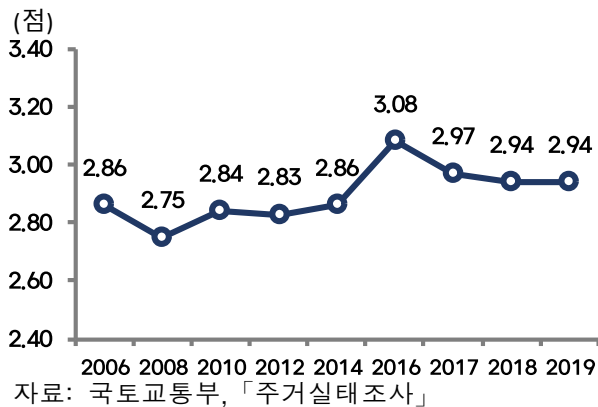
■ 주거환경 만족도

2019년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는 2.94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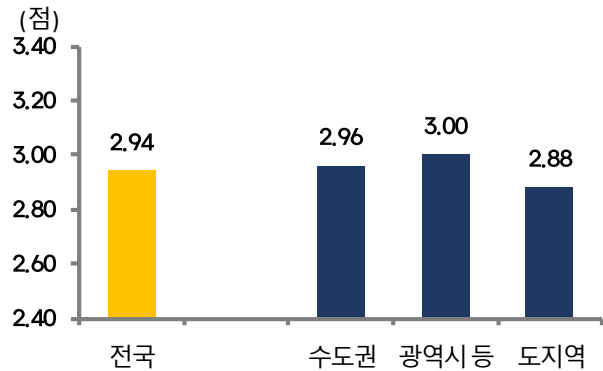
□ '19년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2.94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임

- 주거환경 만족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특별자치시 지역이 3.00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수도권(2.96점), 도지역(2.88점) 순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 만족도 >



<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2019) >



< 주거환경 만족도¹⁾²⁾ >

(단위: 점)

	전체	지역별 ³⁾			소득수준별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하위 (1~4분위)	중위 (5~8분위)	상위 (9~10분위)
2006	2.86	2.84	2.87	2.88	2.83	2.86	2.93
2008	2.75	2.75	2.79	2.74	2.70	2.76	2.86
2010	2.84	2.82	2.84	2.88	2.78	2.84	2.98
2012	2.83	2.83	2.90	2.78	2.74	2.84	2.99
2014	2.86	2.85	2.89	2.85	2.78	2.87	3.00
2016	3.08	3.05	3.06	3.14	3.04	3.08	3.17
2017	2.97	2.98	2.99	2.94	2.88	2.99	3.09
2018	2.94	2.94	2.98	2.92	2.86	2.96	3.06
2019	2.94	2.96	3.00	2.88	2.86	2.96	3.0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한다'를 4점으로 한 평균점수

2)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3)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는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X. 생활환경

24. 환경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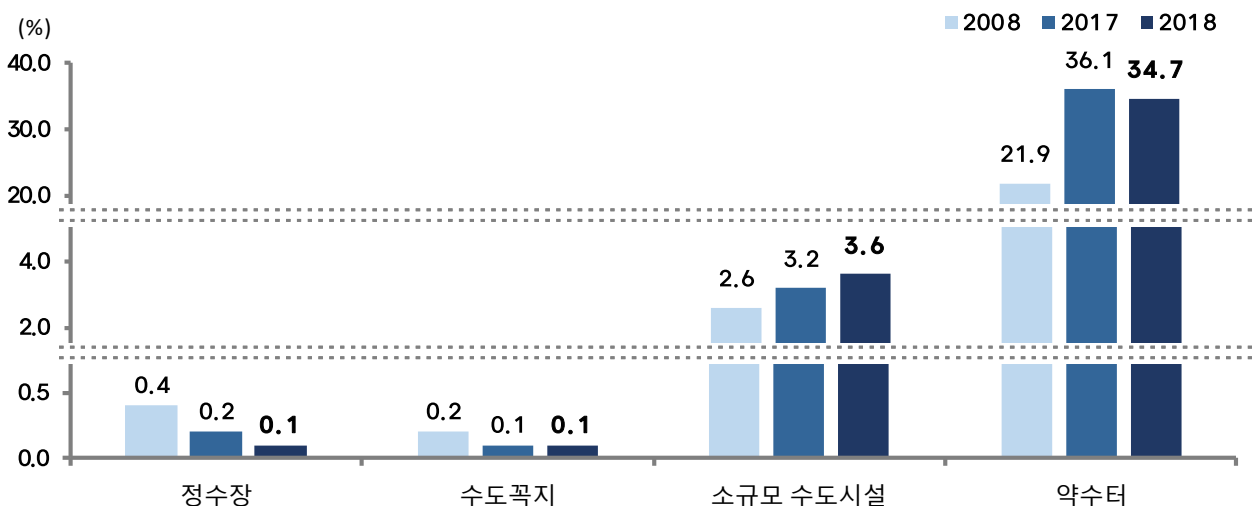
■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2018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각각 0.1%, 0.1%, 3.6% 34.7%로 측정됨

□ '18년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모두 0.1%로 10년 전보다 각각 0.3%p, 0.1%p 감소함

○ 반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3.6%, 약수터는 34.7%로 10년 전보다 각각 1.0%p, 12.8%p 증가함

<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율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율¹⁾²⁾³⁾ >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수장	0.4	0.0	0.1	0.1	-	-	-	-	-	0.2	0.1
수도꼭지 ⁴⁾	0.2	0.0	0.0	0.0	0.0	0.0	0.0	-	0.6	0.1	0.1
소규모 수도시설	2.6	5.4	1.8	3.7	-	-	-	-	-	3.2	3.6
약수터	21.9	22.8	22.0	25.4	26.9	28.3	30.2	28.4	31.8	36.1	34.7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주: 1) 기준초과율 = (기준초과지점수 ÷ 수질측정지점수) × 100

2)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임

3) 먹는 물의 수질은 수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검사 이외에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 검사 결과임

4) 2012년도에는 서울시 등 7개 지역 수도꼭지 검사만 실시, 2013년도에는 '수돗물 사랑마을' 수도꼭지 검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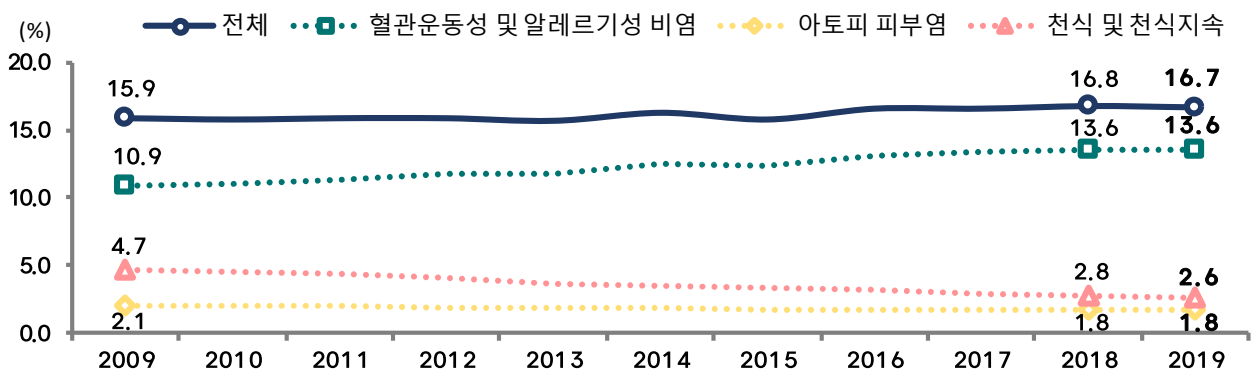
■ 환경성 질환 유병률

2019년 우리나라의 환경성 질환자 수는 861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함

□ '19년 우리나라의 환경성 질환자 수는 861만 1천 명, 유병률은 16.7%로 전년보다 각각 3만 7천 명, 0.1%p 감소함

○ '09년 대비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유병률은 2.7%p 증가한 반면, 아토피 피부염, 천식 및 천식지속의 유병률은 각각 0.3%p,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성 질환 유병률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 환경성 질환 유병률 >

(단위: 천 명, %)

	환자 수				유병률 ¹⁾			
	전체 ²⁾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및 천식지속 (J46)	전체 ²⁾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및 천식지속 (J46)
2009	7,821	5,379	1,048	2,310	15.9	10.9	2.1	4.7
2010	7,825	5,482	1,039	2,230	15.8	11.1	2.1	4.5
2011	7,918	5,652	1,013	2,182	15.9	11.3	2.0	4.4
2012	8,006	5,862	971	2,080	15.9	11.7	1.9	4.1
2013	7,936	5,968	983	1,833	15.7	11.8	1.9	3.6
2014	8,265	6,368	951	1,789	16.3	12.5	1.9	3.5
2015	8,081	6,280	925	1,668	15.8	12.3	1.8	3.3
2016	8,483	6,723	930	1,644	16.6	13.1	1.8	3.2
2017	8,538	6,892	934	1,466	16.6	13.4	1.8	2.9
2018	8,648	7,034	918	1,438	16.8	13.6	1.8	2.8
2019	8,611	7,047	949	1,341	16.7	13.6	1.8	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주: 1) 유병률 = (환자 수 ÷ 총인구) × 1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전체는 중복 질환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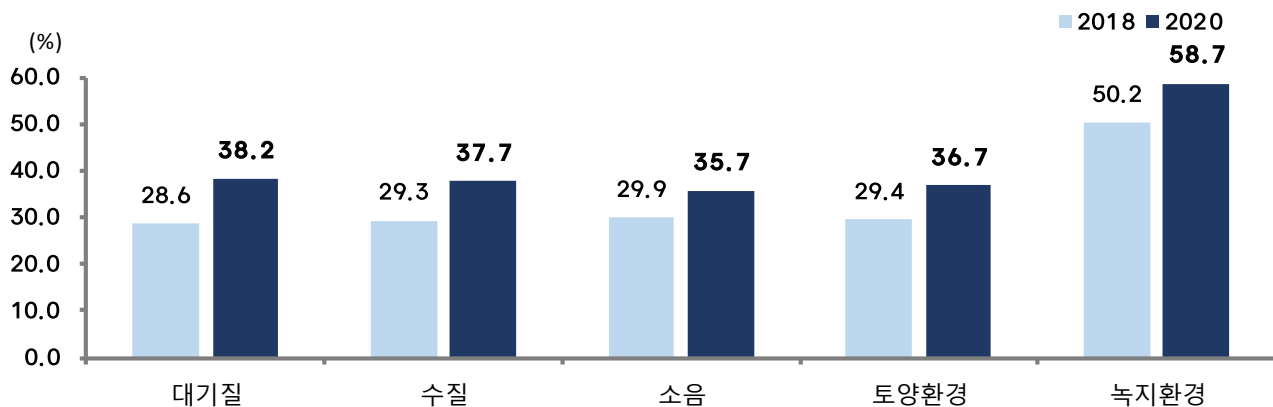
■ 생활환경 만족도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2년 전 대비 상승함

□ '20년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2년 전 대비 상승함

- 분야별 생활환경 만족도는 녹지환경(58.7%), 대기질(38.2%), 수질(37.7%), 토양환경(36.7%), 소음(3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년 전 대비 대기질 만족도의 상승 폭(9.6%p)이 가장 컸으며, 소음 만족도의 상승 폭(5.8%p)이 가장 작았음
-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동지역 대비 약 13~20%p정도 높았으며, 대기질과 소음 만족도의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분야별 생활환경 만족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분야별 생활환경 만족도¹⁾ >

(단위: %, %p)

	대기질	수질	소음	토양환경	녹지환경
2018	28.6	29.3	29.9	29.4	50.2
2020	38.2	37.7	35.7	36.7	58.7
증감	9.6	8.4	5.8	7.3	8.5
동지역	34.5	35.2	32.4	34.3	56.3
읍면지역	55.2	48.9	51.0	48.0	69.6
차이	20.7	13.7	18.6	13.7	13.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소음, 토양환경, 녹지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5. 환경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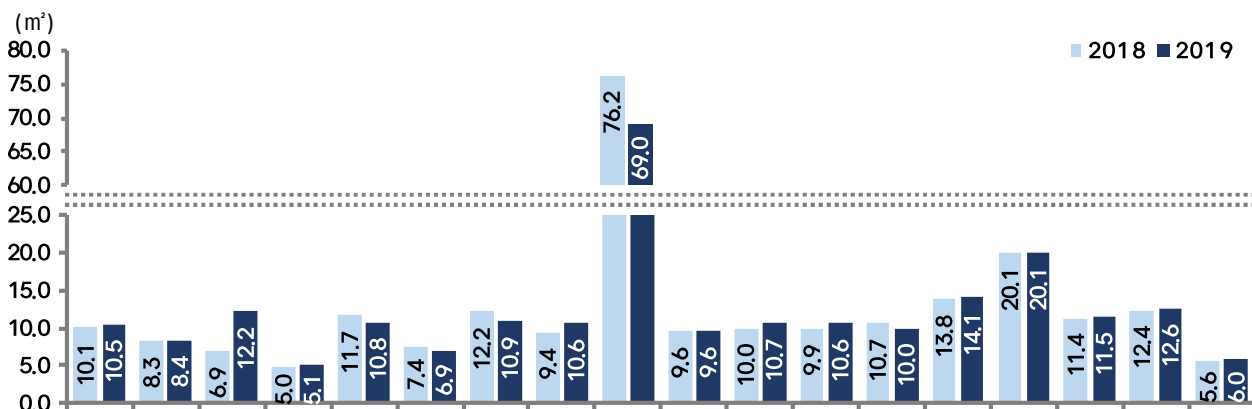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019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0.5㎡로 전년보다 0.4㎡ 늘어남

□ '19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0.5㎡로 전년보다 0.4㎡ 늘어났으며, '09년 대비 2.4㎡ 늘어남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4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부산(12.2㎡)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세종(69.0㎡)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 도시공원¹⁾ 면적 >

(단위: km², m²)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²⁾	조성면적	1인당 조성면적 ³⁾
2009	1,112	743	368	8.1
2010	1,089	705	384	8.4
2011	1,008	623	386	8.3
2012	1,020	608	412	8.9
2013	1,005	601	404	8.6
2014	989	583	406	8.6
2015	934	516	418	8.8
2016	942	505	437	9.2
2017	924	469	455	9.6
2018	927	447	480	10.1
2019	904	406	498	10.5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주: 1)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

2) 사업에 착수(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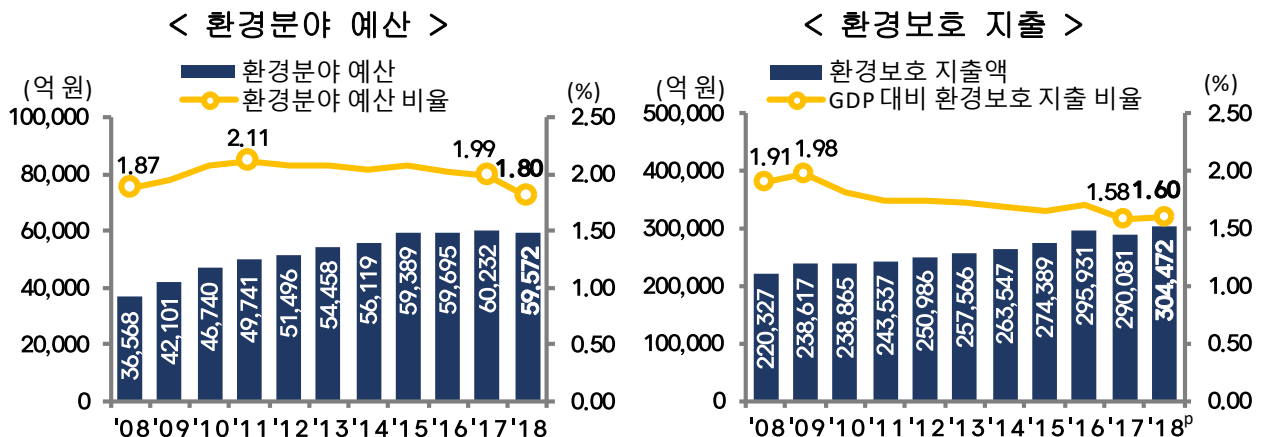
3) 1인당 조성면적 =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 환경예산과 환경보호 지출

2018년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예산은 5조 9,572억 원,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은 1.60%임

□ '18년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예산은 5조 9,572억 원 전년보다 660억 원 감소했으며, 환경보호 지출액은 30조 4,47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4,391억 원 증가함

○ 정부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의 비율은 1.80%로 전년보다 0.19%p 감소했으며,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은 1.60%로 전년보다 0.02%p 증가함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 환경분야 예산과 환경보호 지출 >

(단위: 억 원, %)

	환경분야 예산			환경보호 지출	
	정부예산	환경분야 예산 ¹⁾	환경분야 예산 비율 ²⁾	환경보호 지출액 ³⁾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 ⁴⁾
2008	1,951,002	36,568	1.87	220,327	1.91
2009	2,174,723	42,101	1.94	238,617	1.98
2010	2,259,682	46,740	2.07	238,865	1.81
2011	2,355,574	49,741	2.11	243,537	1.75
2012	2,486,125	51,496	2.07	250,986	1.74
2013	2,636,038	54,458	2.07	257,566	1.72
2014	2,746,673	56,119	2.04	263,547	1.69
2015	2,862,471	59,389	2.07	274,389	1.65
2016	2,957,206	59,695	2.02	295,931	1.70
2017	3,031,432	60,232	1.99	290,081	1.58
2018	3,308,414	59,572	1.80	304,472 ^p	1.60 ^p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주: 1) 환경분야예산은 환경부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금액임

2) 환경분야 예산 비율 = (환경분야 예산 ÷ 정부예산) × 100

3) 환경보호지출액 = 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수입

4)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환경보호지출액 ÷ 명목 GDP) × 100. GDP는 2015년 기준

X. 범죄·안전

26.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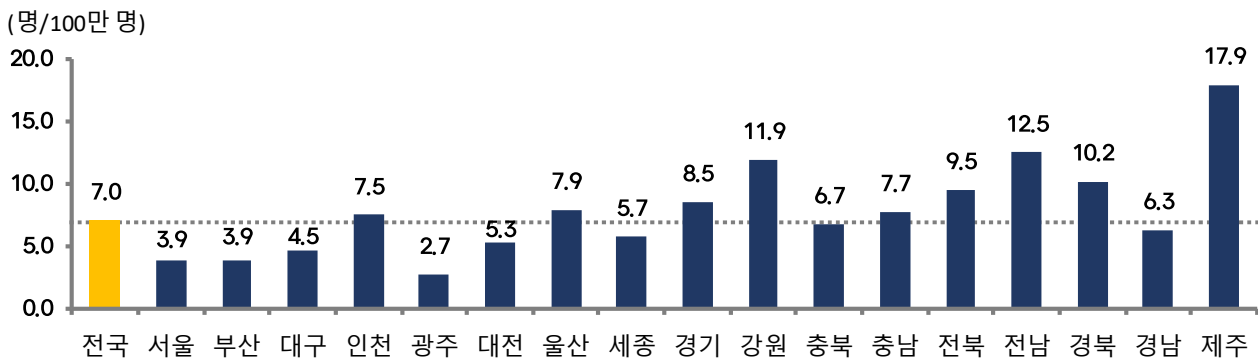
■ 화재 사망자 수

2020년 화재 사망자 수는 365명으로 전년보다 80명 증가함

□ '20년 화재 사망자 수는 365명으로 전년보다 80명 증가함

- '20년 인구 10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는 제주(17.9명), 전남(12.5명), 강원(11.9명) 순으로 높고, 광주(2.7명), 서울·부산(3.9명) 순으로 낮음

< 지역별 인구 10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2020)¹⁾ >



자료: 소방청, 「화재 발생총괄표」

주: 1) 인구 10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 = (지역별 사망자 수 ÷ 지역별 추계인구) × 1,000,000

- 발화요인별로 보면 부주의(77명), 방화·방화 의심(66명), 전기적 요인(39명), 교통사고(1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음

* 발화요인 중 미상은 제외한 순서임

< 발화요인별 화재 사망자 수 >

(단위: 명)

	전체	부주의 ¹⁾	전기적 요인 ²⁾	기계적 요인 ³⁾	방화 의심	방화	가스 누출	교통 사고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 ⁴⁾	제품 결함	기타	미상
2015	253	63	36	5	25	30	2	4	0	1	0	3	84
2016	306	65	47	3	29	34	4	15	0	5	0	2	102
2017	345	109	32	11	32	27	5	7	0	4	0	4	114
2018	369	70	87	7	31	46	5	9	0	7	0	5	102
2019	285	65	41	7	33	37	7	7	0	10	0	5	73
2020	365	77	39	4	42	24	11	14	0	10	1	1	142

자료: 소방청, 「화재 발생총괄표」

주: 1) 가연물 근접방치, 논·임야 태우기, 담배꽂초, 불씨·불꽃·화원 방치, 쓰레기 소각, 용접 등

2) 과부하/과전류, 누전·지락, 단락, 반단선 등

3) 과열·과부하, 노후, 수동제어 실패, 역화, 오일·연료 누설, 자동제어 실패, 정비불량 등

4) 금속성물질의 물과 접촉, 자연발화, 혼촉발화, 화학적 발화(유증기 확산), 화학적 폭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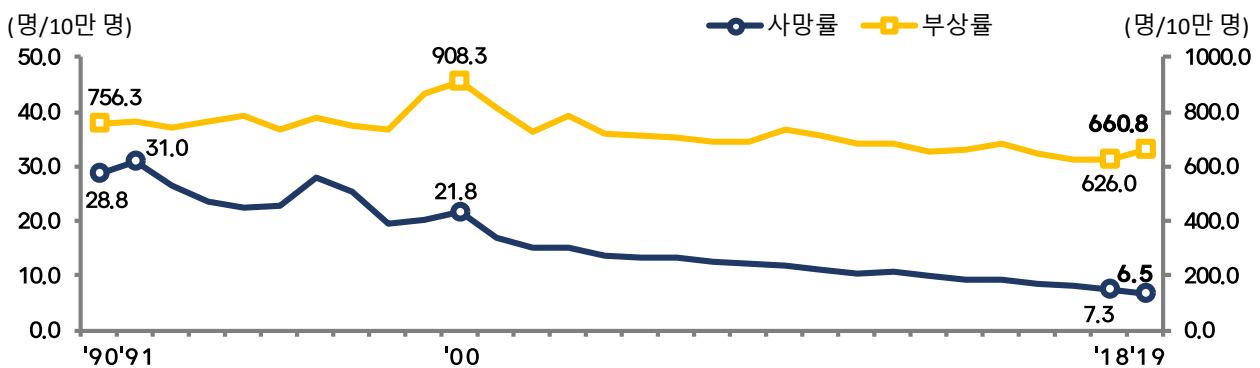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2019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전년보다 0.8명 감소함

□ '19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전년보다 0.8명 감소하였으며, '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도로교통사고 부상률은 '18년 인구 10만 명당 626.0명으로 '87년 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19년에는 660.8명으로 전년 대비 34.8명 증가한 모습을 보임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및 부상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19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법규위반별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234명), 신호위반(315명), 중앙선침범(246명), 과속(228명)의 순으로 나타남

< 도로교통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명/10만 명)

	사고건수	사망자수	과속 ¹⁾	중앙선침범 ¹⁾	신호위반 ¹⁾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¹⁾	사망률 ²⁾	부상률 ³⁾
1990	255,303	12,325	—	—	—	—	28.8	756.3
1995	248,865	10,323	457	1,700	238	4,948	22.9	735.7
2000	290,481	10,236	275	1,472	418	6,970	21.8	908.3
2005	214,171	6,376	165	769	356	4,488	13.2	710.3
2010	226,878	5,505	138	563	409	3,829	11.1	711.3
2015	232,035	4,621	166	412	382	3,165	9.1	686.9
2016	220,917	4,292	194	338	352	2,953	8.4	647.7
2017	216,335	4,185	206	338	317	2,891	8.1	628.5
2018	217,148	3,781	237	288	294	2,594	7.3	626.0
2019	229,600	3,349	228	246	315	2,234	6.5	660.8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법규위반 항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위반이 중복되는 경우 당해사고의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위반으로 작성됨

2)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3) 도로교통사고 부상률 =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7. 범죄와 사법정의

■ 범죄율

201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419건으로 전년보다 51건 증가함

□ '1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5%(51건) 증가하였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22.2%(978건) 감소함

○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61.9건), 폭행·상해(391.1건), 특별법범죄(1,405건)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절도(362.9건)는 전년 대비 증가함

< 범죄유형별 범죄율¹⁾ >

(단위: 건/10만 명)

	전체	형법범죄	주요 형법범죄 ²⁾					특별법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³⁾	폭행·상해	절도	
2009	4,397	2,014	2.8	12.9	32.8	402.0	520.6	2,383
2014	3,811	2,003	1.8	3.2	58.8	418.7	525.7	1,808
2015	3,961	2,054	1.9	2.9	60.9	439.7	483.0	1,907
2016	3,921	1,964	1.9	2.3	57.3	444.8	397.5	1,958
2017	3,553	1,867	1.7	1.9	63.9	418.4	358.9	1,686
2018	3,368	1,915	1.6	1.6	62.2	403.4	343.9	1,453
2019	3,419	2,014	1.6	1.6	61.9	391.1	362.9	1,405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1) 범죄율 = (범죄발생 건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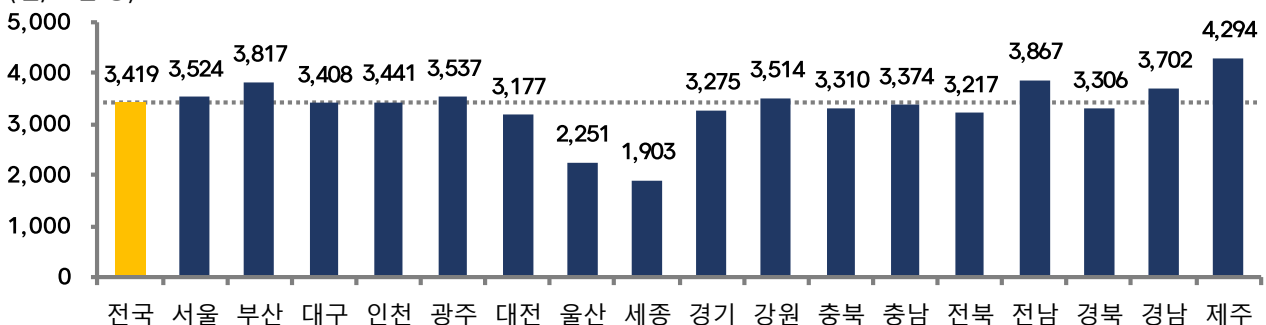
2) 2002년부터 형법 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 범죄에 포함

3) 2014부터 강간을 성폭력으로 분류함

□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의 범죄율이 인구 10만 명당 4,29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3,867건), 부산(3,817건)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범죄율(2019)¹⁾ >

(건/10만 명)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1) 시도별 범죄율 = (지역별 범죄건수 ÷ 시도별 인구) × 100,000. 시도별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

2020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는 경찰, 법원, 검찰 순으로 높고, 공정성 인식은 법원, 경찰, 검찰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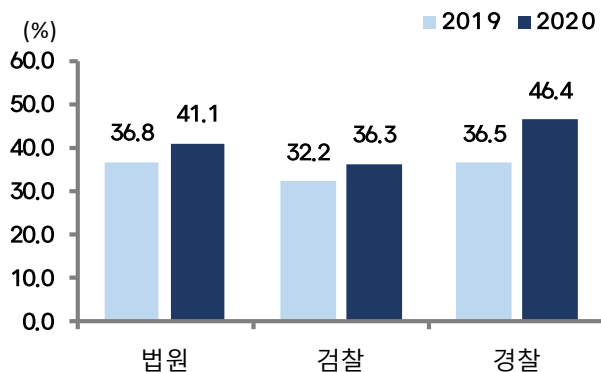
□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20년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46.4%), 법원(41.1%), 검찰(36.3%) 순으로 높았음

○ 경찰의 신뢰도는 전년보다 9.9%p 상승하여 법원의 신뢰도를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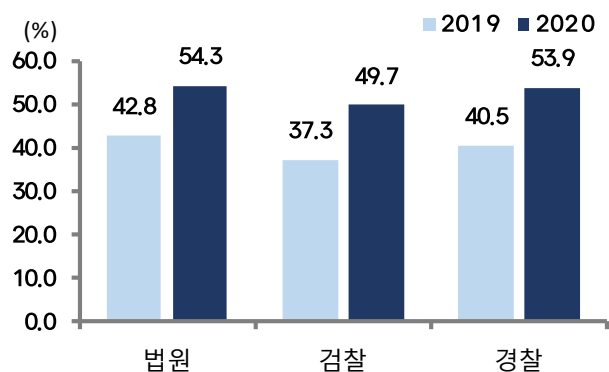
□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 '20년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원(54.3%), 경찰(53.9%), 검찰(49.7%) 순으로 높았음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원, 검찰, 경찰 모두 신뢰도 대비 7%p 이상 높게 나타남

<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



<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¹⁾ >

(단위: %)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²⁾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 ³⁾		
	법원	검찰	경찰	법원	검찰	경찰
2013	41.1	38.6	45.4	38.1	36.7	39.7
2014	37.6	36.1	40.1	37.6	36.7	36.3
2015	35.0	34.3	40.1	35.1	35.3	37.4
2016	29.8	27.5	37.6	37.9	34.5	40.8
2017	34.4	31.3	40.7	43.2	40.0	44.4
2018	33.0	32.2	41.2	36.6	35.3	41.8
2019	36.8	32.2	36.5	42.8	37.3	40.5
2020	41.1	36.3	46.4	54.3	49.7	53.9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3)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지, 검찰과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8. 안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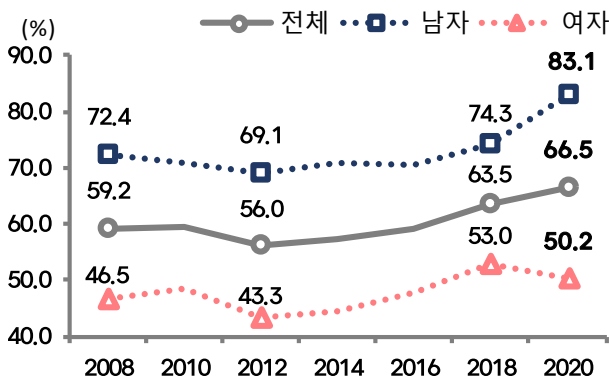
야간보행 안전도

2020년 국민 10명 중 7명은 야간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함

□ '20년 13세 이상 국민의 66.5%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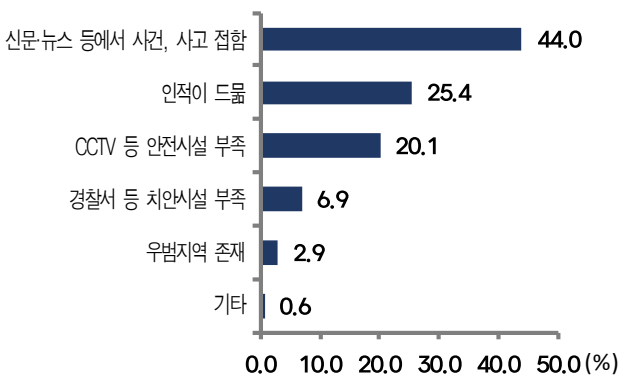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 인식 정도는 남자(83.1%)가 여자(50.2%)보다 30%p 이상 높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야간보행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함
- 야간보행이 불안한 이유로는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 접함(44.0%), 인적이 드물(25.4%), CCTV 등 안전시설 부족(20.1%) 순임

< 야간보행 안전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야간보행이 불안한 이유(2020) >



< 야간보행 안전도¹⁾²⁾ >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8	59.2	72.4	46.5	48.6	-	53.1	51.5	57.1	66.7	75.0
2010	59.4	70.9	48.3	49.2	-	51.8	52.5	56.3	64.9	76.5
2012	56.0	69.1	43.3	-	45.4	46.6	44.7	53.7	63.8	75.2
2014	57.4	70.9	44.5	-	47.4	50.1	48.0	53.7	63.2	74.2
2016	59.1	70.6	47.8	-	50.6	51.0	49.7	55.5	63.4	74.6
2018	63.5	74.3	53.0	-	58.5	57.5	55.5	59.8	66.3	75.3
2020	66.5	83.1	50.2	-	63.5	64.9	65.1	65.3	66.9	69.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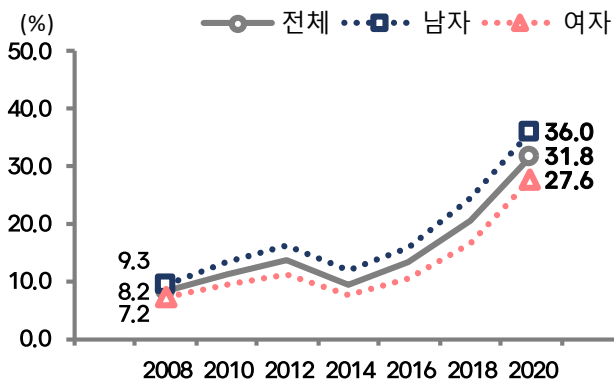
2) 2018년 까지는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걸기 두려운 곳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며, 2020년 부터는 밤에 혼자 걸을 때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 사회 안전 인식

2020년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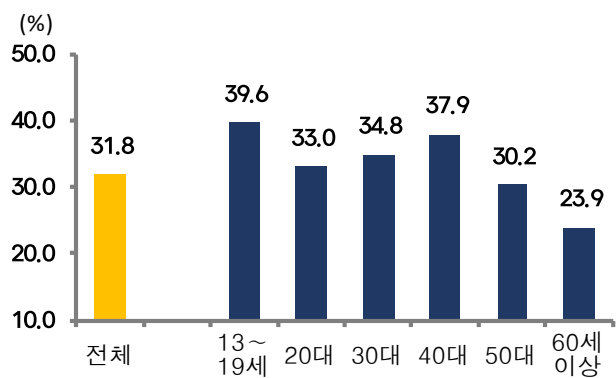
- '20년 13세 이상 국민의 31.8%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 대비 11.3%p 상승한 수치임
-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남자(36.0%)가 여자(27.6%)보다 8.4%p 더 높게 나타남
- 사회 안전 인식 정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39.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23.9%로 가장 낮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 안전 인식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연령대별 사회 안전 인식(2020) >



< 사회 안전 인식¹⁾²⁾ >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8	8.2	9.3	7.2	7.8	7.9	7.5	8.6	8.9	9.4	10.8
2010	11.3	13.4	9.2	10.8	8.9	10.1	11.2	11.9	17.7	19.3
2012	13.7	16.2	11.3	13.5	11.9	13.1	13.2	15.3	14.8	19.9
2014	9.5	11.7	7.4	9.5	8.6	9.1	8.3	9.8	10.8	13.2
2016	13.2	15.9	10.6	13.8	12.4	11.9	12.5	12.9	14.5	16.8
2018	20.5	24.5	16.6	19.3	17.7	19.6	19.3	19.7	23.1	26.4
2020	31.8	36.0	27.6	24.4	26.1	28.9	31.9	33.2	38.3	40.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XI. 사회통합 · 주관적 웰빙

29. 사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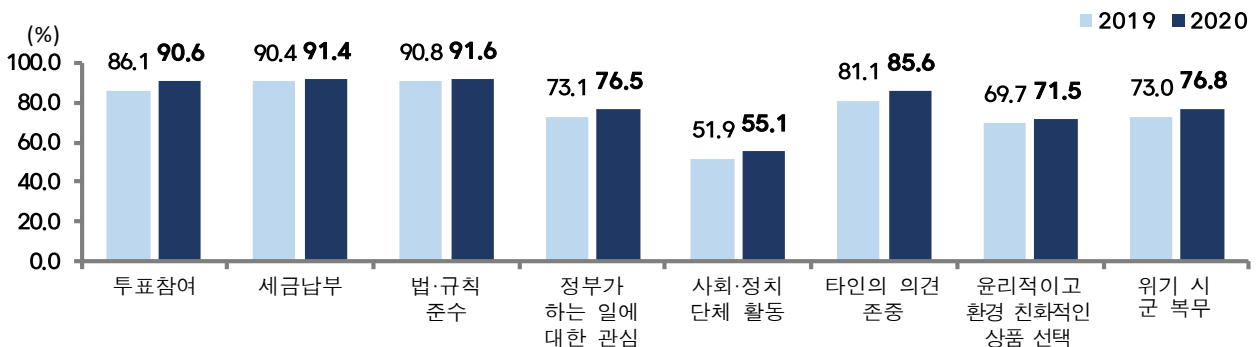
■ 시민 의식

2020년 국민 10명 중 9명은 법·규칙 준수, 세금납부, 투표 참여를 중시함

□ '20년 시민 의식과 관련된 8개 항목의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에서,

- 법·규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91.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정치단체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55.1%로 가장 낮았음
-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4%p 상승한 76.5%로 '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시민 의식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 조사」

< 시민 의식¹⁾²⁾ >

(단위: %)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사회·정치 단체 활동	타인의 의견 존중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 선택	위기 시 군 복무
2013	87.0	92.1	91.9	70.8	43.4	84.3	67.8	73.4
2014	80.3	87.2	87.5	64.6	40.3	81.3	65.1	68.7
2015	84.2	89.4	89.9	67.5	42.0	82.9	64.4	71.6
2016	84.1	90.5	91.8	71.4	42.6	85.1	71.5	73.7
2017	91.0	91.3	92.3	72.8	54.5	85.4	72.1	74.5
2018	90.3	91.7	92.6	75.7	54.8	86.3	73.8	77.7
2019	86.1	90.4	90.8	73.1	51.9	81.1	69.7	73.0
2020	90.6	91.4	91.6	76.5	55.1	85.6	71.5	76.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 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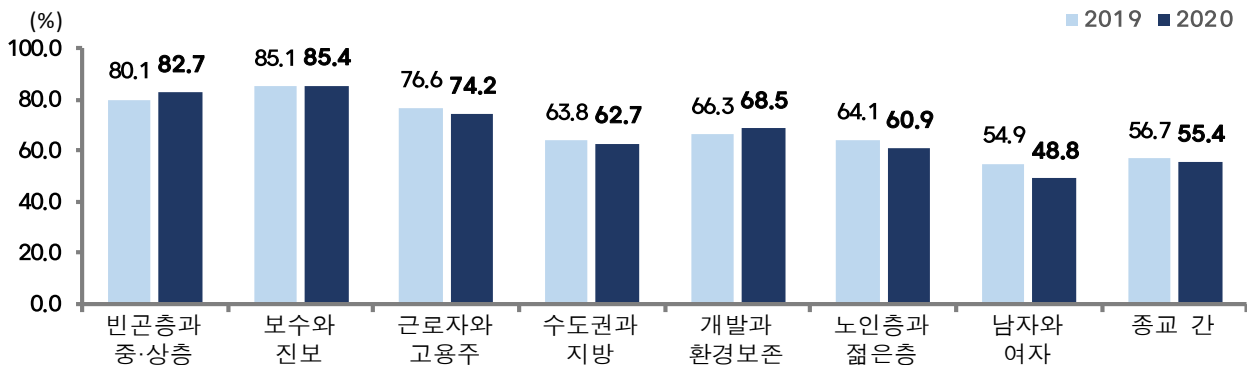
2)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 중 5점 이상 응답자의 비중임

■ 사회갈등 인식

2020년 집단 간 사회갈등 인식은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순으로 높음

- '20년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 간 사회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보수와 진보(85.4%), 빈곤층과 중·상층(82.7%), 근로자와 고용주(74.2%) 등의 순으로 높음
- 남자와 여자(48.8%), 종교 간(55.4%), 노인층과 젊은층(60.9%), 수도권과 지방(62.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갈등 인식을 보임
 - 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간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 대비 상승함

< 사회갈등 인식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갈등 인식¹⁾²⁾ >

(단위: %)

	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	남자와 여자	종교 간
2013	87.3	87.9	81.6	66.5	73.6	64.1	46.6	57.4
2014	85.6	85.2	79.0	65.1	71.5	62.3	47.3	59.9
2015	84.1	86.7	81.7	64.2	74.6	65.1	45.2	55.6
2016	85.8	86.2	81.8	60.8	69.1	63.8	49.8	57.0
2017	85.5	88.0	77.1	59.4	66.7	62.3	48.9	56.2
2018	82.4	87.3	76.2	60.4	70.7	64.5	52.0	58.5
2019	80.1	85.1	76.6	63.8	66.3	64.1	54.9	56.7
2020	82.7	85.4	74.2	62.7	68.5	60.9	48.8	55.4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30. 연대 ·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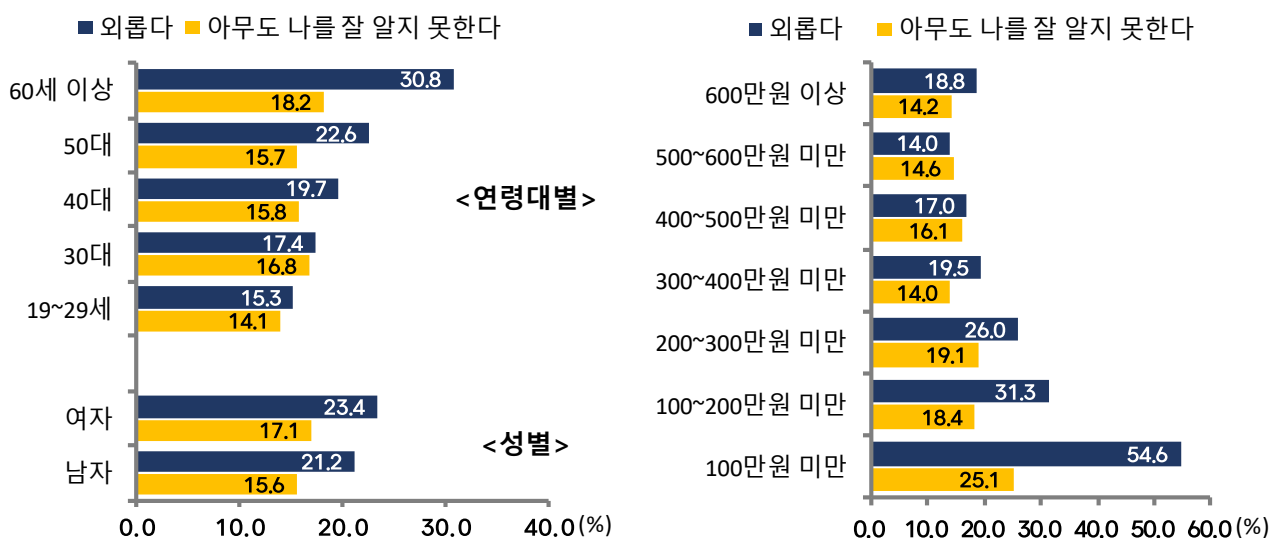
■ 사회적 고립감

2020년 국민 중 22.3%는 외롭다고 느끼며, 16.3%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낌

□ '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22.3%로 전년보다 1.8%p 증가했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16.3%로 전년보다 0.4%p 감소함

-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가장 심하게 느낌
- 월 소득 400만 원 미만에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임

< 성별 및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감(2020) > < 소득수준별 사회적 고립감(2020)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적 고립감¹⁾²⁾ >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자	여자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외롭다	28.9	27.7	26.1	23.0	20.7	16.0	20.5	22.3	21.2	23.4	15.3	17.4	19.7	22.6	30.8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17.3	19.5	18.0	14.0	13.0	11.3	16.7	16.3	15.6	17.1	14.1	16.8	15.8	15.7	18.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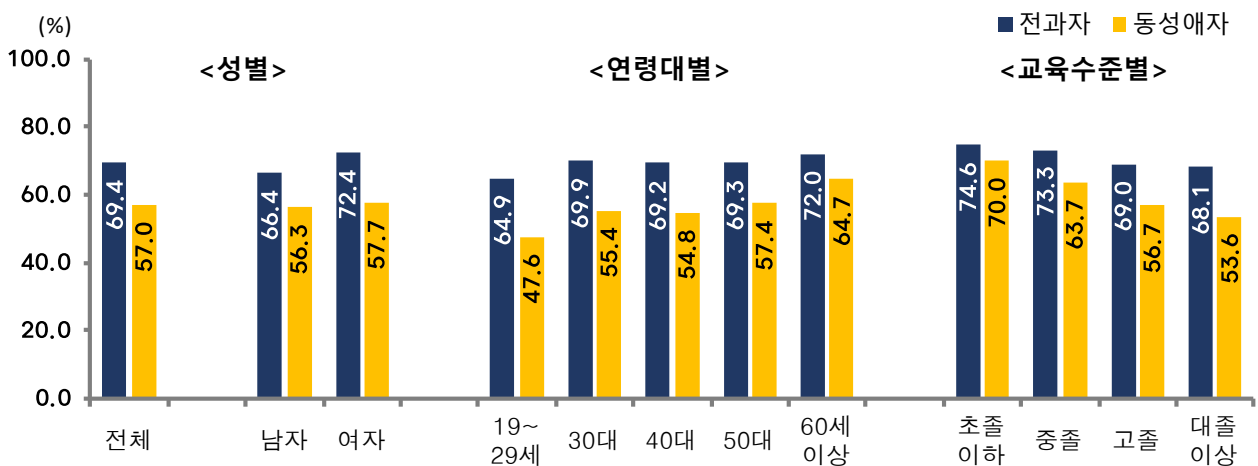
■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2020년 국민 10명 중 7명은 전과자에 대해, 6명은 동성애자에 대해 거리감이 있음

□ '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각각 69.4%, 57.0%임

-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거리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큼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연령대의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낮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2020)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2020)¹⁾²⁾ >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과자	69.4	66.4	72.4	64.9	69.9	69.2	69.3	72.0	74.6	73.3	69.0	68.1
동성애자	57.0	56.3	57.7	47.6	55.4	54.8	57.4	64.7	70.0	63.7	56.7	53.6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자신의 배우자, 친구, 직장동료, 이웃 중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의 비중임

31.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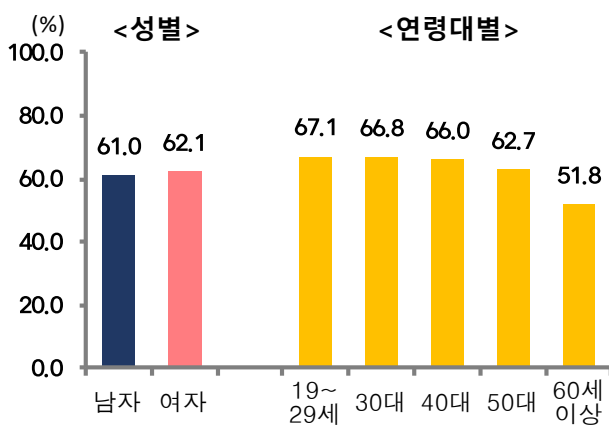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2020년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61.6%로 전년보다 0.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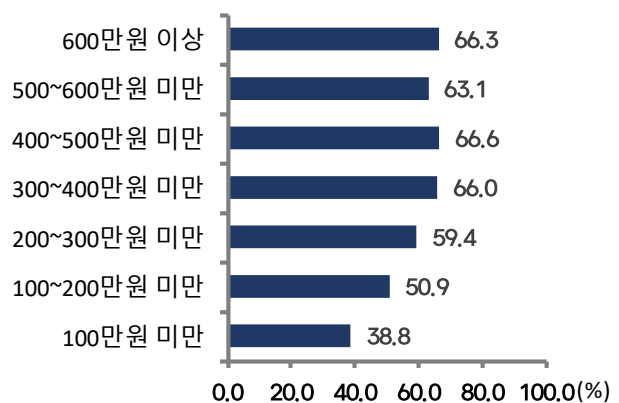
□ '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0.9%p 증가한 61.6%임

- 삶의 만족도는 여자(62.1%)가 남자(61.0%)보다 약간 높고,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성 및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2020) >



<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2020)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삶의 만족도¹⁾²⁾ >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60세 이상
2013	47.3	44.3	50.3	51.2	49.5	47.4	42.9	44.3	-
2014	50.7	49.5	51.9	56.6	52.8	51.2	46.2	44.8	-
2015	52.9	51.7	54.1	54.8	53.3	52.0	50.4	55.3	-
2016	57.2	57.3	57.2	61.3	58.9	53.5	56.1	57.3	-
2017	60.2	60.5	60.0	61.8	65.7	59.6	58.4	54.6	-
2018	63.7	62.6	65.0	64.5	66.6	63.9	64.1	58.5	-
2019	60.7	59.5	62.0	62.5	63.6	60.5	62.5	53.4	-
2020	61.6	61.0	62.1	67.1	66.8	66.0	62.7	-	51.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 점수(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점)가 6점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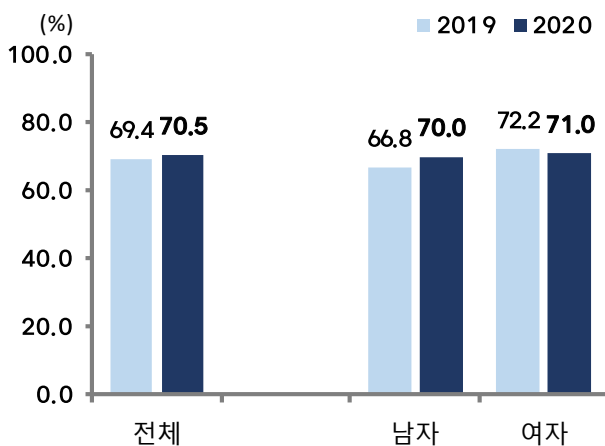
■ 긍정 정서 경험

2020년 국민 10명 중 7명은 행복감을 느낌

□ '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행복감을 느낀 사람의 비중은 70.5%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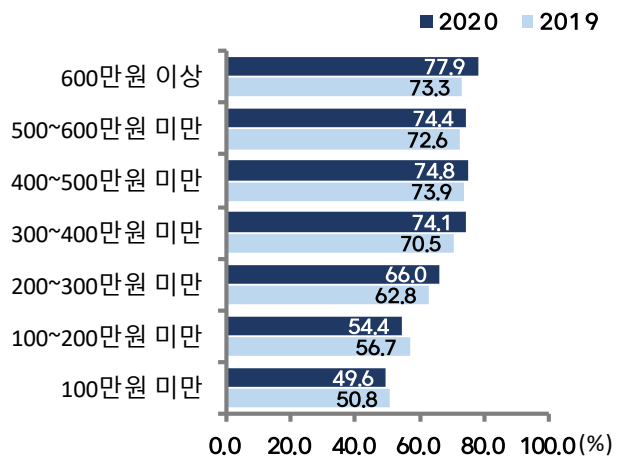
- 여자가 행복감을 느낀 비중이 71.0%로 남자에 비하여 소폭 많음
-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절반 정도만 행복감을 느낀 반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0명 중 약 8명이 행복감을 느낌

< 성별 긍정적 정서경험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소득수준별 긍정적 정서경험 >



< 긍정적 정서경험¹⁾²⁾ >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13	57.0	54.1	60.1	38.2	46.4	54.7	63.8	65.8	65.9	67.7
2014	59.7	58.6	60.8	43.6	47.2	53.9	63.6	70.8	68.8	68.3
2015	61.1	60.1	62.0	46.5	52.6	56.6	62.2	66.7	65.2	68.6
2016	64.6	64.1	65.2	51.1	54.8	58.4	65.4	68.5	72.1	69.8
2017	69.0	68.5	69.5	52.2	59.2	65.1	68.0	72.5	75.0	73.9
2018	72.5	71.2	73.8	58.7	57.8	69.3	73.5	72.2	77.2	78.8
2019	69.4	66.8	72.2	50.8	56.7	62.8	70.5	73.9	72.6	73.3
2020	70.5	70.0	71.0	49.6	54.4	66.0	74.1	74.8	74.4	77.9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어제 느낀 행복감 점수(0(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0(매우 행복했다)점)가 6점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임

XII. 통계표

I. 인구

1. 총인구	72
2. 평균연령	73
3. 성 및 연령별 인구	74
4. 부양비	75
5. 합계출산율	76
6. 시도별 인구	77
7. 사망률	79

II. 가구·가족

1. 평균 가구원 수	80
2. 가족 형태별 가구 구성	81
3. 가구 유형별 노인가구 구성	82
4. 첫 자녀 출산 모(母) 평균 연령	83
5. 결혼에 대한 인식	84
6. 이혼에 대한 인식	85
7. 자녀 필요성 인식	86

III. 건강

1. (국제비교) 기대수명	87
2. 사인별 사망률	89
3. 기대수명	91
4. 스트레스 인지율	92
5. 우울감 경험률	93
6. 주관적 건강 상태	94
7. 현재 흡연율	95
8. 월간 음주율	96
9.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97
10. 비만율	98
11. 연간 미충족 의료율	99

IV. 교육·훈련

1. 교원 1인당 학생 수	100
2. 학급당 학생 수	101
3. 평생교육 참여율	102
4.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103
5. 평생교육 자부담 학습비	104
6. 평생교육 성과 인식	105
7. 고등교육 이수율	106
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107
9. 전공직업 일치도	108

V. 노동

1. 고용률	109
2. 실업률	110
3. 산업별 취업자 구성	111
4. 직업별 취업자 구성	112
5. 종사상 취업자 구성	113
6. 산재 사망률	114
7.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115

VI. 소득·소비·자산

1. 국내총생산(GDP)	116
2. 1인당 국민총소득(GNI)	117
3. 소비자물가 상승률	118
4. 가구소득	119
5. 소득원천별 소득구성	120
6. 소비항목별 소비지출구성	121
7. 가구 순자산	122
8. 지니계수	123
9. 상대적 빈곤율	124

VII. 여가

1. 여가시간	125
2. 여가활동 동반자	126
3.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127
4. 스마트폰 과의존율	128
5. 여가여건 충족도	129

VIII. 주거

1.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130
2. 주택보급률	131
3.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132
4.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133
5.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34
6. 1인당 주거면적	135
7. 주택 만족도	136
8. 주거환경 만족도	137

IX. 생활환경

1.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138
2. 환경성 질환 유병률	139
3. 대기질 만족도	140
4. 수질 만족도	141
5. 소음 만족도	142
6. 토양환경 만족도	143
7. 녹지환경 만족도	144
8.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45
9. 환경예산 비율	146
10.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	147

X. 범죄안전

1. 화재 사망자 수	149
2.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150
3. 시도별 범죄율	151
4. 범죄율	153
5.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154
6.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	155
7. 야간보행 안전도	156
8. 사회안전 인식	157

XI. 사회통합·주관적웰빙

1. 시민의식	158
2. 사회 갈등 인식	159
3. 사회적 고립감	160
4.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161
5. 삶의 만족도	162
6. 긍정적 정서경험	163

I -1. 총인구

(단위: 명, %, 명/1,000명)

연도	총인구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 ¹⁾
1970	32,240,827	2.18	23.2
1975	35,280,725	1.68	17.1
1980	38,123,775	1.56	15.4
1985	40,805,744	0.98	10.2
1990	42,869,283	0.99	9.5
1995	45,092,991	1.01	10.3
2000	47,008,111	0.84	8.2
2001	47,370,164	0.77	6.6
2002	47,644,736	0.58	5.2
2003	47,892,330	0.52	5.1
2004	48,082,519	0.40	4.8
2005	48,184,561	0.21	4.0
2006	48,438,292	0.53	4.2
2007	48,683,638	0.51	5.1
2008	49,054,708	0.76	4.4
2009	49,307,835	0.51	4.0
2010	49,554,112	0.50	4.3
2011	49,936,638	0.77	4.3
2012	50,199,853	0.53	4.3
2013	50,428,893	0.46	3.4
2014	50,746,659	0.63	3.3
2015	51,014,947	0.53	3.2
2016	51,217,803	0.40	2.5
2017	51,361,911	0.28	1.4
2018	51,606,633	0.48	0.5
2019	51,709,098	0.20	0.1
2020	51,780,579	0.14	-0.6 ^p
2021	51,821,669	0.08	-
2022	51,846,339	0.05	-
2023	51,868,100	0.04	-
2024	51,887,623	0.04	-
2025	51,905,126	0.03	-
2026	51,920,462	0.03	-
2027	51,933,215	0.02	-
2028	51,941,946	0.02	-
2029	51,940,598	0.00	-
2030	51,926,953	-0.03	-
2031	51,899,896	-0.05	-
2032	51,858,138	-0.08	-
2033	51,800,130	-0.11	-
2034	51,724,407	-0.15	-
2035	51,629,895	-0.18	-
2036	51,515,697	-0.22	-
2037	51,381,324	-0.26	-
2038	51,226,482	-0.30	-
2039	51,051,053	-0.34	-
2040	50,855,376	-0.38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주: 1) 자연증가율 = 조출생률 - 조사망률

I-2. 평균연령

(단위: 세)

연도	평균연령			중위연령 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70	23.6	22.8	24.3	18.5	17.9	19.2
1975	24.5	23.5	25.4	19.6	18.9	20.3
1980	25.9	25.0	26.8	21.8	21.2	22.4
1985	27.5	26.6	28.4	24.3	23.8	24.9
1990	29.5	28.5	30.5	27.0	26.3	27.7
1995	31.2	30.1	32.3	29.3	28.4	30.2
2000	33.1	31.9	34.3	31.8	30.8	32.7
2001	33.5	32.3	34.7	32.3	31.4	33.3
2002	34.0	32.8	35.2	32.9	32.0	33.9
2003	34.5	33.3	35.6	33.5	32.6	34.5
2004	34.9	33.8	36.1	34.1	33.2	35.1
2005	35.5	34.3	36.6	34.8	33.8	35.8
2006	36.0	34.8	37.2	35.4	34.4	36.5
2007	36.5	35.3	37.7	36.1	35.1	37.1
2008	37.0	35.8	38.1	36.7	35.7	37.8
2009	37.4	36.3	38.6	37.3	36.3	38.4
2010	37.9	36.7	39.1	37.9	36.9	39.0
2011	38.4	37.2	39.6	38.5	37.5	39.6
2012	38.8	37.6	40.0	39.1	38.0	40.2
2013	39.3	38.1	40.5	39.7	38.5	40.8
2014	39.7	38.5	40.9	40.3	39.1	41.5
2015	40.2	39.0	41.4	40.9	39.6	42.1
2016	40.7	39.5	41.9	41.4	40.1	42.7
2017	41.2	40.0	42.4	42.0	40.7	43.3
2018	41.7	40.5	42.9	42.6	41.2	43.9
2019	42.2	41.0	43.4	43.1	41.8	44.5
2020	42.8	41.6	43.9	43.7	42.3	45.2
2021	43.3	42.1	44.5	44.3	42.9	45.8
2022	43.8	42.7	45.0	44.9	43.5	46.4
2023	44.4	43.2	45.5	45.5	44.1	47.0
2024	44.9	43.7	46.0	46.1	44.7	47.6
2025	45.4	44.2	46.5	46.7	45.3	48.1
2026	45.8	44.7	47.0	47.2	45.9	48.7
2027	46.3	45.1	47.4	47.8	46.5	49.2
2028	46.7	45.6	47.9	48.4	47.1	49.8
2029	47.1	46.0	48.3	48.9	47.7	50.3
2030	47.6	46.4	48.7	49.5	48.2	50.8
2031	48.0	46.8	49.1	50.1	48.8	51.4
2032	48.4	47.3	49.5	50.6	49.3	51.9
2033	48.8	47.7	49.9	51.2	49.8	52.5
2034	49.2	48.1	50.3	51.7	50.3	53.0
2035	49.6	48.4	50.7	52.2	50.8	53.6
2036	49.9	48.8	51.0	52.7	51.2	54.1
2037	50.3	49.2	51.4	53.1	51.6	54.6
2038	50.7	49.6	51.8	53.6	52.1	55.1
2039	51.1	50.0	52.2	54.0	52.5	55.5
2040	51.4	50.3	52.5	54.4	52.9	5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I -3. 성 및 연령별 인구

(단위: 천 명)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970	32,241	16,309	15,932	9,178	7,801	4,905	4,105	2,739	1,864	1,087	462	101
1975	35,281	17,766	17,515	9,019	8,929	5,610	4,455	3,219	2,122	1,248	540	139
1980	38,124	19,236	18,888	8,492	8,978	7,166	4,805	3,935	2,456	1,460	654	178
1985	40,806	20,576	20,230	7,813	8,899	8,372	5,641	4,382	2,945	1,723	814	215
1990	42,869	21,568	21,301	7,047	8,369	8,669	7,177	4,644	3,611	2,058	992	302
1995	45,093	22,705	22,388	6,712	7,721	8,692	8,389	5,414	4,019	2,537	1,226	382
2000	47,008	23,667	23,341	6,781	6,972	8,207	8,521	6,942	4,372	3,198	1,530	483
2001	47,370	23,855	23,515	6,696	6,772	8,158	8,561	7,316	4,436	3,321	1,594	516
2002	47,645	23,991	23,653	6,501	6,623	8,076	8,609	7,617	4,547	3,444	1,678	551
2003	47,892	24,121	23,771	6,260	6,542	7,987	8,628	7,911	4,674	3,543	1,760	587
2004	48,083	24,211	23,872	6,021	6,518	7,824	8,667	8,115	4,861	3,597	1,854	626
2005	48,185	24,243	23,941	5,758	6,545	7,633	8,628	8,206	5,148	3,636	1,967	664
2006	48,438	24,370	24,069	5,496	6,587	7,514	8,588	8,324	5,470	3,668	2,087	705
2007	48,684	24,491	24,192	5,275	6,624	7,399	8,528	8,406	5,729	3,768	2,207	749
2008	49,055	24,672	24,383	5,111	6,650	7,283	8,465	8,490	6,043	3,891	2,324	798
2009	49,308	24,774	24,533	4,945	6,653	7,154	8,323	8,565	6,373	3,987	2,447	860
2010	49,554	24,881	24,673	4,770	6,639	6,973	8,265	8,578	6,752	4,090	2,565	923
2011	49,937	25,070	24,867	4,652	6,588	6,840	8,209	8,600	7,229	4,149	2,688	980
2012	50,200	25,187	25,012	4,608	6,405	6,734	8,146	8,657	7,505	4,252	2,841	1,051
2013	50,429	25,285	25,144	4,589	6,176	6,686	8,036	8,653	7,822	4,358	2,983	1,125
2014	50,747	25,445	25,302	4,548	5,956	6,717	7,900	8,775	8,034	4,547	3,062	1,209
2015	51,015	25,586	25,429	4,541	5,711	6,781	7,764	8,752	8,173	4,856	3,130	1,305
2016	51,218	25,671	25,547	4,537	5,460	6,840	7,653	8,672	8,305	5,204	3,129	1,418
2017	51,362	25,737	25,625	4,460	5,247	6,898	7,546	8,585	8,390	5,457	3,251	1,528
2018	51,607	25,864	25,743	4,322	5,085	6,994	7,467	8,513	8,463	5,749	3,377	1,637
2019	51,709	25,913	25,796	4,193	4,914	6,993	7,362	8,343	8,589	6,080	3,476	1,759
2020	51,781	25,946	25,835	4,056	4,732	6,972	7,204	8,292	8,587	6,473	3,592	1,874
2021	51,822	25,962	25,860	3,866	4,613	6,910	7,048	8,211	8,573	6,962	3,651	1,988
2022	51,846	25,968	25,878	3,683	4,568	6,703	6,951	8,165	8,644	7,232	3,761	2,139
2023	51,868	25,972	25,896	3,519	4,549	6,449	6,918	8,067	8,647	7,566	3,876	2,278
2024	51,888	25,974	25,914	3,394	4,506	6,199	6,939	7,920	8,753	7,761	4,054	2,360
2025	51,905	25,974	25,931	3,274	4,504	5,922	7,006	7,786	8,716	7,898	4,356	2,441
2026	51,920	25,974	25,947	3,179	4,497	5,634	7,068	7,694	8,653	8,042	4,680	2,472
2027	51,933	25,972	25,961	3,141	4,425	5,389	7,120	7,604	8,582	8,141	4,928	2,603
2028	51,942	25,968	25,974	3,150	4,286	5,188	7,162	7,495	8,496	8,220	5,213	2,732
2029	51,941	25,959	25,981	3,185	4,159	4,992	7,147	7,390	8,331	8,355	5,531	2,850
2030	51,927	25,943	25,984	3,236	4,022	4,789	7,113	7,232	8,282	8,367	5,908	2,977
2031	51,900	25,921	25,979	3,300	3,835	4,652	7,039	7,077	8,205	8,367	6,368	3,057
2032	51,858	25,890	25,968	3,363	3,653	4,593	6,822	6,980	8,163	8,446	6,628	3,211
2033	51,800	25,851	25,949	3,410	3,491	4,562	6,559	6,947	8,068	8,461	6,944	3,359
2034	51,724	25,803	25,922	3,439	3,367	4,511	6,301	6,968	7,925	8,572	7,127	3,514
2035	51,630	25,744	25,886	3,450	3,248	4,503	6,018	7,035	7,794	8,545	7,267	3,771
2036	51,516	25,676	25,840	3,441	3,153	4,491	5,724	7,097	7,704	8,490	7,411	4,004
2037	51,381	25,596	25,785	3,415	3,115	4,417	5,474	7,150	7,616	8,427	7,512	4,255
2038	51,226	25,506	25,721	3,372	3,124	4,279	5,271	7,192	7,510	8,349	7,598	4,531
2039	51,051	25,405	25,646	3,318	3,159	4,154	5,074	7,178	7,409	8,196	7,739	4,825
2040	50,855	25,293	25,562	3,259	3,209	4,019	4,872	7,146	7,255	8,156	7,769	5,17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I -4. 부양비

(단위: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명/유소년인구 100명)

연도	부양비			노령화지수 ⁴⁾
	총부양비 ¹⁾	유소년부양비 ²⁾	노년부양비 ³⁾	
1970	83.8	78.2	5.7	7.2
1975	72.5	66.6	6.0	8.9
1980	60.7	54.6	6.1	11.2
1985	52.5	46.0	6.5	14.2
1990	44.3	36.9	7.4	20.0
1995	41.4	33.0	8.3	25.2
2000	39.5	29.4	10.1	34.3
2001	39.5	29.0	10.5	36.2
2002	39.5	28.5	11.0	38.6
2003	39.4	27.9	11.5	41.1
2004	39.3	27.3	12.0	43.8
2005	39.1	26.6	12.5	46.8
2006	38.7	25.7	13.0	50.4
2007	38.3	24.8	13.5	54.6
2008	37.8	23.8	14.0	58.8
2009	37.3	22.9	14.4	62.9
2010	36.9	22.0	14.8	67.2
2011	36.3	21.2	15.0	71.0
2012	36.2	20.6	15.6	76.1
2013	36.2	20.0	16.3	81.5
2014	36.2	19.4	16.8	87.0
2015	36.2	18.8	17.5	93.0
2016	36.2	18.3	18.0	98.4
2017	36.7	17.9	18.8	105.1
2018	37.1	17.5	19.6	111.9
2019	37.6	17.1	20.4	119.4
2020	38.6	16.9	21.7	129.0
2021	39.6	16.6	23.0	138.8
2022	40.6	16.2	24.3	150.0
2023	41.6	15.8	25.8	162.9
2024	43.0	15.6	27.4	175.7
2025	44.8	15.5	29.3	189.7
2026	46.6	15.2	31.4	206.0
2027	48.1	15.0	33.0	220.0
2028	49.8	14.9	35.0	234.8
2029	51.3	14.8	36.5	246.2
2030	53.0	14.7	38.2	259.6
2031	54.7	14.7	40.0	272.4
2032	56.6	14.8	41.8	282.7
2033	58.8	15.0	43.7	291.5
2034	61.5	15.3	46.2	300.9
2035	64.1	15.7	48.4	308.5
2036	67.1	16.1	51.0	315.9
2037	69.9	16.5	53.4	322.6
2038	72.7	16.9	55.8	330.1
2039	75.3	17.2	58.1	338.1
2040	77.5	17.4	60.1	345.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총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고령 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2)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년부양비 = 고령 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4) 노령화지수 = 고령 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I -5. 합계출산율

(단위: 명/가임 여성 1명, 명/해당 연령 여성 1,000명)

연도	합계 출산율 ¹⁾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95	1.63	3.7	62.4	175.3	68.6	15.0	2.4	0.2
2000	1.48	2.6	39.2	150.3	84.1	17.6	2.7	0.2
2001	1.31	2.4	31.7	129.8	78.1	17.3	2.6	0.2
2002	1.18	2.7	26.8	111.4	75.0	16.9	2.5	0.2
2003	1.19	2.5	23.9	112.2	79.7	17.4	2.6	0.2
2004	1.16	2.4	20.8	105.0	83.7	18.6	2.6	0.2
2005	1.09	2.2	18.0	92.1	82.1	19.0	2.5	0.2
2006	1.13	2.2	17.8	89.9	90.0	21.5	2.7	0.2
2007	1.26	2.3	19.7	95.9	102.0	25.9	3.1	0.2
2008	1.19	1.7	18.2	85.6	101.5	26.5	3.2	0.2
2009	1.15	1.7	16.5	80.4	100.8	27.3	3.4	0.2
2010	1.23	1.8	16.5	79.7	112.4	32.6	4.1	0.2
2011	1.24	1.8	16.4	78.4	114.4	35.4	4.6	0.2
2012	1.30	1.8	16.0	77.4	121.9	39.0	4.9	0.2
2013	1.19	1.7	14.0	65.9	111.4	39.5	4.8	0.1
2014	1.21	1.6	13.1	63.4	113.8	43.2	5.2	0.1
2015	1.24	1.4	12.5	63.1	116.7	48.3	5.6	0.2
2016	1.17	1.3	11.5	56.4	110.1	48.7	5.9	0.2
2017	1.05	1.0	9.6	47.9	97.7	47.2	6.0	0.2
2018	0.98	0.9	8.2	41.0	91.4	46.1	6.4	0.2
2019	0.92	0.8	7.1	35.7	86.2	45.0	7.0	0.2
2020 ^p	0.84	0.7	6.1	30.6	79.0	42.3	7.1	0.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각 세별 출산율의 합

I -6. 시도별 인구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70	32,241	5,686	2,046	1,295	804	651	548	283	-
1975	35,281	7,005	2,625	1,544	981	751	651	375	-
1980	38,124	8,516	3,309	1,889	1,253	874	820	546	-
1985	40,806	9,725	3,628	2,129	1,541	1,053	952	676	-
1990	42,869	10,473	3,803	2,293	1,897	1,125	1,036	794	-
1995	45,093	10,342	3,852	2,475	2,334	1,274	1,287	980	-
2000	47,008	10,078	3,733	2,529	2,522	1,382	1,397	1,036	-
2005	48,185	10,029	3,590	2,509	2,581	1,445	1,470	1,071	-
2010	49,554	10,089	3,477	2,480	2,723	1,494	1,515	1,099	-
2011	49,937	10,072	3,476	2,483	2,755	1,502	1,528	1,112	-
2012	50,200	10,036	3,462	2,480	2,794	1,504	1,540	1,125	102
2013	50,429	9,990	3,456	2,476	2,830	1,504	1,545	1,137	118
2014	50,747	9,975	3,452	2,475	2,862	1,505	1,553	1,151	132
2015	51,015	9,941	3,452	2,469	2,883	1,506	1,542	1,164	187
2016	51,218	9,843	3,447	2,461	2,907	1,502	1,536	1,166	234
2017	51,362	9,766	3,424	2,458	2,924	1,495	1,528	1,159	266
2018	51,607	9,705	3,400	2,450	2,939	1,493	1,518	1,154	304
2019	51,709	9,662	3,373	2,432	2,944	1,494	1,509	1,147	331
2020	51,781	9,602	3,344	2,419	2,951	1,488	1,500	1,140	349
2021	51,822	9,543	3,313	2,405	2,957	1,481	1,491	1,133	365
2022	51,846	9,488	3,283	2,390	2,962	1,473	1,483	1,126	380
2023	51,868	9,439	3,260	2,376	2,972	1,466	1,475	1,123	396
2024	51,888	9,394	3,237	2,362	2,981	1,459	1,469	1,120	411
2025	51,905	9,352	3,215	2,348	2,990	1,452	1,462	1,117	425
2026	51,920	9,312	3,194	2,334	3,000	1,445	1,457	1,114	438
2027	51,933	9,273	3,173	2,322	3,008	1,438	1,452	1,110	450
2028	51,942	9,234	3,153	2,309	3,017	1,432	1,447	1,107	462
2029	51,941	9,195	3,133	2,297	3,025	1,425	1,443	1,103	474
2030	51,927	9,156	3,113	2,284	3,031	1,419	1,438	1,099	484
2031	51,900	9,116	3,094	2,271	3,037	1,412	1,434	1,094	495
2032	51,858	9,076	3,074	2,259	3,042	1,405	1,429	1,089	505
2033	51,800	9,035	3,053	2,246	3,045	1,398	1,425	1,084	514
2034	51,724	8,995	3,032	2,232	3,047	1,391	1,420	1,078	523
2035	51,630	8,954	3,011	2,218	3,048	1,383	1,415	1,072	531
2036	51,516	8,912	2,988	2,203	3,047	1,375	1,410	1,065	538
2037	51,381	8,869	2,964	2,188	3,045	1,367	1,405	1,058	545
2038	51,226	8,825	2,940	2,172	3,042	1,358	1,399	1,051	552
2039	51,051	8,779	2,914	2,156	3,037	1,349	1,392	1,043	558
2040	50,855	8,731	2,887	2,138	3,031	1,340	1,386	1,035	56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

(단위: 천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연도
2,636	1,914	1,516	2,379	2,491	3,450	3,374	2,795	374	1970
3,125	1,893	1,546	2,346	2,498	3,300	3,393	2,829	419	1975
3,774	1,824	1,450	2,191	2,329	2,974	3,157	2,746	472	1980
4,697	1,740	1,403	2,075	2,221	2,729	2,954	2,790	493	1985
5,972	1,562	1,374	1,992	2,047	2,480	2,736	2,776	509	1990
7,738	1,482	1,412	1,784	1,922	2,089	2,702	2,909	512	1995
9,146	1,516	1,494	1,879	1,927	2,035	2,773	3,036	524	2000
10,625	1,489	1,485	1,918	1,817	1,851	2,652	3,110	542	2005
11,619	1,489	1,524	2,078	1,796	1,777	2,630	3,217	548	2010
11,825	1,498	1,545	2,108	1,809	1,779	2,645	3,245	554	2011
11,974	1,504	1,553	2,043	1,817	1,782	2,656	3,265	561	2012
12,126	1,506	1,565	2,062	1,821	1,784	2,661	3,278	570	2013
12,282	1,510	1,578	2,088	1,829	1,792	2,671	3,307	583	2014
12,423	1,517	1,589	2,103	1,835	1,797	2,678	3,330	599	2015
12,600	1,521	1,601	2,126	1,835	1,798	2,683	3,338	618	2016
12,786	1,521	1,609	2,153	1,829	1,795	2,675	3,339	635	2017
13,031	1,521	1,619	2,180	1,820	1,790	2,674	3,356	653	2018
13,238	1,517	1,626	2,188	1,803	1,773	2,665	3,350	660	2019
13,405	1,515	1,632	2,204	1,792	1,764	2,655	3,350	670	2020
13,554	1,513	1,636	2,219	1,781	1,755	2,645	3,349	680	2021
13,689	1,511	1,641	2,233	1,770	1,747	2,635	3,346	689	2022
13,785	1,512	1,645	2,245	1,762	1,741	2,629	3,344	698	2023
13,875	1,512	1,649	2,256	1,754	1,737	2,622	3,343	707	2024
13,959	1,513	1,653	2,268	1,747	1,732	2,617	3,340	715	2025
14,038	1,514	1,657	2,279	1,741	1,728	2,611	3,338	723	2026
14,111	1,515	1,662	2,290	1,735	1,724	2,606	3,335	731	2027
14,179	1,516	1,666	2,301	1,729	1,721	2,601	3,331	738	2028
14,240	1,518	1,670	2,311	1,724	1,718	2,596	3,327	744	2029
14,294	1,519	1,674	2,320	1,718	1,715	2,591	3,321	751	2030
14,340	1,521	1,677	2,328	1,713	1,712	2,585	3,315	756	2031
14,379	1,522	1,680	2,336	1,708	1,708	2,579	3,307	762	2032
14,409	1,523	1,682	2,342	1,703	1,705	2,572	3,298	767	2033
14,431	1,523	1,684	2,347	1,697	1,701	2,564	3,288	771	2034
14,445	1,523	1,685	2,352	1,691	1,696	2,556	3,276	775	2035
14,450	1,523	1,685	2,355	1,684	1,692	2,546	3,263	778	2036
14,447	1,521	1,684	2,357	1,678	1,687	2,536	3,248	781	2037
14,435	1,519	1,683	2,358	1,670	1,681	2,525	3,233	784	2038
14,415	1,517	1,680	2,358	1,663	1,675	2,512	3,216	786	2039
14,388	1,513	1,678	2,357	1,654	1,669	2,499	3,198	787	2040

I -7. 사망률¹⁾

(단위: 명/1,000명)

연도	전체 ²⁾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0세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985	5.9	6.8	4.9	3.8	1.2	0.9	1.6	2.4	6.0	11.6	26.6	62.6	170.8
1990	5.6	6.4	4.8	3.0	0.8	0.7	1.2	2.1	4.9	9.8	22.0	54.7	149.0
1995	5.3	6.0	4.7	2.8	0.5	0.6	1.0	1.7	3.8	8.3	18.4	48.9	129.5
2000	5.2	5.8	4.7	4.8	0.4	0.3	0.7	1.3	3.0	6.8	15.4	42.6	127.2
2001	5.1	5.6	4.6	5.3	0.3	0.3	0.6	1.2	2.8	6.4	14.7	40.5	121.0
2002	5.1	5.6	4.7	5.1	0.3	0.3	0.6	1.1	2.7	6.0	14.2	39.4	122.3
2003	5.1	5.6	4.6	5.4	0.3	0.3	0.6	1.1	2.6	5.7	13.6	36.9	115.9
2004	5.1	5.6	4.6	4.9	0.2	0.2	0.5	1.0	2.5	5.5	13.2	35.4	112.9
2005	5.1	5.5	4.6	4.2	0.2	0.2	0.5	1.0	2.4	5.1	12.5	33.8	110.5
2006	5.0	5.5	4.5	4.1	0.2	0.2	0.5	0.9	2.2	4.9	11.8	32.1	108.3
2007	5.0	5.5	4.5	3.8	0.2	0.2	0.6	0.9	2.2	4.6	11.2	30.9	105.0
2008	5.0	5.5	4.4	3.5	0.2	0.2	0.6	0.9	2.1	4.5	10.5	29.2	100.1
2009	5.0	5.5	4.4	3.3	0.2	0.2	0.6	0.9	2.1	4.3	10.0	27.7	94.0
2010	5.1	5.7	4.5	3.5	0.2	0.2	0.5	0.9	2.0	4.2	9.7	27.4	94.2
2011	5.1	5.7	4.6	3.2	0.1	0.2	0.5	0.8	1.9	4.1	9.2	26.2	92.5
2012	5.3	5.9	4.8	3.1	0.2	0.2	0.5	0.8	1.8	3.9	8.7	26.1	94.7
2013	5.3	5.8	4.7	2.9	0.1	0.2	0.4	0.8	1.7	3.8	8.2	24.8	89.0
2014	5.3	5.8	4.7	3.1	0.1	0.2	0.4	0.8	1.7	3.7	7.8	23.6	86.0
2015	5.4	5.9	4.9	2.8	0.1	0.2	0.4	0.7	1.6	3.5	7.6	23.3	85.8
2016	5.5	6.0	5.0	2.8	0.1	0.2	0.4	0.7	1.5	3.5	7.4	22.4	83.9
2017	5.6	6.0	5.1	2.7	0.1	0.2	0.4	0.7	1.5	3.3	6.9	21.4	83.4
2018	5.8	6.3	5.4	2.8	0.1	0.2	0.4	0.7	1.5	3.3	6.8	20.9	84.1
2019	5.7	6.3	5.2	2.7	0.1	0.2	0.4	0.7	1.4	3.2	6.5	19.5	78.3
2020 ^P	5.9	6.5	5.4	2.4	0.1	0.2	0.4	0.7	1.4	3.1	6.4	19.0	78.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사망률 =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

2) 전체 사망률에 연령 미상 사망자 포함

Ⅱ-1. 평균 가구원 수¹⁾

(단위: 명, %)

연도	평균 가구원수 ²⁾	가구원수별 구성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	합계
1980	4.62	4.8	10.5	14.5	20.3	20.0	29.8	100.0
1985	4.16	6.9	12.3	16.5	25.3	19.5	19.5	100.0
1990	3.77	9.0	13.8	19.1	29.5	18.8	9.8	100.0
1995	3.40	12.7	16.9	20.3	31.7	12.9	5.5	100.0
2000	3.12	15.5	19.1	20.9	31.1	10.1	3.3	100.0
2005	2.88	20.0	22.2	20.9	27.0	7.7	2.3	100.0
2010	2.69	23.9	24.3	21.3	22.5	6.2	1.8	100.0
2015	2.53	27.2	26.1	21.5	18.8	4.9	1.5	100.0
2016	2.51	27.9	26.2	21.4	18.3	4.8	1.4	100.0
2017	2.47	28.6	26.7	21.2	17.7	4.5	1.3	100.0
2018	2.44	29.3	27.3	21.0	17.0	4.3	1.2	100.0
2019	2.39	30.2	27.8	20.7	16.2	3.9	1.0	100.0
서울	2.33	33.4	25.8	20.6	15.8	3.6	1.0	100.0
부산	2.34	30.7	29.1	20.8	15.1	3.3	0.9	100.0
대구	2.41	29.4	27.7	21.5	16.9	3.7	0.9	100.0
인천	2.50	26.6	27.3	22.6	18.2	4.3	1.1	100.0
광주	2.40	31.1	26.7	20.0	16.7	4.5	1.0	100.0
대전	2.33	33.7	26.1	19.6	15.8	3.9	1.0	100.0
울산	2.48	26.5	27.4	23.1	18.4	3.7	0.8	100.0
세종	2.48	30.1	24.1	20.7	19.2	4.8	1.1	100.0
경기	2.53	26.3	26.2	22.5	19.2	4.6	1.2	100.0
강원	2.25	32.9	31.6	18.5	12.5	3.4	1.0	100.0
충북	2.30	32.9	29.3	18.8	14.0	3.9	1.1	100.0
충남	2.31	32.5	29.7	18.6	14.2	3.9	1.1	100.0
전북	2.30	32.3	30.7	18.4	13.3	4.0	1.2	100.0
전남	2.26	32.1	33.2	17.8	11.9	3.7	1.2	100.0
경북	2.25	32.7	31.9	18.7	12.6	3.1	0.9	100.0
경남	2.38	29.6	29.3	20.6	15.7	3.8	1.0	100.0
제주	2.46	29.7	28.1	19.3	15.2	5.6	2.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2015년부터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과 함께 공표 주기 1년으로 변경

2) 평균가구원수 = 일반가구 총가구원수 ÷ 일반가구수

표-2. 가족 형태별 가구 구성¹⁾

(단위: %)

연도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합계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미혼자녀		
1980	6.4	56.5	10.0	0.6	10.4	16.1	100.0
1985	7.8	57.8	9.7	0.8	9.9	14.0	100.0
1990	9.3	58.0	8.7	0.9	9.3	13.8	100.0
1995	12.6	58.6	8.6	1.1	7.9	11.2	100.0
2000	14.8	57.8	9.4	1.2	6.8	10.1	100.0
2005	18.1	53.7	11.0	1.2	5.7	10.4	100.0
2010	20.6	49.4	12.3	1.2	5.0	11.6	100.0
2015	21.8	44.9	15.0	1.1	4.2	13.0	100.0
2016	21.9	45.2	14.6	1.1	4.2	13.1	100.0
2017	22.7	44.8	14.6	1.0	3.9	12.9	100.0
2018	23.5	44.4	14.6	1.0	3.7	12.8	100.0
2019	24.5	43.9	14.6	1.0	3.4	12.6	100.0
서울	21.9	45.1	15.2	0.8	3.5	13.6	100.0
부산	26.0	42.4	15.7	0.8	3.2	11.9	100.0
대구	24.2	45.1	15.6	0.8	3.3	10.9	100.0
인천	21.2	46.3	15.8	0.8	3.4	12.4	100.0
광주	22.3	44.4	17.5	0.7	2.7	12.4	100.0
대전	23.9	45.5	15.4	0.8	3.1	11.3	100.0
울산	24.9	49.8	12.8	0.8	2.9	8.8	100.0
세종	22.0	51.3	12.4	0.9	3.4	10.1	100.0
경기	21.4	48.4	13.8	0.9	3.7	11.8	100.0
강원	31.0	35.8	14.3	1.5	3.6	13.9	100.0
충북	28.3	39.9	14.2	1.3	3.5	12.8	100.0
충남	29.0	39.5	13.2	1.5	3.4	13.5	100.0
전북	29.0	36.4	15.4	1.2	3.2	14.8	100.0
전남	32.3	32.6	14.2	1.5	3.0	16.5	100.0
경북	32.2	36.8	13.1	1.5	3.2	13.2	100.0
경남	27.3	42.9	13.8	1.1	3.3	11.6	100.0
제주	22.9	39.6	16.7	1.0	3.9	15.7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2015년부터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과 함께 공표 주기 1년으로 변경

표-3. 가구 유형별 노인가구 구성¹⁾²⁾

(단위: 명, %)

연도	노인가구 수	가구유형별 구성 비율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인가구	비친족가구	합계
1985	677,013	21.7	35.0	24.5	0.6	16.9	1.2	100.0
1990	962,522	24.8	31.4	22.2	0.5	20.0	1.0	100.0
1995	1,251,231	31.1	26.0	13.7	0.3	27.9	1.0	100.0
2000	1,734,402	33.9	24.2	9.9	0.3	31.3	0.5	100.0
2005	2,448,348	34.6	23.8	9.0	0.2	32.0	0.4	100.0
2010	3,111,011	34.5	23.3	7.4	0.1	34.3	0.4	100.0
2015	3,719,624	34.0	26.2	6.3	0.1	32.9	0.6	100.0
2016	3,867,406	33.9	26.1	5.8	0.1	33.5	0.7	100.0
2017	4,065,109	34.4	25.7	5.4	0.1	33.7	0.8	100.0
2018	4,237,675	34.8	25.3	4.9	0.1	34.1	0.8	100.0
2019	4,458,123	35.2	24.9	4.5	0.0	34.4	1.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2015년부터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과 함께 공표 주기 1년으로 변경

2)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함

Ⅱ-4. 첫 자녀 출산 모(母) 평균 연령

(단위: 세, %)

연도	첫 자녀 출산 평균 연령 ¹⁾	첫 자녀 출산 모 연령분포 ¹⁾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1993	26.23	2.1	33.9	52.2	9.8	1.8	0.2	0.0
1995	26.49	1.8	29.8	55.9	10.0	2.2	0.3	0.0
2000	27.69	1.4	18.3	59.9	16.7	3.1	0.6	0.0
2001	27.99	1.4	16.9	57.9	19.6	3.6	0.7	0.1
2002	28.29	1.3	15.7	55.2	23.2	3.9	0.8	0.1
2003	28.58	1.0	13.9	54.6	25.5	4.1	0.8	0.1
2004	28.84	0.9	12.5	52.2	28.9	4.6	0.8	0.1
2005	29.09	0.9	11.1	50.6	31.2	5.3	0.8	0.1
2006	29.28	1.0	10.2	49.2	32.9	6.0	0.8	0.1
2007	29.43	1.0	9.5	48.4	33.3	6.9	0.8	0.1
2008	29.61	0.9	8.9	47.1	34.9	7.3	0.8	0.1
2009	29.85	0.9	8.0	45.3	36.6	8.1	1.0	0.1
2010	30.10	1.0	7.6	41.3	40.1	8.9	1.1	0.1
2011	30.25	1.1	7.7	38.5	41.9	9.4	1.3	0.1
2012	30.50	1.0	7.3	34.7	45.5	9.9	1.4	0.1
2013	30.73	1.1	7.3	31.1	47.7	11.2	1.5	0.0
2014	30.97	1.0	7.0	29.1	48.7	12.4	1.7	0.0
2015	31.20	0.9	6.6	28.5	48.0	14.2	1.9	0.0
2016	31.37	0.8	6.6	27.5	46.8	16.1	2.1	0.1
2017	31.62	0.7	6.1	26.8	45.1	18.6	2.5	0.1
2018	31.89	0.7	5.5	25.4	44.6	20.8	2.9	0.1
2019	32.16	0.6	5.0	24.0	44.8	22.0	3.5	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연령미상자 제외

Ⅱ-5. 결혼에 대한 인식¹⁾

(단위: %)

연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1998	33.6	39.9	23.8	1.1	0.2	1.4	100.0
2002	25.6	43.5	27.2	1.7	0.2	1.8	100.0
2006	25.7	42.0	27.5	1.8	0.4	2.6	100.0
2008	23.6	44.4	27.7	2.4	0.5	1.4	100.0
2010	21.7	43.0	30.7	2.8	0.5	1.3	100.0
2012	20.3	42.4	33.6	1.5	0.3	1.9	100.0
2014	14.9	41.9	38.9	1.6	0.4	2.2	100.0
2016	12.5	39.3	42.9	2.5	0.6	2.2	100.0
2018	11.1	37.0	46.6	2.5	0.5	2.3	100.0
2020	16.8	34.4	41.4	3.5	0.9	3.0	100.0
남자	19.7	38.5	35.4	2.3	0.7	3.3	100.0
여자	13.9	30.4	47.3	4.6	1.0	2.8	100.0
13~19세	5.6	27.1	54.1	5.1	1.4	6.5	100.0
20~29세	8.1	27.3	52.0	6.1	2.0	4.5	100.0
30~39세	10.4	31.9	49.7	3.8	0.6	3.6	100.0
40~49세	9.8	34.3	49.3	3.3	0.9	2.4	100.0
50~59세	16.0	39.3	39.8	2.6	0.6	1.7	100.0
60세 이상	34.0	38.7	22.5	2.0	0.5	2.2	100.0
초졸 이하	38.8	37.1	19.2	2.0	0.6	2.4	100.0
중졸	32.0	34.2	26.6	2.4	0.6	4.2	100.0
고졸	20.7	33.7	37.0	3.7	1.1	3.8	100.0
대졸 이상	14.3	33.8	43.2	4.1	1.1	3.5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표-6. 이혼에 대한 인식¹⁾

(단위: %)

연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안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반드시 해야한다 ²⁾	잘 모르겠다	합계
1998	19.0	41.3	29.1	7.4	1.2	2.0	100.0
2002	16.9	41.5	32.9	5.9	0.7	2.2	100.0
2006	19.5	40.4	29.4	6.8	-	4.0	100.0
2008	16.8	41.8	31.9	7.1	-	2.4	100.0
2010	15.9	40.7	33.4	7.7	-	2.4	100.0
2012	13.3	35.4	37.8	10.9	-	2.7	100.0
2014	11.3	33.1	39.9	12.0	-	3.7	100.0
2016	9.5	30.0	43.1	14.0	-	3.4	100.0
2018	7.7	25.5	46.3	16.7	-	3.8	100.0
2020	7.4	22.9	48.4	16.8	-	4.6	100.0
남자	8.2	26.6	45.4	14.3	-	5.4	100.0
여자	6.6	19.2	51.2	19.2	-	3.8	100.0
13~19세	2.8	13.0	50.6	20.5	-	13.1	100.0
20~29세	3.1	10.7	55.9	24.2	-	6.1	100.0
30~39세	4.3	18.1	55.4	18.5	-	3.7	100.0
40~49세	3.6	20.4	56.9	16.3	-	2.8	100.0
50~59세	6.6	25.4	49.5	15.6	-	2.9	100.0
60세 이상	16.1	35.2	32.5	11.8	-	4.3	100.0
초졸 이하	17.6	31.4	31.4	11.7	-	7.9	100.0
중졸	9.1	25.2	41.5	16.9	-	7.3	100.0
고졸	6.6	20.9	50.4	17.9	-	4.3	100.0
대졸 이상	4.2	21.2	54.1	17.5	-	3.0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06년 조사부터 항목 삭제

Ⅱ-7. 자녀 필요성 인식¹⁾²⁾

(단위: %)

연도	동의한다 ³⁾	반대한다 ⁴⁾	합계
2018	69.6	30.4	100.0
2020	68.0	32.0	100.0
남성	72.7	27.3	100.0
여성	63.4	36.6	100.0
13-19세	39.4	60.6	100.0
20-29세	47.5	52.5	100.0
30-39세	59.0	41.0	100.0
40-49세	65.4	34.6	100.0
50-59세	77.9	22.1	100.0
60세 이상	87.9	12.1	100.0
초졸 이하	80.9	19.1	100.0
중졸	71.8	28.2	100.0
고졸	67.8	32.2	100.0
대졸 이상	62.8	37.2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률로, 2018년부터 조사함

3) '약간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한 비중임

4) '약간 반대한다'와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을 합한 비중임

Ⅲ-1. (국제비교) 기대수명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그리스	78.6	79.1	79.2	79.3	79.4	79.7	79.9	79.7	80.3
네덜란드	78.2	78.3	78.4	78.7	79.2	79.5	79.9	80.3	80.5
노르웨이	78.8	78.9	79.0	79.6	80.1	80.3	80.6	80.6	80.8
뉴질랜드	78.4	78.7	79.0	79.3	79.6	79.8	80.1	80.3	80.5
덴마크	76.9	77.0	77.1	77.4	77.8	78.3	78.4	78.4	78.8
독일	78.2	78.5	78.5	78.6	79.2	79.4	79.8	80.1	80.2
멕시코	73.3	73.5	73.6	73.8	73.9	74.0	74.1	74.2	74.1
미국	76.7	76.9	77.0	77.1	77.6	77.6	77.8	78.1	78.1
벨기에	77.8	78.1	78.2	78.2	79.0	79.1	79.5	79.9	79.8
스웨덴	79.7	79.9	79.9	80.3	80.6	80.7	81.0	81.1	81.3
스위스	79.9	80.4	80.6	80.6	81.2	81.4	81.7	82.0	82.2
스페인	79.3	79.8	79.9	79.7	80.4	80.3	81.1	81.2	81.5
아이슬란드	79.7	80.8	80.6	81.0	81.1	81.6	81.2	81.5	81.7
아일랜드	76.6	77.2	77.7	78.2	78.6	79.0	79.3	79.7	80.2
영국	77.9	78.2	78.3	78.4	79.0	79.2	79.5	79.7	79.8
오스트리아	78.2	78.7	78.8	78.7	79.3	79.4	80.0	80.3	80.5
이스라엘	78.8	79.3	79.5	79.7	80.2	80.2	80.6	80.6	81.0
이탈리아	79.9	80.2	80.3	80.1	80.9	80.9	81.4	81.5	81.6
일본	81.2	81.5	81.8	81.8	82.1	82.0	82.4	82.6	82.7
체코	75.1	75.3	75.4	75.3	75.8	76.1	76.7	77.0	77.3
칠레	76.8	76.8	77.2	77.2	77.2	77.6	78.0	77.5	78.1
캐나다	79.0	79.2	79.4	79.6	79.8	80.0	80.3	80.4	80.6
터키	71.1	71.5	71.9	72.3	72.7	73.1	73.4	73.7	73.9
포르투갈	76.9	77.2	77.4	77.5	78.4	78.2	79.0	79.2	79.5
폴란드	73.8	74.2	74.6	74.7	74.9	75.1	75.3	75.4	75.7
프랑스	79.2	79.3	79.4	79.3	80.3	80.4	81.0	81.2	81.4
핀란드	77.7	78.2	78.3	78.5	79.0	79.1	79.5	79.6	79.9
한국	76.0	76.5	76.8	77.3	77.8	78.2	78.8	79.2	79.6
헝가리	71.9	72.5	72.5	72.6	73.0	73.0	73.5	73.6	74.2
호주	79.3	79.7	80.0	80.3	80.6	80.9	81.1	81.4	81.5

자료: OECD, 「Health Status, OECD stat」

(단위: 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명
80.4	80.7	80.8	80.7	81.4	81.5	81.1	81.5	81.4	81.9	그리스
80.8	81.0	81.3	81.2	81.4	81.8	81.6	81.6	81.8	81.9	네덜란드
81.0	81.2	81.4	81.5	81.8	82.2	82.4	82.5	82.7	82.8	노르웨이
80.7	80.8	81.0	81.2	81.4	81.5	81.7	81.7	81.9	81.8	뉴질랜드
79.0	79.3	79.9	80.1	80.4	80.8	80.8	80.9	81.2	81.0	덴마크
80.3	80.5	80.5	80.6	80.6	81.2	80.7	81.1	81.1	81.0	독일
74.0	74.1	74.2	74.4	74.6	74.8	75.0	75.2	75.4	75.0 ^p	멕시코
78.5	78.6	78.7	78.8	78.8	78.9	78.7	78.7	78.6	78.7	미국
80.1	80.3	80.7	80.5	80.7	81.4	81.1	81.5	81.6	81.7	벨기에
81.5	81.6	81.9	81.8	82.0	82.3	82.3	82.4	82.5	82.6	스웨덴
82.3	82.6	82.8	82.8	82.9	83.3	83.0	83.7	83.6	83.8	스위스
81.9	82.4	82.6	82.5	83.2	83.3	82.9	83.4	83.4	83.5	스페인
81.8	82.0	82.4	83.0	82.1	82.9	82.5	82.3	82.7	82.9	아이슬란드
80.3	80.8	80.8	80.9	81.0	81.4	81.5	81.8	82.2	82.3	아일랜드
80.4	80.6	81.0	81.0	81.1	81.4	81.0	81.2	81.3	81.3	영국
80.4	80.7	81.1	81.0	81.2	81.6	81.3	81.7	81.7	81.8	오스트리아
81.5	81.7	81.7	81.8	82.1	82.2	82.1	82.5	82.6	82.9	이스라엘
81.7	82.1	82.3	82.3	82.8	83.2	82.6	83.3	83.0	83.4	이탈리아
83.0	82.9	82.7	83.2	83.4	83.7	83.9	84.1	84.2	-	일본
77.4	77.7	78.0	78.2	78.3	78.9	78.7	79.1	79.1	79.1	체코
78.2	78.0	78.7	78.7	79.5	79.7	79.9	80.2	-	80.4	칠레
80.8	81.1	81.3	81.5	81.7	81.8	81.9	82.0	82.0	82.0	캐나다
74.1	74.3	74.6	74.6	78.0	78.0	78.0	78.0	78.1	78.3	터키
79.7	80.0	80.6	80.5	80.8	81.2	81.2	81.2	81.5	81.4	포르투갈
75.8	76.5	76.8	76.9	77.1	77.7	77.6	78.0	77.9	77.7	폴란드
81.5	81.8	82.3	82.1	82.3	82.8	82.4	82.6	82.6	82.8	프랑스
80.1	80.2	80.6	80.7	81.1	81.3	81.6	81.5	81.7	81.8	핀란드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한국
74.4	74.7	75.0	75.2	75.7	75.9	75.7	76.2	75.9	76.2	헝가리
81.6	81.8	82.0	82.1	82.2	82.4	82.5	82.5	82.6	82.8	호주

Ⅲ-2. 사인별 사망률¹⁾

연도	전체								남자			
	악성 신생물 (암)	심장 질환 ²⁾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간질환	알츠 하이머 병	악성 신생물 (암)	심장 질환 ²⁾	뇌혈관 질환	폐렴
1995	110.5	37.0	79.8	4.2	10.8	17.3	29.5	0.0	140.7	38.9	75.5	4.5
2000	122.4	38.7	73.6	8.2	13.7	22.7	23.0	0.3	156.0	40.3	69.7	9.3
2001	123.8	34.3	74.2	6.1	14.6	23.9	22.4	0.6	157.3	35.9	71.3	7.1
2002	130.9	37.3	77.6	5.7	18.0	25.2	22.1	2.1	166.4	38.6	73.0	5.9
2003	131.9	35.7	75.9	5.8	22.7	25.2	20.6	2.8	166.3	36.8	71.3	6.0
2004	133.4	37.1	70.6	7.2	23.9	24.4	19.1	2.6	169.6	38.9	66.9	7.8
2005	134.6	39.6	64.5	8.6	24.8	24.3	17.4	2.3	169.3	40.9	61.3	8.9
2006	134.8	41.5	61.7	9.4	22.0	23.8	15.6	2.5	171.6	41.9	59.3	9.6
2007	138.1	44.1	60.0	9.4	24.9	23.1	15.0	3.6	174.3	44.5	57.0	9.6
2008	139.5	43.4	56.5	11.1	26.0	20.7	14.5	3.8	176.9	43.1	54.7	11.3
2009	140.5	45.0	52.0	12.7	31.0	19.6	13.8	3.8	176.3	45.2	50.8	12.9
2010	144.4	46.9	53.2	14.9	31.2	20.7	13.8	4.1	181.0	46.4	51.5	15.3
2011	142.8	49.8	50.7	17.2	31.7	21.5	13.5	4.8	178.9	48.3	48.6	17.2
2012	146.5	52.5	51.1	20.5	28.1	23.0	13.5	6.6	184.5	51.8	49.2	20.7
2013	149.0	50.2	50.3	21.4	28.5	21.5	13.2	8.5	186.2	49.9	47.8	21.4
2014	150.9	52.4	48.2	23.7	27.3	20.7	13.1	8.7	188.7	52.3	46.6	24.1
2015	150.8	55.6	48.0	28.9	26.5	20.7	13.4	9.9	187.3	55.0	46.3	29.8
2016	153.0	58.2	45.8	32.2	25.6	19.2	13.3	9.4	188.8	56.9	44.2	33.6
2017	153.9	60.2	44.4	37.8	24.3	17.9	13.3	9.8	191.1	58.6	42.7	39.4
2018	154.3	62.4	44.7	45.4	26.6	17.1	13.4	12.0	191.0	60.9	42.7	47.3
2019	158.2	60.4	42.0	45.1	26.9	15.8	12.7	13.1	196.3	59.6	41.5	47.5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사망률 =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2)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단위: 명/10만 명)

남자				여자								연도
자살	당뇨병	간질환	알츠하이머 병	악성 신생물 (암)	심장 질환 ²⁾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간질환	알츠하이머 병	
14.7	17.4	47.8	0.0	80.0	35.0	84.2	3.9	6.8	17.1	11.0	0.0	1995
19.0	22.6	37.0	0.2	88.6	37.1	77.5	7.1	8.4	22.8	8.8	0.4	2000
20.3	23.6	35.7	0.4	90.1	32.7	77.1	5.1	8.7	24.3	8.9	0.8	2001
24.7	24.4	35.4	1.4	95.2	35.9	82.3	5.4	11.2	26.1	8.6	2.9	2002
31.2	24.9	33.2	2.0	97.3	34.5	80.4	5.6	14.1	25.4	7.9	3.6	2003
32.6	24.2	31.0	1.6	97.1	35.2	74.4	6.6	15.0	24.6	7.2	3.5	2004
33.1	24.5	27.6	1.3	99.7	38.4	67.7	8.2	16.6	24.2	7.1	3.3	2005
29.7	23.8	25.1	1.6	97.9	41.0	64.0	9.2	14.2	23.8	6.0	3.5	2006
31.6	23.2	24.0	2.3	101.8	43.6	63.1	9.2	18.2	22.9	6.0	4.9	2007
33.4	20.9	23.3	2.4	101.9	43.6	58.3	10.8	18.7	20.5	5.7	5.3	2008
39.9	19.9	21.9	2.4	104.6	44.8	53.2	12.6	22.1	19.4	5.7	5.1	2009
41.4	21.0	21.7	2.6	107.8	47.4	54.8	14.5	21.0	20.5	5.9	5.7	2010
43.3	22.1	20.9	3.0	106.7	51.3	52.8	17.1	20.1	20.9	6.0	6.6	2011
38.2	23.2	21.3	3.8	108.5	53.2	53.1	20.3	18.0	22.7	5.7	9.5	2012
39.8	21.3	20.5	5.2	111.8	50.4	52.8	21.4	17.3	21.8	5.9	11.9	2013
38.4	20.8	19.9	5.1	113.2	52.4	49.9	23.2	16.1	20.7	6.3	12.2	2014
37.5	20.6	20.4	5.4	114.4	56.2	49.7	28.0	15.5	20.8	6.5	14.3	2015
36.2	19.2	20.2	5.5	117.2	59.4	47.4	30.8	15.0	19.2	6.4	13.4	2016
34.9	17.6	20.0	5.3	116.9	61.8	46.1	36.3	13.8	18.2	6.5	14.3	2017
38.5	17.3	19.9	6.9	117.7	63.9	46.7	43.5	14.8	17.0	6.8	17.1	2018
38.0	16.1	18.6	7.5	120.2	61.3	42.6	42.8	15.8	15.5	6.7	18.7	2019

Ⅲ-3. 기대수명

(단위: 년)

연도	기대수명 ¹⁾			건강수명 ²⁾
	전체	남자	여자	
1970	62.3	58.7	65.8	-
1975	64.2	60.3	68.2	-
1980	66.1	61.9	70.4	-
1985	68.9	64.6	73.2	-
1990	71.7	67.5	75.9	-
1995	73.8	69.7	77.9	-
2000	76.0	72.3	79.7	-
2001	76.5	72.9	80.1	-
2002	76.8	73.4	80.3	-
2003	77.3	73.8	80.8	-
2004	77.8	74.3	81.2	-
2005	78.2	74.9	81.6	-
2006	78.8	75.4	82.1	-
2007	79.2	75.9	82.5	-
2008	79.6	76.2	83.0	-
2009	80.0	76.7	83.4	-
2010	80.2	76.8	83.6	-
2011	80.6	77.3	84.0	-
2012	80.9	77.6	84.2	65.7
2013	81.4	78.1	84.6	-
2014	81.8	78.6	85.0	65.2
2015	82.1	79.0	85.2	-
2016	82.4	79.3	85.4	64.9
2017	82.7	79.7	85.7	-
2018	82.7	79.7	85.7	64.4
2019	83.3	80.3	86.3	-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 1)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2)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임. 2012년 최초 작성하였으며, 2년 주기로 공표함

Ⅲ-4. 스트레스 인지율¹⁾²⁾³⁾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998	36.6	36.7	36.4	32.8	38.8	38.6	39.2	34.9	31.3
2001	34.6	34.6	34.6	33.7	37.0	36.6	33.3	32.0	29.1
2005	35.1	35.0	35.2	33.0	36.4	35.9	36.3	38.5	28.6
2007	27.1	23.7	30.3	28.0	28.0	28.4	22.9	27.1	26.3
2008	28.9	26.8	31.0	32.6	33.6	27.4	25.8	21.7	26.1
2009	31.0	28.6	33.3	34.6	36.4	30.4	27.3	26.9	23.1
2010	28.2	25.1	31.4	32.1	32.9	27.4	25.7	22.4	22.7
2011	27.9	25.4	30.4	34.9	33.1	27.3	22.2	20.6	23.3
2012	27.0	23.5	30.3	34.0	30.1	28.4	21.9	19.1	21.3
2013	23.8	21.8	25.7	26.5	27.7	25.0	18.6	19.9	22.1
2014	25.5	23.6	27.2	28.9	34.0	26.9	21.8	15.6	17.8
2015	29.6	28.6	30.5	36.9	38.7	28.9	26.4	20.0	18.6
2016	27.9	27.0	28.8	32.8	37.7	28.4	24.5	20.7	16.6
2017	29.1	27.5	30.7	37.9	36.0	27.5	26.5	20.9	21.4
2018	27.3	24.9	29.6	35.7	34.3	28.1	22.8	21.3	16.8
2019	28.6	27.4	29.8	35.1	38.8	31.1	25.0	19.2	17.5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1998년은 만 20세 이상, 2001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와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는 응답자의 비중

3) 1998, 2001, 2005년은 단기조사, 2007년부터 조사 주기 1년으로 변경

Ⅲ-5. 우울감 경험률¹⁾²⁾³⁾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05	15.4	11.3	19.4	12.4	12.5	14.8	18.0	22.8	21.2
2007	12.7	8.1	17.1	9.7	9.3	11.7	13.8	20.4	20.2
2008	14.5	10.1	18.9	12.4	10.8	13.4	17.4	19.2	21.6
2009	15.0	10.1	19.8	13.3	11.9	13.4	17.8	17.9	21.5
2010	12.8	8.1	17.4	11.8	9.1	11.0	16.9	15.5	16.9
2011	13.4	10.2	16.5	13.6	11.6	11.4	15.2	15.0	15.9
2012	12.9	9.1	16.5	9.3	10.8	12.9	15.0	15.1	17.9
2013	10.7	6.8	14.4	10.4	7.6	8.3	13.1	12.4	16.1
2015	13.3	9.7	16.8	14.9	10.3	10.8	13.1	18.2	15.2
2017	11.6	9.4	13.9	13.5	9.1	7.8	11.0	14.7	17.3
2019	10.5	8.2	12.9	13.0	7.4	8.9	10.6	11.0	13.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

3)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였으나, 2013년부터 2년주기 순환조사 문항으로 전환

Ⅲ-6. 주관적 건강 상태¹⁾²⁾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42.9	49.6	36.5	66.2	-	58.3	48.1	39.4	29.1	19.9
2006	44.6	50.5	39.0	69.6	-	61.3	51.4	42.2	31.7	20.6
2008	51.6	56.7	46.7	72.3	-	70.0	60.6	51.3	41.5	23.0
2010	46.8	51.1	42.6	70.1	-	63.9	52.8	45.8	38.6	23.6
2012	45.3	49.6	41.2	-	73.0	62.0	50.4	43.6	36.9	21.6
2014	48.7	52.7	44.7	-	74.7	67.1	56.2	47.3	41.2	23.9
2016	47.1	51.3	43.1	-	74.8	63.9	54.2	46.2	40.3	25.4
2018	48.8	52.0	45.7	-	75.7	67.2	58.4	48.2	42.2	27.2
2020	50.4	54.7	46.1	-	80.3	69.5	60.8	52.3	43.5	28.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신의 전반적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

Ⅲ-7. 현재 흡연율¹⁾²⁾³⁾

(단위: %)

연도	현재흡연율 ⁴⁾									가정실내 간접흡연 ⁵⁾ 노출률	직장실내 간접흡연 ⁶⁾ 노출률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1998	35.2	67.0	6.6	35.2	37.7	36.7	34.1	32.8	26.6	-	-
2001	30.2	61.3	5.3	30.7	32.6	33.6	27.1	25.0	23.6	-	-
2005	28.8	52.3	5.7	31.6	33.0	30.9	27.2	19.6	15.9	18.3	38.6
2007	25.0	45.1	5.3	27.8	32.0	27.0	19.3	17.0	12.8	14.4	46.8
2008	27.3	47.7	7.3	33.9	32.4	27.7	22.5	18.8	16.0	15.3	45.5
2009	26.6	46.7	6.9	32.4	32.8	27.5	22.9	18.4	13.2	14.5	46.3
2010	26.9	48.1	6.1	27.8	35.0	30.5	25.1	16.1	12.6	14.4	49.1
2011	26.3	46.8	6.5	28.3	36.6	25.7	24.5	17.5	14.3	12.0	44.3
2012	25.0	43.3	7.4	28.0	32.5	27.7	24.6	13.4	10.9	11.3	45.3
2013	23.2	41.4	5.7	24.1	30.7	26.9	22.0	17.4	8.0	10.6	48.3
2014	23.3	42.3	5.1	22.5	30.0	29.2	20.6	18.2	10.1	10.3	40.7
2015	21.6	38.3	5.3	23.7	27.7	25.4	20.8	14.1	9.0	8.2	27.7
2016	22.6	39.4	6.1	25.4	30.4	25.0	22.7	14.6	9.1	6.1	17.8
2017	21.1	37.0	5.2	24.4	25.5	26.3	20.2	14.4	8.5	4.7	13.4
2018	21.1	35.8	6.5	23.8	24.7	26.7	22.8	14.9	6.6	3.9	11.9
2019	20.2	34.7	5.9	24.8	24.0	22.4	20.3	16.8	8.4	4.4	14.2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1998, 2001, 2005년은 단기조사, 2007년부터 조사 주기 1년으로 변경

3)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

4) '19년부터 일반담배(궐련)로 문향이 변경되어 연도비교 시 주의

5)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의 비율('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6) 현재 일을 하는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비율('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Ⅲ-8. 월간 음주율¹⁾²⁾

(단위: %)

연도	월간음주율 ³⁾									고위험 음주율 ⁴⁾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2005	54.6	73.3	36.2	65.5	60.0	57.7	50.1	37.7	25.7	11.6
2007	56.7	73.9	39.9	68.9	62.1	60.4	56.0	38.3	24.3	12.3
2008	58.7	74.8	42.9	69.9	65.5	64.2	54.2	41.6	28.3	15.2
2009	58.3	75.7	41.2	69.6	64.5	64.0	54.5	43.7	27.7	13.2
2010	59.3	77.7	41.3	67.3	67.5	65.5	57.3	43.9	29.2	13.5
2011	59.2	77.5	41.4	73.0	67.5	59.5	57.8	46.6	28.7	13.6
2012	56.6	73.4	40.4	66.6	63.9	59.4	55.3	42.6	32.8	13.4
2013	58.3	74.8	42.3	72.4	67.4	60.7	56.7	42.4	28.0	11.9
2014	58.1	73.7	43.2	69.1	66.4	63.9	54.0	41.9	35.4	13.1
2015	58.7	74.4	43.3	67.4	65.5	66.1	57.9	46.6	31.3	12.7
2016	59.4	74.5	44.5	70.8	69.6	64.6	58.0	46.5	30.1	13.2
2017	59.2	73.1	45.4	70.5	69.0	66.3	56.2	47.9	31.4	13.4
2018	57.8	70.0	45.7	64.6	67.9	66.6	56.5	49.6	29.1	13.8
2019	57.7	72.4	43.2	68.3	68.6	62.8	56.2	48.7	31.7	12.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 주기 1년으로 변경

3)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4)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

Ⅲ-9.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¹⁾

(단위: %)

연도	신체활동실천율 ²⁾³⁾									걷기 실천율 ⁴⁾⁵⁾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2005	-	-	-	-	-	-	-	-	-	60.7
2007	-	-	-	-	-	-	-	-	-	45.8
2008	-	-	-	-	-	-	-	-	-	46.9
2009	-	-	-	-	-	-	-	-	-	46.0
2010	-	-	-	-	-	-	-	-	-	40.9
2011	-	-	-	-	-	-	-	-	-	37.6
2012	-	-	-	-	-	-	-	-	-	38.7
2013	-	-	-	-	-	-	-	-	-	37.4
2014	57.1	61.6	52.8	72.3	58.0	57.2	56.3	47.8	37.1	41.3
2015	51.0	54.7	47.5	66.7	51.2	54.5	46.2	45.7	29.8	40.6
2016	47.8	51.3	44.3	61.9	49.1	47.9	45.4	45.8	28.5	39.1
2017	46.4	49.1	43.8	65.6	47.5	47.5	44.4	35.8	27.2	38.6
2018	44.9	48.7	41.1	63.8	50.7	45.8	37.9	38.7	23.4	39.3
2019	45.6	50.3	41.0	62.1	49.2	45.3	41.4	39.3	30.4	42.8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4년부터 조사

3) 1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사람의 비율

4)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 주기 1년으로 변경

5)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

Ⅲ-10 비만율¹⁾²⁾³⁾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998	25.8	25.7	25.9	15.2	24.6	31.6	35.6	30.2	22.2
2001	30.3	32.0	29.1	17.3	25.6	35.8	37.2	38.3	29.5
2005	31.4	34.9	27.9	19.3	29.0	35.2	42.1	39.6	31.5
2007	32.1	36.6	27.8	22.0	27.8	32.5	42.4	46.2	31.7
2008	31.0	35.6	26.5	23.0	28.0	34.4	37.4	37.2	29.3
2009	31.9	36.2	27.6	22.1	29.5	34.7	40.0	37.0	31.1
2010	31.4	36.5	26.4	20.5	31.0	34.1	35.3	40.7	30.6
2011	31.9	35.2	28.6	21.7	31.5	35.4	35.7	38.8	29.7
2012	32.8	36.1	29.7	22.4	32.5	39.2	34.1	38.5	31.1
2013	32.5	37.6	27.5	22.4	33.2	33.7	37.3	36.3	33.8
2014	31.5	37.7	25.3	23.9	31.8	31.1	35.4	36.8	32.1
2015	34.1	39.6	28.8	23.5	32.9	35.6	38.3	40.1	37.4
2016	35.5	41.8	29.2	27.2	34.2	39.0	36.1	40.2	37.5
2017	34.8	41.1	28.4	29.4	33.4	35.3	38.0	38.0	34.7
2018	35.0	41.9	28.1	26.9	37.8	36.8	35.2	36.8	38.0
2019	34.4	41.4	27.3	27.6	34.9	35.6	36.5	37.3	34.3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체질량지수가 25kg/m² 이상인 사람의 비율

3) 1998, 2001, 2005년은 단기조사, 2007년부터 조사 주기 1년으로 변경

Ⅲ-11. 연간 미충족 의료율¹⁾²⁾

(단위: %)

연도	병·의원	치과
2016	9.4	32.6
2017	10.1	30.8
2018	8.8	31.9
2019	6.6	30.9
남자	5.5	31.0
여자	7.7	30.9
19-29세	5.7	25.0
30-39세	6.2	28.8
40-49세	6.4	33.0
50-59세	6.5	33.9
60-69세	6.5	32.1
70세 이상	9.2	31.9
하층 ³⁾	10.3	38.1
중하층 ³⁾	6.7	35.1
중층 ³⁾	6.3	31.2
중상층 ³⁾	5.1	25.2
상층 ³⁾	5.1	26.0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및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

3) 월 가구 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5분위로 분류

IV-1. 교원 1인당 학생 수¹⁾²⁾³⁾

(단위: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19.5	28.7	20.1	19.9	20.9	18.2	-	-	-	-
2005	17.5	25.1	19.4	15.1	15.9	13.5	-	-	-	-
2006	17.0	24.0	19.4	15.1	15.8	13.5	-	-	-	-
2007	16.2	22.9	19.1	15.3	16.1	13.5	-	-	-	-
2008	15.5	21.3	18.8	15.5	16.4	13.4	-	-	-	-
2009	15.2	19.8	18.4	15.7	16.7	13.3	-	-	-	-
2010	14.8	18.7	18.2	15.5	16.5	13.1	-	-	-	-
2011	14.6	17.3	17.3	14.8	-	-	15.8	11.0	12.5	15.2
2012	14.5	16.3	16.7	14.4	-	-	15.4	10.3	12.1	14.6
2013	14.3	15.3	16.0	14.2	-	-	15.2	10.0	12.0	14.3
2014	13.4	14.9	15.2	13.7	-	-	14.6	9.7	11.6	13.9
2015	13.4	14.9	14.3	13.2	-	-	14.1	9.3	11.4	13.7
2016	13.3	14.6	13.3	12.9	-	-	13.7	9.1	11.0	13.5
2017	12.9	14.5	12.7	12.4	-	-	13.1	8.9	10.6	13.2
2018	12.3	14.5	12.1	11.5	-	-	12.1	8.6	9.8	12.4
2019	11.9	14.6	11.7	10.6	-	-	11.1	8.3	9.1	11.5
2020	11.4	14.2	11.8	10.1	-	-	10.7	8.0	8.4	1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 ÷ 교원수

2) 교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포함됨

3) 기간제 교원 및 휴직교원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함

Ⅳ-2. 학급당 학생 수¹⁾

(단위: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26.3	35.8	38.0	42.7	44.1	40.3	-	-	-	-
2005	24.2	31.8	35.3	32.7	33.9	30.0	-	-	-	-
2006	23.7	30.9	35.3	32.5	33.7	29.9	-	-	-	-
2007	22.7	30.2	35.0	33.1	34.3	30.1	-	-	-	-
2008	21.9	29.2	34.7	33.7	35.1	30.0	-	-	-	-
2009	21.6	27.8	34.4	34.2	35.9	29.8	-	-	-	-
2010	21.0	26.6	33.8	33.7	35.5	29.1	-	-	-	-
2011	20.9	25.5	33.0	33.1	-	-	34.7	28.4	28.5	33.5
2012	21.6	24.3	32.4	32.5	-	-	34.2	26.7	28.0	32.3
2013	21.5	23.2	31.7	31.9	-	-	33.6	25.8	27.6	31.5
2014	19.7	22.8	30.5	30.9	-	-	32.4	25.0	26.9	30.7
2015	20.0	22.6	28.9	30.0	-	-	31.3	24.4	26.4	30.3
2016	19.7	22.4	27.4	29.3	-	-	30.6	24.0	25.7	30.2
2017	19.0	22.3	26.4	28.2	-	-	29.3	23.7	24.7	29.6
2018	17.9	22.3	25.7	26.2	-	-	27.1	23.1	23.0	28.1
2019	17.0	22.2	25.1	24.5	-	-	25.2	22.8	21.3	26.5
2020	16.7	21.8	25.2	23.4	-	-	24.2	22.3	19.8	25.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주: 1) 학급당 학생수 = 학생수 ÷ 학급수

IV-3. 평생교육 참여율¹⁾

(단위: %)

연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²⁾	비형식교육 ³⁾
2007	29.8	5.7	26.4
2008	26.4	4.1	23.9
2009	28.0	4.3	25.3
2010	30.5	3.9	28.2
2011	32.4	4.2	30.1
2012	35.6	3.5	33.1
2013	30.2	3.8	28.0
2014	36.8	3.1	35.2
2015	40.6	3.5	39.1
2016	35.7	2.8	34.2
2017	34.4	1.9	33.4
2018	41.2	2.3	40.4
2019	41.7	1.5	40.9
2020	40.0	1.4	39.3
남자	39.7	1.6	38.9
여자	40.3	1.1	39.7
25~34세	50.2	4.9	47.8
35~44세	46.4	0.9	46.1
45~54세	39.9	0.7	39.4
55~64세	33.9	0.4	33.6
65~79세	29.5	0.1	29.4
중졸 이하	28.4	0.2	28.1
고졸	31.4	1.3	30.8
대졸 이상	51.5	1.8	50.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2016년까지 25~64세, 2017년부터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함

3)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함

IV-4.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¹⁾²⁾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5 ~34세	35 ~44세	45 ~54세	55 ~64세	65 ~79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2007	10.5	14.6	6.5	12.9	11.2	8.7	7.9	-	6.5	6.6	15.9
2008	11.7	14.0	9.4	14.8	12.4	9.4	8.1	-	6.3	9.0	16.0
2009	14.3	16.7	11.9	17.7	15.3	11.6	10.4	-	4.9	9.9	21.2
2010	15.1	17.4	12.9	19.7	18.0	11.5	6.9	-	8.4	11.3	20.6
2011	16.0	15.2	16.9	23.6	16.5	12.1	10.4	-	8.0	12.0	22.8
2012	15.4	17.8	13.1	20.0	17.7	13.8	7.5	-	6.7	12.1	21.0
2013	16.4	19.8	13.0	21.2	18.3	13.2	11.2	-	8.9	13.3	21.5
2014	25.4	31.0	19.7	31.1	27.6	23.2	16.6	-	13.7	19.1	35.1
2015	27.7	33.6	21.8	34.1	29.8	25.7	18.0	-	14.3	21.5	36.3
2016	17.3	21.8	12.6	25.5	18.6	15.5	10.4	-	7.5	12.5	24.0
2017	14.1	18.4	9.7	22.7	19.0	14.6	8.6	3.0	4.4	10.0	21.8
2018	18.8	23.7	13.8	28.6	22.8	21.2	13.4	5.5	6.5	14.2	27.9
2019	18.7	23.8	13.6	29.8	25.0	20.0	12.4	4.9	5.7	14.2	27.5
2020	20.1	25.4	14.8	29.6	28.0	21.0	15.0	6.0	8.5	13.4	3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2016년까지 25~64세, 2017년부터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비형식교육 참여의 주된 목적에서 취업·이직·창업에 도움,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일자리 유지)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IV-5. 평생교육 자부담 학습비¹⁾

(단위: 만 원)

연도	전체	형식교육 ²⁾	비형식교육 ³⁾
2008	101	454	34
2009	100	436	36
2010	81	405	33
2011	75	501	27
2012	77	389	42
2013	84	427	33
2014	66	401	33
2015	56	331	28
2016	58	409	28
2017	49	345	31
2018	52	396	30
2019	48	429	33
2020	36	349	24
남자	36	370	22
여자	36	318	27
25~34세	76	417	37
35~44세	24	247	19
45~54세	28	163	25
55~64세	27	351	23
65~79세	14	-	14
중졸 이하	7	18	7
고졸	40	393	25
대졸 이상	39	336	2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2016년까지 25~64세, 2017년부터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함

3)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함

IV-6. 평생교육 성과 인식¹⁾²⁾

(단위: 점)

연도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한글·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	취업·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	성과급, 연봉등 소득증대	고용안정	사회참여 (자원봉사 및 지역· 사회적 활동)	친목도모 증진
2017	67.8	78.7	75.5	58.7	68.8	51.8	60.6	59.6	67.2
2018	70.6	78.9	75.1	59.6	69.2	54.6	64.2	64.8	69.9
2019	70.4	77.7	71.6	60.4	68.2	53.2	63.7	59.9	67.4
2020	69.8	79.3	75.3	67.8	74.8	61.0	70.3	64.0	69.0
남자	66.1	76.4	75.4	71.0	79.1	65.1	74.7	63.6	66.4
여자	73.5	82.3	75.2	63.6	69.1	55.5	64.3	64.4	71.5
25~34세	66.8	77.9	75.6	73.5	77.4	64.9	72.7	61.7	63.8
35~44세	66.3	77.3	77.1	71.0	77.9	64.0	74.1	62.0	65.6
45~54세	70.8	79.1	74.0	67.4	75.1	61.7	71.0	64.9	69.6
55~64세	71.5	79.5	74.4	63.2	72.6	55.7	66.4	66.1	72.5
65~79세	77.7	85.9	74.8	49.3	60.7	48.5	55.9	67.4	78.2
중졸 이하	74.0	82.5	72.6	54.2	66.1	49.5	60.8	65.1	75.2
고졸	72.5	79.4	73.7	63.9	71.7	56.6	67.1	65.3	71.3
대졸 이상	67.6	78.7	76.6	71.0	77.3	64.3	72.8	63.1	66.6
취업	68.0	77.5	75.2	69.4	77.6	63.3	73.2	63.9	67.3
실업	67.1	79.5	76.1	71.2	68.2	53.1	62.5	59.1	63.1
비경제활동	78.4	86.8	75.4	53.1	50.1	42.0	43.7	66.0	77.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전혀 도움이 안 된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도움이 된다'를 5점으로 한 응답점수의 100점 환산 평균점수임

IV-7. 고등교육 이수율¹⁾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1995	18.1	23.9	12.2
2000	23.8	29.8	17.8
2001	24.8	30.5	19.0
2002	25.9	31.5	20.2
2003	29.4	35.2	23.5
2004	30.4	36.1	24.6
2005	31.6	36.9	26.2
2006	33.1	38.0	28.0
2007	34.8	39.6	29.9
2008	36.7	41.3	31.9
2009	38.5	43.0	33.8
2010	39.0	43.2	34.8
2011	40.4	44.8	35.9
2012	41.7	45.9	37.5
2013	43.1	47.1	39.0
2014	44.5	48.3	40.6
2015	45.4	49.0	41.6
2016	46.6	50.2	43.0
2017	47.7	51.0	44.4
2018	49.0	51.8	46.2
2019	50.0	52.3	47.6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주: 1)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임

IV-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

연도	취업률 ¹⁾²⁾								진학률 ³⁾							
	전체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전체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2013	67.4	67.9	64.8	76.4	73.2	53.9	77.4	78.5	6.6	4.3	8.4	0.9	3.7	12.2	1.1	6.6
2014	67.0	67.8	64.5	79.0	70.2	52.1	76.0	77.5	6.7	4.5	8.5	0.7	3.6	15.2	1.1	6.6
2015	67.5	69.5	64.4	85.7	69.0	51.6	83.2	77.8	6.7	5.1	7.9	0.5	3.9	14.2	1.2	6.8
2016	67.7	70.6	64.3	84.5	67.1	55.4	82.8	78.3	6.3	5.0	7.3	0.3	3.2	11.7	1.1	6.4
2017	66.2	69.8	62.6	72.9	67.6	56.4	79.5	77.7	6.2	5.3	6.8	1.1	3.0	10.6	1.5	6.2
2018	67.7	71.1	64.2	68.8	70.1	55.8	81.0	78.9	6.2	5.8	6.7	0.9	1.8	9.5	1.5	5.8
2019	67.1	70.9	63.3	63.8	71.5	55.8	80.0	79.9	6.5	6.5	6.8	0.9	1.2	9.9	1.7	6.2
남성	69.0	69.9	66.0	72.7	71.0	58.3	79.8	84.7	6.8	5.6	7.6	0.6	1.2	10.4	1.3	6.9
여성	65.2	71.6	60.6	60.4	72.0	54.7	81.9	73.8	6.2	7.3	5.9	1.0	1.1	9.7	5.4	5.4
인문계열	56.2	56.7	55.6	-	56.1	-	-	62.4	8.1	10.6	7.8	-	1.8	27.8	-	8.4
사회계열	63.4	65.6	61.4	-	70.3	47.6	85.7	80.4	4.0	7.3	2.5	-	0.8	2.0	3.5	3.7
교육계열	62.7	82.4	47.3	63.8	75.5	-	-	77.1	4.1	6.1	3.7	0.9	2.1	-	-	3.5
공학계열	69.9	69.7	67.0	-	71.4	100.0	79.8	84.5	7.5	5.4	9.1	-	1.8	14.3	1.4	7.8
자연계열	63.8	66.9	59.7	-	75.0	-	87.7	77.9	12.9	6.1	16.2	-	1.1	-	3.1	8.3
의약계열	83.7	82.0	84.4	-	85.4	-	84.1	89.9	3.0	3.7	2.0	-	0.0	-	4.3	3.5
예체능계열	64.5	66.7	62.5	-	67.9	56.0	79.4	66.4	7.3	10.0	5.9	-	1.5	10.0	3.2	4.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주: 1)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2)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3)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교내취업자 TLO + 해외취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1인 창(사)업자 + 프리랜서

4)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IV-9. 전공직업 일치도¹⁾²⁾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남 자	여 자	특성화 (구 전문계) 고졸	대학 (4년제 미만) 졸	대학교 (4년제 이상) 졸	대학교 (4년제 이상) 졸	대학원 이상 졸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 직	기능 노무직
2000	29.3	30.0	28.5	17.4	35.8	45.3	-	-	56.6	32.8	10.9	20.8	16.6
2004	30.0	30.4	29.4	14.9	34.8	44.2	-	-	58.4	31.5	10.2	21.6	16.3
2008	37.7	38.5	36.5	20.8	37.6	-	47.3	75.9	61.1	38.3	20.0	24.2	25.0
2010	36.3	35.8	37.1	18.4	35.2	-	45.7	76.7	62.8	36.7	17.5	20.0	22.4
2012	38.3	37.4	39.4	21.5	35.9	-	44.1	72.6	66.7	37.8	19.7	20.6	22.2
2014	36.9	37.0	36.7	18.7	35.0	-	43.0	76.7	63.1	36.7	17.3	19.8	22.5
2016	36.3	35.4	37.4	21.1	32.6	-	42.3	71.0	62.3	35.7	17.0	24.3	22.1
2018	36.6	37.0	36.2	19.5	32.9	-	41.8	73.7	64.6	32.8	19.4	22.0	23.2
2020	37.2	37.1	37.5	22.3	33.4	-	41.8	72.7	65.1	34.7	19.8	26.8	22.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거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자신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편이다'와 '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V-1. 고용률

(단위: %)

연도	고용률 ¹⁾									경제활동참가율 ²⁾								
	전체	성별		연령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58.5	70.8	47.0	10.3	60.2	72.5	76.5	66.5	37.6	61.2	74.4	48.8	12.0	65.0	75.2	79.2	68.8	38.2
2001	59.0	71.1	47.7	10.0	60.3	72.7	76.6	66.9	38.0	61.5	74.4	49.4	11.7	65.1	75.1	79.0	68.8	38.4
2002	60.1	72.3	48.5	9.3	61.4	73.0	77.5	68.2	38.7	62.1	75.1	49.9	10.6	65.8	75.2	79.0	69.6	39.2
2003	59.4	72.1	47.4	8.6	60.3	72.7	76.9	67.6	36.2	61.6	74.9	49.1	9.8	65.3	74.9	78.7	69.1	36.6
2004	60.0	72.3	48.5	8.4	61.2	72.7	77.4	68.0	37.3	62.3	75.2	50.1	9.8	66.5	75.0	79.2	69.6	37.8
2005	59.9	71.9	48.6	8.0	61.2	72.4	77.2	68.2	37.1	62.2	74.8	50.3	9.1	66.3	74.9	79.2	69.9	37.6
2006	60.0	71.6	49.0	6.7	60.2	73.3	77.8	68.6	37.5	62.2	74.5	50.5	7.5	65.3	75.5	79.6	70.1	38.0
2007	60.1	71.7	49.1	6.6	60.1	73.0	78.4	69.6	38.1	62.2	74.4	50.5	7.2	64.7	75.4	80.0	71.1	38.6
2008	59.8	71.2	48.9	5.9	59.4	73.0	78.4	70.5	37.3	61.7	73.8	50.2	6.5	63.8	75.3	80.1	71.9	37.8
2009	58.8	70.2	47.8	5.4	58.4	71.4	77.6	70.2	36.9	61.0	73.2	49.3	6.2	63.3	74.0	79.6	72.0	37.5
2010	58.9	70.3	47.9	6.1	58.4	72.0	77.9	70.9	36.2	61.1	73.2	49.6	7.0	63.3	74.7	79.8	72.7	37.2
2011	59.3	70.7	48.3	6.8	58.4	72.2	78.4	71.6	36.8	61.3	73.4	49.8	7.6	63.1	74.7	80.1	73.1	37.7
2012	59.6	71.1	48.6	7.0	58.2	72.8	78.3	72.3	37.7	61.6	73.5	50.1	7.7	62.8	75.1	80.0	73.8	38.6
2013	59.8	71.1	48.9	6.9	56.8	73.3	78.4	73.2	38.4	61.7	73.5	50.3	7.7	61.7	75.5	80.0	74.6	39.2
2014	60.5	71.7	49.7	7.7	57.4	74.1	79.1	74.2	39.0	62.7	74.4	51.5	8.5	63.1	76.4	80.9	75.9	40.0
2015	60.5	71.4	50.1	7.8	57.9	74.4	79.1	74.4	39.0	62.8	74.1	51.9	8.8	63.6	76.7	81.0	76.2	40.1
2016	60.6	71.2	50.3	8.0	58.2	74.7	79.3	74.3	39.5	62.9	74.0	52.2	8.8	64.5	77.1	81.0	76.1	40.5
2017	60.8	71.2	50.8	8.4	57.6	75.3	79.4	75.3	39.9	63.2	74.1	52.7	9.2	63.9	77.8	81.1	77.0	41.1
2018	60.7	70.8	50.9	7.4	57.9	75.7	79.0	75.2	40.1	63.1	73.7	52.9	8.2	64.0	78.3	81.0	77.1	41.4
2019	60.9	70.7	51.6	7.6	58.2	76.0	78.4	75.4	41.5	63.3	73.5	53.5	8.3	63.9	78.6	80.2	77.4	43.0
2020	60.1	69.8	50.7	6.6	55.7	75.3	77.1	74.3	42.4	62.5	72.6	52.8	7.2	61.2	78.0	79.1	76.6	4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V-2. 실업률

(단위: %)

연도	실업률 ¹⁾									고용보조지표 1 ²⁾		고용보조지표 2 ³⁾		고용보조지표 3 ⁴⁾	
	전체	성별		연령별						전체	15~29세	전체	15~29세	전체	15~29세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4.4	5.0	3.6	14.5	7.5	3.6	3.5	3.2	1.5	-	-	-	-	-	-
2001	4.0	4.5	3.3	14.4	7.3	3.2	3.0	2.8	1.2	-	-	-	-	-	-
2002	3.3	3.6	2.7	12.0	6.6	2.9	2.0	1.9	1.1	-	-	-	-	-	-
2003	3.6	3.8	3.3	13.0	7.7	3.0	2.2	2.2	1.0	-	-	-	-	-	-
2004	3.7	3.9	3.4	14.0	7.8	3.1	2.3	2.3	1.2	-	-	-	-	-	-
2005	3.7	4.0	3.4	12.3	7.7	3.3	2.5	2.5	1.3	-	-	-	-	-	-
2006	3.5	3.9	3.0	10.5	7.8	3.0	2.3	2.1	1.4	-	-	-	-	-	-
2007	3.2	3.7	2.7	9.3	7.1	3.2	2.0	2.1	1.4	-	-	-	-	-	-
2008	3.2	3.6	2.6	10.2	7.0	3.1	2.1	2.0	1.2	-	-	-	-	-	-
2009	3.6	4.1	3.0	12.3	7.8	3.6	2.4	2.5	1.6	-	-	-	-	-	-
2010	3.7	4.0	3.3	11.9	7.7	3.5	2.5	2.5	2.8	-	-	-	-	-	-
2011	3.4	3.6	3.1	10.8	7.4	3.4	2.1	2.1	2.6	-	-	-	-	-	-
2012	3.2	3.4	3.0	8.9	7.4	3.0	2.0	2.1	2.4	-	-	-	-	-	-
2013	3.1	3.3	2.8	10.3	7.8	3.0	2.0	1.9	1.8	-	-	-	-	-	-
2014	3.5	3.5	3.5	9.3	9.0	3.1	2.2	2.2	2.3	-	-	-	-	-	-
2015	3.6	3.6	3.5	10.6	9.0	3.1	2.3	2.4	2.5	5.5	10.7	9.4	20.6	11.2	21.9
2016	3.7	3.8	3.6	10.0	9.8	3.1	2.1	2.3	2.7	5.5	11.6	8.9	20.5	10.7	22.1
2017	3.7	3.8	3.5	8.7	9.9	3.3	2.1	2.2	2.9	5.7	11.7	9.1	21.1	11.0	22.7
2018	3.8	3.9	3.7	9.3	9.5	3.4	2.5	2.5	3.1	6.1	11.4	9.5	21.0	11.6	22.8
2019	3.8	3.9	3.6	8.6	8.9	3.3	2.3	2.5	3.4	6.4	11.3	9.3	20.9	11.8	22.9
2020	4.0	3.9	4.0	8.7	9.0	3.5	2.5	2.9	3.6	7.8	12.6	10.0	22.0	13.6	25.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2) 고용보조지표 1 = {(실업자수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보조지표 2 = {(실업자수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4) 고용보조지표 3 = {(실업자수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수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V-3. 산업별 취업자 구성

(단위: %)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합계
2013	6.0	17.1	7.0	12.2	22.4	35.3	100.0
2014	5.6	17.3	7.1	11.8	23.0	35.3	100.0
2015	5.1	17.6	7.1	11.8	23.0	35.4	100.0
2016	4.8	17.4	7.1	11.7	22.9	36.1	100.0
2017	4.8	17.2	7.4	11.4	22.8	36.4	100.0
2018	5.0	16.9	7.6	11.8	22.2	36.5	100.0
2019	5.1	16.4	7.4	11.7	22.0	37.4	100.0
2020	5.4	16.3	7.5	11.8	21.0	38.0	100.0
남성	5.7	20.5	11.8	15.2	17.7	29.2	100.0
여성	4.9	10.8	1.8	7.4	25.4	49.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V-4. 직업별 취업자 구성

(단위: %)

연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합계
2013	1.6	19.6	16.9	10.5	12.2	5.6	8.9	12.0	12.7	100.0
2014	1.6	19.8	16.9	10.7	12.2	5.2	8.8	12.0	12.7	100.0
2015	1.4	19.8	17.0	10.7	12.0	4.7	9.1	12.2	13.1	100.0
2016	1.3	20.0	17.3	10.9	11.8	4.5	9.1	12.1	13.0	100.0
2017	1.2	20.3	17.4	11.0	11.6	4.5	8.9	11.9	13.2	100.0
2018	1.4	20.5	17.8	11.1	11.3	4.7	8.7	11.6	13.0	100.0
2019	1.5	20.5	17.5	11.5	11.2	4.9	8.7	11.2	13.0	100.0
2020	1.5	20.4	17.4	11.3	10.8	5.1	8.7	11.0	13.8	100.0
남성	2.2	18.6	15.0	6.6	9.4	5.6	13.4	17.0	12.2	100.0
여성	0.5	22.8	20.6	17.6	12.6	4.5	2.5	2.9	16.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V-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

(단위: %)

연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소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1990	32.8	17.5	10.2	60.5	6.5	21.6	11.4	39.5	100.0
1995	36.7	17.6	8.8	63.2	7.4	19.8	9.5	36.8	100.0
2000	30.2	21.7	11.1	63.1	6.9	20.9	9.2	36.9	100.0
2001	31.1	21.8	10.3	63.2	7.2	20.9	8.7	36.8	100.0
2002	30.9	22.0	11.0	63.9	7.3	20.7	8.2	36.1	100.0
2003	32.9	22.6	9.6	65.0	7.3	20.0	7.7	35.0	100.0
2004	33.7	22.4	9.7	65.9	7.4	19.8	7.0	34.1	100.0
2005	34.7	22.2	9.7	66.5	7.3	19.6	6.6	33.5	100.0
2006	35.6	22.3	9.5	67.3	7.0	19.3	6.3	32.7	100.0
2007	37.0	22.1	9.2	68.3	6.7	19.0	6.0	31.7	100.0
2008	38.3	21.5	9.0	68.8	6.5	18.8	5.9	31.2	100.0
2009	40.0	21.7	8.3	70.0	6.5	17.8	5.7	30.0	100.0
2010	42.4	21.2	7.6	71.2	6.3	17.2	5.3	28.8	100.0
2011	44.0	20.6	7.2	71.7	6.2	16.8	5.2	28.3	100.0
2012	45.1	20.2	6.6	71.8	6.3	16.8	5.1	28.2	100.0
2013	46.8	19.4	6.3	72.6	6.1	16.5	4.9	27.4	100.0
2014	47.6	19.6	6.1	73.2	6.1	16.0	4.7	26.8	100.0
2015	48.6	19.5	6.0	74.1	6.1	15.3	4.4	25.9	100.0
2016	49.5	19.4	5.6	74.5	6.0	15.3	4.3	25.5	100.0
2017	50.2	18.7	5.7	74.6	6.0	15.2	4.2	25.4	100.0
2018	51.3	18.1	5.4	74.9	6.2	14.9	4.1	25.1	100.0
2019	52.4	17.7	5.3	75.4	5.7	15.0	4.0	24.6	100.0
2020	54.0	16.7	4.9	75.6	5.1	15.5	3.9	24.4	100.0
남자	56.3	11.4	5.7	73.5	6.6	18.9	1.0	26.5	100.0
여자	50.8	23.7	3.8	78.3	3.2	10.8	7.7	21.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V-6. 산재 사망률

(단위: 명, 명/10,000명, %)

연도	근로자수	산재사망자수	산재사망률 ¹⁾	산업재해자수	산업재해율 ²⁾
2003	10,599,345	2,701	2.55	94,924	0.90
2004	10,473,090	2,586	2.47	88,874	0.85
2005	11,059,193	2,282	2.06	85,411	0.77
2006	11,688,797	2,238	1.91	89,910	0.77
2007	12,528,879	2,159	1.72	90,147	0.72
2008	13,489,986	2,146	1.59	95,806	0.71
2009	13,884,927	1,916	1.38	97,821	0.70
2010	14,198,748	1,931	1.36	98,645	0.69
2011	14,362,372	1,860	1.30	93,292	0.65
2012	15,548,423	1,864	1.20	92,256	0.59
2013	15,449,228	1,929	1.25	91,824	0.59
2014	17,062,308	1,850	1.08	90,909	0.53
2015	17,968,931	1,810	1.01	90,129	0.50
2016	18,431,716	1,777	0.96	90,656	0.49
2017	18,560,142	1,957	1.05	89,848	0.48
2018	19,073,438	2,142	1.12	102,305	0.54
2019	18,725,160	2,020	1.08	109,242	0.58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주: 1) 산재사망률 = (사망자수 ÷ 산재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사망자에는 재해 당시 사망자, 요양 중 사망자,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포함됨

2) 산업재해율 = (재해자수 ÷ 산재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V-7.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¹⁾

(단위: %)

연도	공적연금(직장가입자) ²⁾³⁾			건강보험(직장가입자) ²⁾			고용보험 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4	59.6	72.5	37.7	61.4	73.8	40.2	52.2	61.5	36.2
2005	61.5	75.8	36.8	62.0	75.9	37.9	53.2	63.8	34.7
2006	62.8	76.2	38.5	63.4	76.1	40.2	54.8	64.7	36.6
2007	63.5	76.4	40.3	64.6	76.8	42.8	55.5	64.4	39.5
2008	64.4	77.3	39.1	65.7	78.0	41.6	56.9	65.9	39.3
2009	64.8	79.0	38.3	67.1	79.8	43.4	59.0	67.6	42.8
2010	65.1	78.5	38.1	67.1	79.5	42.1	63.4	75.7	41.0
2011	65.2	79.2	38.3	68.4	80.9	44.1	64.7	77.5	42.4
2012	66.8	80.4	39.2	70.1	82.3	45.5	66.4	79.0	43.5
2013	67.7	81.3	39.4	71.4	83.6	46.3	67.8	80.7	43.7
2014	68.1	82.2	38.5	71.5	84.2	44.8	68.9	82.0	43.9
2015	67.5	82.1	37.0	71.6	84.8	43.9	68.7	82.4	42.6
2016	67.7	83.0	36.4	72.6	86.2	44.9	69.7	84.2	42.9
2017	69.1	85.0	36.6	74.2	88.4	45.3	71.2	85.9	44.1
2018	69.8	86.2	36.6	75.5	90.1	45.9	71.6	87.0	43.6
2019	69.5	87.5	37.9	75.7	91.5	48.0	70.9	87.2	44.9
2020	69.8	88.0	37.8	76.7	92.6	49.0	72.6	89.2	4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각 연도 8월 기준임

2)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3) 국민연금 및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4)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VI-1. 국내총생산(GDP)

(단위: 십억 원, 억 달러, 2015=100, %)

연도	GDP(명목)		GNI(명목)		GDP 디플레이터 ¹⁾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1970	2,796.6	81.6	2,847.4	83.1	3.9	14.9
1975	10,543.6	217.8	10,458.3	216.1	9.1	23.7
1980	39,725.1	653.5	39,363.6	647.5	22.7	24.7
1985	88,129.7	1,012.4	86,197.2	990.2	32.1	4.0
1990	200,556.2	2,832.8	200,355.3	2,830.0	44.2	10.1
1995	436,988.8	5,667.5	435,384.8	5,646.7	63.9	7.0
2000	651,634.4	5,763.6	647,274.2	5,725.0	72.1	1.0
2001	707,021.3	5,477.3	702,236.4	5,440.2	74.6	3.5
2002	784,741.3	6,271.7	781,828.8	6,248.4	76.9	3.0
2003	837,365.0	7,025.5	834,443.2	7,001.0	79.5	3.4
2004	908,439.2	7,936.3	906,864.7	7,922.5	82.0	3.1
2005	957,447.8	9,347.2	950,685.4	9,281.2	82.9	1.0
2006	1,005,601.5	10,524.2	1,002,664.7	10,493.5	82.7	-0.2
2007	1,089,660.2	11,726.9	1,086,897.3	11,697.1	84.7	2.4
2008	1,154,216.5	10,468.2	1,154,509.7	10,470.9	87.1	2.8
2009	1,205,347.7	9,443.3	1,203,479.8	9,428.7	90.2	3.6
2010	1,322,611.2	11,438.7	1,324,586.9	11,455.8	92.7	2.7
2011	1,388,937.2	12,534.3	1,397,534.8	12,611.9	93.9	1.3
2012	1,440,111.4	12,779.6	1,455,170.3	12,913.3	95.1	1.3
2013	1,500,819.1	13,705.6	1,510,384.9	13,793.0	96.0	1.0
2014	1,562,928.9	14,839.5	1,570,493.3	14,911.4	96.9	0.9
2015	1,658,020.4	14,653.4	1,663,206.6	14,699.3	100.0	3.2
2016	1,740,779.6	15,000.3	1,747,143.5	15,055.1	102.0	2.0
2017	1,835,698.2	16,233.1	1,843,180.9	16,299.2	104.3	2.2
2018	1,898,192.6	17,251.6	1,905,837.5	17,321.1	104.8	0.5
2019 ^P	1,919,039.9	16,463.3	1,935,715.1	16,606.3	103.8	-0.9
2020 ^P	1,924,452.9	16,308.2	1,940,348.1	16,442.9	105.1	1.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1)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VI-2.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연도	1인당 GNI ¹⁾				1인당 GDP ³⁾	
	명목/원화	명목/달러화	실질/원화	증가율 ²⁾	명목/원화	명목/달러화
1970	8.8	257.8	255.7	5.7	8.7	253.2
1975	29.6	612.5	344.6	2.7	29.9	617.5
1980	103.3	1,698.5	486.2	-7.1	104.2	1,714.1
1985	211.2	2,426.5	708.4	5.8	216.0	2,480.9
1990	467.4	6,601.5	1,192.4	8.4	467.8	6,608.1
1995	965.5	12,522.4	1,702.1	7.7	969.1	12,568.5
2000	1,376.9	12,178.7	1,971.9	5.6	1,386.2	12,260.8
2001	1,482.4	11,484.4	2,034.4	3.2	1,492.5	11,562.7
2002	1,641.0	13,114.6	2,197.3	8.0	1,647.1	13,163.5
2003	1,742.3	14,618.2	2,244.3	2.1	1,748.4	14,669.4
2004	1,886.1	16,476.9	2,331.5	3.9	1,889.3	16,505.5
2005	1,973.0	19,261.8	2,383.0	2.2	1,987.0	19,398.8
2006	2,070.0	21,663.7	2,464.9	3.4	2,076.0	21,727.1
2007	2,232.6	24,026.8	2,592.0	5.2	2,238.2	24,087.9
2008	2,353.5	21,345.3	2,582.2	-0.4	2,352.9	21,339.9
2009	2,440.7	19,122.1	2,632.6	2.0	2,444.5	19,151.8
2010	2,673.0	23,117.7	2,808.3	6.7	2,669.0	23,083.3
2011	2,798.6	25,255.8	2,832.1	0.8	2,781.4	25,100.4
2012	2,898.8	25,723.7	2,899.7	2.4	2,868.8	25,457.5
2013	2,995.1	27,351.3	2,997.5	3.4	2,976.1	27,178.1
2014	3,094.8	29,383.9	3,082.8	2.8	3,079.9	29,242.4
2015	3,260.2	28,813.6	3,260.2	5.8	3,250.1	28,723.8
2016	3,411.2	29,394.3	3,390.7	4.0	3,398.8	29,287.2
2017	3,588.6	31,734.1	3,492.5	3.0	3,574.0	31,605.2
2018	3,693.0	33,563.7	3,530.9	1.1	3,678.2	33,429.0
2019 ^P	3,743.5	32,114.9	3,527.7	-0.1	3,711.2	31,838.2
2020 ^P	3,747.3	31,755.0	3,513.0	-0.4	3,716.6	31,494.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1) 1인당 GNI = GNI ÷ 총인구.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1인당 GNI 증가율 = ((당해 연도 1인당 실질 GNI - 직전 연도 1인당 실질 GNI) ÷ 직전 연도 1인당 실질 GNI) × 100

3) 1인당 GDP = GDP ÷ 총인구.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VI-3.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2015=100, %)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¹⁾	소비자물가상승률 ²⁾	생활물가지수 ¹⁾³⁾	생활물가상승률 ⁴⁾
1965	2.752	-	-	-
1970	4.902	16.0	-	-
1975	9.986	25.2	-	-
1980	22.101	28.7	-	-
1985	31.156	2.5	-	-
1990	40.564	8.6	-	-
1995	54.811	4.5	48.518	-
2000	66.572	2.3	64.304	3.7
2001	69.279	4.1	67.583	5.1
2002	71.193	2.8	69.260	2.5
2003	73.695	3.5	72.058	4.0
2004	76.341	3.6	75.621	4.9
2005	78.444	2.8	78.679	4.0
2006	80.202	2.2	81.105	3.1
2007	82.235	2.5	83.676	3.2
2008	86.079	4.7	88.115	5.3
2009	88.452	2.8	89.931	2.1
2010	91.051	2.9	92.961	3.4
2011	94.717	4.0	97.020	4.4
2012	96.789	2.2	98.671	1.7
2013	98.048	1.3	99.383	0.7
2014	99.298	1.3	100.220	0.8
2015	100.00	0.7	100.00	-0.2
2016	100.97	1.0	100.67	0.7
2017	102.93	1.9	103.14	2.5
2018	104.45	1.5	104.77	1.6
2019	104.85	0.4	104.99	0.2
2020	105.42	0.5	105.46	0.4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주: 1) 2014년까지 소수점 3자리 수, 2015년부터 소수점 2자리 수까지 공표

2) 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text{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div \text{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3)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4) 생활물가상승률 = $\{(\text{당해 연도 생활물가지수} - \text{직전 연도 생활물가지수}) \div \text{직전 연도 생활물가지수}\} \times 100$

VI-4. 가구소득¹⁾

(단위: 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²⁾	2016 ³⁾	2017	2018	2019
경상 소득	전체		4,233	4,479	4,658	4,770	4,882	5,020	5,478	5,705	5,828	5,924
	가구주 연령별	30세 미만	2,879	3,030	3,407	3,406	3,266	3,298	3,270	3,533	3,720	3,533
		30~39세	4,601	4,801	4,976	5,075	5,153	5,397	5,485	5,757	5,982	6,346
		40~49세	5,345	5,391	5,525	5,677	5,928	6,158	6,616	7,108	7,425	7,648
		50~59세	5,196	5,564	5,829	5,967	6,106	6,373	7,061	7,292	7,407	7,549
		60세 이상	2,345	2,588	2,703	2,891	3,027	3,107	3,592	3,759	3,877	3,989
	소득 분위별	소득 1분위	761	814	827	864	891	920	1,001	1,057	1,104	1,155
		소득 2분위	1,991	2,179	2,299	2,355	2,412	2,463	2,556	2,657	2,725	2,763
		소득 3분위	3,344	3,589	3,794	3,896	3,993	4,078	4,323	4,464	4,577	4,671
		소득 4분위	5,040	5,389	5,635	5,792	5,958	6,083	6,590	6,825	6,977	7,126
		소득 5분위	10,029	10,420	10,735	10,938	11,153	11,552	12,921	13,520	13,754	13,903
처분 가능 소득	전체		3,476	3,651	3,819	3,927	4,021	4,128	4,520	4,671	4,729	4,818
	가구주 연령별	30세 미만	2,495	2,600	2,963	2,934	2,823	2,829	2,815	3,051	3,171	3,038
		30~39세	3,779	3,935	4,085	4,167	4,242	4,415	4,491	4,691	4,849	5,123
		40~49세	4,322	4,324	4,453	4,603	4,780	4,962	5,344	5,700	5,876	6,079
		50~59세	4,221	4,486	4,745	4,871	4,988	5,215	5,794	5,907	5,939	6,053
		60세 이상	2,007	2,190	2,301	2,473	2,602	2,652	3,079	3,202	3,278	3,378
	소득 분위별	소득 1분위	683	713	721	765	796	812	867	918	958	1,009
		소득 2분위	1,705	1,814	1,951	1,999	2,064	2,097	2,183	2,275	2,316	2,369
		소득 3분위	2,805	2,975	3,160	3,262	3,347	3,412	3,650	3,760	3,850	3,942
		소득 4분위	4,173	4,406	4,630	4,778	4,929	5,019	5,560	5,709	5,792	5,916
		소득 5분위	8,014	8,343	8,632	8,826	8,969	9,300	10,339	10,692	10,728	10,855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16년 기준 소득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보완한 결과로 작성

- 소득기준 '16년의 경우는 전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자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작성한 결과를 모두 제공

- '15년 이전 통계와는 직접 비교 시 유의가 필요함

2) 조사자료로 작성

3)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작성

VI-5. 소득원천별 소득구성¹⁾

(단위: %)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합계
2011	62.5	26.8	4.5	4.3	2.0	100.0
2012	64.5	25.1	4.5	4.2	1.7	100.0
2013	64.9	24.9	4.1	4.5	1.6	100.0
2014	65.6	23.9	4.0	5.0	1.4	100.0
2015	65.5	22.9	4.5	5.6	1.4	100.0
2016 ²⁾	65.4	22.9	4.2	5.9	1.6	100.0
2016 ³⁾	63.9	22.2	6.5	6.0	1.5	100.0
2017	63.8	21.8	6.7	6.2	1.6	100.0
2018	64.9	20.2	6.5	6.6	1.8	100.0
2019	64.0	19.4	7.0	7.7	1.8	100.0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78.4	13.5	1.4	3.3	3.4	100.0
(가구주 연령) 30~39세	78.5	14.7	2.7	3.3	0.8	100.0
(가구주 연령) 40~49세	70.6	22.0	4.5	2.2	0.7	100.0
(가구주 연령) 50~59세	70.6	20.2	6.0	2.5	0.7	100.0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42.2	18.3	13.2	21.7	4.7	100.0
소득 1분위	24.8	8.5	8.0	42.8	15.9	100.0
소득 2분위	49.9	18.0	7.4	19.0	5.7	100.0
소득 3분위	59.9	22.0	5.5	10.6	2.0	100.0
소득 4분위	67.5	20.9	4.8	6.0	0.8	100.0
소득 5분위	69.6	19.0	8.5	2.5	0.3	100.0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16년 기준 소득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보완한 결과로 작성

- 소득기준 '16년의 경우는 전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자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작성한 결과를 모두 제공

- '15년 이전 통계와는 직접 비교 시 유의가 필요함

2) 조사자료로 작성

3)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작성

VI-6. 소비항목별 소비지출구성

(단위: 천 원, %)

연도	소비 지출액	소비항목별 소비지출구성												
		식료품· 비주류 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 용품·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 서비스	합계
2003	1,700	15.0	1.4	6.6	9.9	3.5	5.8	11.7	7.4	5.9	11.0	13.8	8.2	100.0
2004	1,797	15.1	1.5	6.3	9.7	3.4	5.7	11.6	7.3	5.5	11.3	14.2	8.5	100.0
2005	1,872	14.6	1.5	6.3	9.8	3.6	5.9	12.0	7.0	5.4	11.3	13.8	8.6	100.0
2006	1,945	14.2	1.5	6.3	9.9	3.5	6.2	12.5	6.8	5.4	11.4	13.4	8.9	100.0
2007	2,016	13.8	1.4	6.4	9.7	3.7	6.4	12.4	6.7	5.3	11.9	13.5	8.8	100.0
2008	2,114	14.1	1.3	6.2	9.7	3.5	6.2	12.4	6.3	5.2	12.8	13.6	8.7	100.0
2009	2,149	13.8	1.2	6.1	9.8	3.6	6.5	12.4	6.2	5.2	13.5	13.0	8.6	100.0
2010	2,287	13.9	1.2	6.4	10.1	3.8	6.7	11.9	6.1	5.5	13.0	12.7	8.9	100.0
2011	2,393	14.2	1.2	6.5	10.1	3.8	6.5	12.3	6.0	5.4	12.3	12.5	9.2	100.0
2012	2,457	14.2	1.1	6.8	10.4	3.8	6.5	12.3	6.2	5.5	11.7	12.7	8.8	100.0
2013	2,481	14.0	1.1	6.8	10.8	4.0	6.6	12.4	6.2	5.6	11.4	12.9	8.2	100.0
2014	2,551	13.8	1.1	6.6	10.4	4.1	6.6	13.1	5.9	5.8	11.2	13.1	8.4	100.0
2015	2,563	13.8	1.3	6.3	10.8	4.1	6.8	12.5	5.8	5.8	11.1	13.2	8.4	100.0
2016 ¹⁾	2,550	13.7	1.4	6.2	10.7	4.3	7.0	12.1	5.6	5.9	11.1	13.5	8.6	100.0
2017 ²⁾	2,557	14.1	1.4	6.2	11.1	4.4	7.1	14.4	5.4	6.8	7.4	13.9	7.9	100.0
2018	2,538	14.4	1.4	6.0	11.2	4.6	7.5	13.7	5.3	7.6	6.8	13.8	7.6	100.0
2019 ³⁾	2,457	13.5	1.5	5.6	11.3	4.7	8.2	12.0	5.0	7.3	8.3	14.1	8.4	100.0
39세 이하	2,440	10.6	1.6	6.4	12.2	5.0	5.9	14.0	4.8	8.1	5.7	16.8	8.9	100.0
40~49세	3,198	12.0	1.4	5.8	9.5	4.4	6.2	11.4	5.1	7.3	15.5	14.1	7.5	100.0
50~59세	2,844	12.9	1.4	5.7	10.5	4.2	7.9	12.4	5.5	7.5	8.8	14.3	8.8	100.0
60세 이상	1,659	19.5	1.5	4.5	13.7	5.3	13.9	10.4	4.5	6.4	1.0	10.9	8.4	100.0
소득 1분위	1,024	19.9	2.2	3.9	19.5	4.8	12.9	7.3	4.7	5.3	2.1	10.9	6.5	100.0
소득 2분위	1,684	15.3	2.0	4.9	16.3	4.4	9.3	10.1	5.5	6.1	4.4	14.0	7.8	100.0
소득 3분위	2,350	14.0	1.8	5.5	12.2	4.3	8.1	13.1	5.5	6.4	6.3	14.5	8.4	100.0
소득 4분위	3,004	13.4	1.4	5.6	9.7	4.4	7.7	12.8	5.3	7.0	9.2	14.7	8.7	100.0
소득 5분위	4,221	11.2	0.9	6.4	7.8	5.3	7.1	12.8	4.4	9.1	11.9	14.2	8.9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1) 2016년까지 전국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

2) 2017년부터 전국가구(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지출)로 개편되어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 시 유의 필요

3) 표본체계(1/12 순환 → 6-6-6 연동) 및 조사방법(가계부, 연간조사표 → 가계부) 개편으로 직접 비교 시 유의 필요

VI-7. 가구 순자산¹⁾

(단위: 만 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산	전체		32,324	32,688	33,539	34,685	36,637	38,671	42,036	43,191	44,543
	가구주 성별	남자	37,049	37,437	38,477	39,718	41,890	43,845	47,716	49,187	50,971
		여자	15,832	15,471	15,985	17,086	18,753	20,831	22,063	22,695	23,502
	가구주 연령별	30세 미만	8,954	8,553	8,777	8,864	8,636	9,882	9,892	10,994	10,720
		30~39세	22,747	22,636	23,226	24,669	26,029	28,824	31,503	32,638	35,467
		40~49세	34,187	32,744	33,078	33,627	37,244	39,884	44,776	46,967	48,686
		50~59세	42,787	42,853	43,374	42,879	44,482	45,697	48,441	49,345	50,903
		60세 이상	31,302	33,341	33,869	36,188	37,248	38,971	41,738	42,026	42,701
부채	전체		5,450	5,858	6,051	6,256	6,719	7,099	7,668	7,910	8,256
	가구주 성별	남자	6,251	6,774	7,001	7,231	7,775	8,117	8,795	9,016	9,517
		여자	2,653	2,536	2,672	2,848	3,122	3,588	3,706	4,130	4,128
	가구주 연령별	30세 미만	1,283	1,401	1,481	1,491	1,681	2,393	2,591	3,197	3,479
		30~39세	4,405	4,890	5,257	5,463	5,920	6,920	8,088	8,915	10,082
		40~49세	6,728	6,879	6,922	7,160	8,120	8,637	10,109	10,689	11,327
		50~59세	7,671	7,959	7,982	7,939	8,369	8,670	8,820	9,321	9,915
		60세 이상	3,662	4,201	4,406	4,843	5,030	5,199	5,380	5,222	5,279
순자산 ²⁾	전체		26,875	26,831	27,488	28,429	29,918	31,572	34,368	35,281	36,287
	가구주 성별	남자	30,799	30,663	31,475	32,487	34,115	35,728	38,921	40,171	41,454
		여자	13,179	12,935	13,313	14,238	15,631	17,243	18,357	18,566	19,373
	가구주 연령별	30세 미만	7,671	7,152	7,296	7,373	6,956	7,489	7,301	7,796	7,241
		30~39세	18,342	17,745	17,970	19,207	20,109	21,904	23,415	23,723	25,385
		40~49세	27,460	25,864	26,156	26,467	29,125	31,246	34,667	36,278	37,359
		50~59세	35,116	34,894	35,393	34,940	36,113	37,026	39,621	40,024	40,987
		60세 이상	27,640	29,140	29,463	31,346	32,218	33,772	36,358	36,804	37,422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전체 가구 평균임

2) 순자산 = 자산 - 부채

VI-8. 지니계수

(단위: 배)

연도	지니계수 ¹⁾		소득5분위배율 ²⁾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³⁾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³⁾
2011	0.418	0.388	11.21	8.32
2012	0.411	0.385	10.65	8.10
2013	0.401	0.372	10.29	7.68
2014	0.397	0.363	10.32	7.37
2015	0.396	0.352	10.41	6.91
2016	0.402	0.355	10.88	6.98
2017	0.406	0.354	11.27	6.96
2018	0.402	0.345	11.15	6.54
2019	0.404	0.339	11.56	6.25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VI-9.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연도	상대적빈곤율 ¹⁾ (중위소득 50%이하)		상대적빈곤율 ¹⁾ (중위소득 60%이하)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²⁾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²⁾
2011	19.6	18.6	24.6	24.5
2012	19.0	18.3	24.3	24.3
2013	19.1	18.4	24.4	24.3
2014	19.6	18.2	24.6	24.1
2015	19.5	17.5	24.6	23.7
2016	19.8	17.6	24.9	23.7
2017	19.7	17.3	24.7	23.2
2018	19.9	16.7	24.8	22.6
2019	20.8	16.3	25.8	22.5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상대적 빈곤율 =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인구 ÷ 전체 인구) × 100

2)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VII-1. 여가시간¹⁾²⁾

(단위: 시간)

연도	평일평균	휴일평균
2006	3.1	5.5
2007	2.9	5.5
2008	3.0	6.5
2010	4.0	7.0
2012	3.3	5.1
2014	3.6	5.8
2016	3.1	5.0
2018	3.3	5.3
2019	3.5	5.4
2020	3.7	5.6
남자	3.6	5.9
여자	3.7	5.3
15~19세	3.3	5.8
20~29세	3.7	6.1
30~39세	3.1	5.3
40~49세	3.2	5.2
50~59세	3.3	5.4
60~69세	4.0	5.6
70세 이상	5.4	6.1
100만원 미만	5.8	6.6
100~200만원	4.5	5.8
200~300만원	3.8	5.6
300~400만원	3.5	5.4
400~500만원	3.4	5.5
500~600만원	3.3	5.6
600만원 이상	3.3	5.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VII-2. 여가활동 동반자¹⁾²⁾³⁾

(단위: %)

연도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직장동료	기 타
2014	56.8	32.1	8.3	1.6	1.1	0.1
2016	59.8	29.7	8.8	1.0	0.8	0.0
2018	59.5	29.7	8.7	1.0	1.0	0.0
2019	54.3	35.5	8.4	1.2	0.6	0.1
2020	60.0	28.8	9.2	1.5	0.4	0.1
남자	59.7	27.6	10.1	2.0	0.5	0.2
여자	60.3	30.0	8.3	1.0	0.3	0.2
15~19세	74.0	6.1	19.3	0.5	-	0.2
20~29세	74.4	9.2	15.6	0.4	0.4	-
30~39세	63.6	27.6	7.1	1.2	0.4	0.1
40~49세	53.8	36.6	7.0	1.8	0.7	0.1
50~59세	51.2	37.8	7.9	2.4	0.4	0.2
60~69세	54.9	35.4	6.8	2.3	0.5	0.0
70세 이상	59.6	31.6	7.4	0.7	0.1	0.6
100만원 미만	71.9	19.8	7.2	0.7	-	0.4
100~200만원	59.0	31.4	7.7	1.6	0.1	0.3
200~300만원	61.1	29.3	7.8	1.4	0.2	0.2
300~400만원	59.3	30.1	8.8	1.3	0.5	0.0
400~500만원	59.5	30.0	8.5	1.1	0.8	0.1
500~600만원	60.3	27.5	10.7	1.4	0.1	-
600만원 이상	57.0	29.0	11.0	2.3	0.5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3)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1순위)의 주 동반자임

Ⅶ-3.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¹⁾²⁾³⁾

(단위: %, 시간)

연도	평일 사용시간						휴일 사용시간						
	사용시간별 구성					평균 사용 시간	사용시간별 구성					평균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016	17.2	49.0	26.7	5.5	1.6	1.3	18.3	41.3	21.5	11.5	7.4	1.6	
2018	21.2	43.9	24.8	7.3	2.7	1.3	19.1	31.9	23.6	14.0	11.4	1.8	
2019	31.5	35.8	22.3	7.4	3.0	1.3	30.0	29.6	19.6	11.7	9.0	1.6	
2020	5.1	39.7	30.5	14.0	10.7	2.0	4.2	33.2	29.3	16.3	17.0	2.3	
남자	4.5	38.8	31.2	14.7	10.8	2.0	3.7	31.3	29.6	16.9	18.4	2.4	
여자	5.7	40.7	29.7	13.3	10.7	2.0	4.7	35.2	28.9	15.7	15.5	2.3	
15~19세	0.8	18.0	31.9	27.2	22.1	2.8	0.2	7.0	26.1	25.2	41.5	3.6	
20~29세	0.8	16.2	34.3	24.7	24.0	2.9	0.6	9.4	26.9	26.8	36.3	3.5	
30~39세	1.6	28.9	40.7	16.5	12.3	2.3	1.0	22.7	36.4	20.8	19.2	2.6	
40~49세	3.0	42.0	36.0	12.1	6.9	1.9	2.7	34.8	36.9	13.7	11.8	2.1	
50~59세	7.2	55.8	24.4	7.9	4.7	1.6	5.8	49.1	26.8	11.5	6.8	1.7	
60~69세	12.7	61.1	17.4	5.8	3.1	1.3	10.5	57.8	20.5	7.7	3.5	1.4	
70세 이상	18.9	59.3	12.9	4.1	4.8	1.4	19.0	55.6	15.4	3.5	6.4	1.4	
초졸 이하	24.5	50.1	11.0	14.4	-	1.2	23.9	47.4	16.8	11.9	-	1.3	
중졸	19.3	64.8	11.0	1.5	3.5	1.2	18.4	60.0	14.3	3.4	3.9	1.3	
고졸	16.1	50.2	17.1	9.8	6.7	1.6	15.2	43.0	19.7	11.3	10.7	1.8	
대졸 이상	5.6	47.9	25.5	11.8	9.3	1.9	4.5	42.0	26.0	12.8	14.7	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3)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VII-4. 스마트폰 과의존율¹⁾

(단위: %)

연도	과의존위험군 ²⁾	고위험군 ³⁾	잠재적위험군 ⁴⁾
2016	17.8	2.5	15.3
2017	18.6	2.7	15.9
2018	19.1	2.7	16.4
2019	20.0	2.9	17.1
2020	23.3	4.0	19.3
남자	24.4	4.2	20.2
여자	22.1	3.7	18.4
3~9세	27.3	3.7	23.6
10~19세	35.8	5.0	30.8
20~29세	30.4	4.9	25.5
30~39세	22.7	4.1	18.6
40~49세	19.5	3.6	15.9
50~59세	17.7	3.4	14.3
60~69세	16.8	3.2	13.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주: 1) 3~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과의존위험군 비율 = 고위험군 비율 + 잠재적위험군 비율

3)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 문제, 건강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

4)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

VII-5. 여가여건 충족도¹⁾²⁾

(단위: %)

연도	여가시간 ³⁾		여가비용 ⁴⁾	여가시설 ⁵⁾
	평일	휴일		
2014	62.2	70.2	56.1	-
2016	53.3	66.9	47.4	57.2
2018	46.3	58.5	36.2	59.0
2019	53.1	65.1	49.7	43.6
2020	49.1	64.7	42.1	40.4
남성	48.6	68.9	43.6	39.5
여성	49.5	60.8	40.7	41.4
15-19세	43.2	64.4	38.3	39.7
20~29세	53.7	71.4	45.5	41.4
30~39세	37.0	57.1	45.6	41.9
40~49세	39.3	55.6	42.5	40.8
50~59세	44.8	62.1	41.7	41.5
60~69세	55.4	69.1	40.2	39.9
70세 이상	75.9	79.7	38.0	35.8
100만원 미만	75.4	79.2	33.0	29.4
100~200만원	66.4	74.4	36.2	32.7
200~300만원	48.4	62.5	36.2	36.1
300~400만원	45.1	59.1	40.9	41.0
400~500만원	46.5	61.9	43.0	41.6
500~600만원	44.5	65.7	45.7	43.4
600만원 이상	44.2	65.1	48.0	4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3) 지난 1년 동안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에 대해 '약간 충분하다'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4)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여가비용(한 달 평균)에 대해 '다소 충분하다'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5) 공공 문화 및 여가 시설 충분 여부에 대해 '다소 그렇다'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VIII-1. 인구 1000명당 주택 수¹⁾

(단위: 호/1,000명)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5	214.5	168.9	177.5	178.2	227.4	198.1	220.7	-	-	210.0	268.9	256.6	270.3	260.8	293.4	270.2	233.5	226.0
2000	248.7	199.4	226.7	219.7	255.4	249.9	243.8	235.6	-	236.6	307.8	288.0	317.1	300.7	324.1	302.7	276.1	248.5
2005 ²⁾	330.4	315.9	329.5	316.4	322.1	308.8	321.9	321.7	-	311.8	369.8	356.1	362.7	357.9	380.4	370.2	347.5	323.4
2010	363.8	347.1	364.0	362.6	351.7	357.8	356.9	357.6	-	337.2	407.1	396.5	398.0	399.0	417.6	420.1	380.0	343.0
2010 ³⁾	356.8	342.0	358.5	355.8	343.5	355.0	354.8	360.0	-	329.5	403.7	389.0	380.9	391.1	410.1	408.6	373.8	329.6
2015	383.0	366.8	397.3	382.6	365.1	390.4	386.9	388.0	453.7	346.9	426.1	421.2	409.2	420.3	442.4	446.0	401.4	366.4
2016	387.7	371.6	399.8	392.6	368.3	396.3	391.2	391.9	404.0	350.7	430.9	426.7	416.8	424.3	448.3	453.6	406.8	379.3
2017	395.0	376.9	408.6	402.9	370.5	405.2	396.5	404.8	420.6	356.4	439.6	435.0	426.7	429.9	455.5	465.9	419.7	393.7
2018	403.2	380.7	416.1	407.5	377.3	413.7	404.9	413.9	419.0	366.2	452.9	450.2	439.8	441.1	463.3	475.5	429.5	404.7
2019	411.6	387.8	426.5	411.9	380.5	421.7	412.1	426.0	427.3	374.3	470.4	459.9	447.2	451.5	471.1	484.7	442.3	416.7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주: 1)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주택수 ÷ 총인구) × 1,000. 총인구는 인구총조사 인구임

2) 2005년부터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함

3)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10년 자료 재산정함

VIII-2. 주택보급률¹⁾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	98.3	93.7	97.9	95.7	99.1	95.2	97.0	99.5	-	97.5	104.0	102.9	103.8	103.0	103.9	102.8	100.6	96.0
2006	99.2	94.1	99.8	97.1	98.3	97.6	98.3	100.9	-	96.7	107.3	105.2	107.1	105.8	106.0	104.4	101.5	97.7
2007	99.6	93.2	99.9	99.2	99.3	99.2	98.8	102.9	-	95.6	108.9	107.5	108.7	108.0	107.8	106.9	102.5	96.9
2008	100.7	93.6	100.0	103.0	99.7	101.5	98.5	104.9	-	96.0	110.5	109.3	110.5	110.7	109.9	109.9	104.4	96.7
2009	101.2	93.1	99.7	104.4	100.2	103.7	97.6	104.7	-	96.5	111.0	110.3	113.0	113.4	111.1	112.0	105.6	96.0
2010	101.9	97.0	99.9	102.1	101.9	102.4	100.6	103.6	-	100.1	107.4	107.3	107.8	107.4	106.7	108.7	104.3	97.4
2010 ²⁾	100.5	94.4	99.7	101.5	99.8	101.8	101.0	105.1	-	97.3	108.1	107.5	104.6	106.7	107.6	108.9	104.4	96.2
2011	100.9	94.7	100.1	101.3	101.8	102.4	102.6	105.3	-	97.6	107.4	108.0	105.1	107.2	107.7	109.5	104.4	95.6
2012	101.1	94.8	100.8	101.0	102.7	101.9	102.6	105.0	-	98.3	106.8	107.9	105.6	107.1	107.8	109.6	104.3	96.4
2013	101.3	95.1	101.7	101.2	101.7	102.6	102.0	105.4	-	98.1	106.3	108.8	105.8	106.9	108.5	110.2	105.0	98.4
2014	101.9	96.0	102.6	100.5	101.3	103.9	102.6	106.3	-	98.3	106.0	109.5	107.9	107.5	109.6	111.2	105.8	98.7
2015	102.3	96.0	102.6	101.6	101.0	103.5	102.2	106.9	123.1	98.7	106.7	111.2	108.3	107.5	110.4	112.5	106.4	100.7
2016	102.6	96.3	102.3	103.3	100.9	104.5	101.7	107.3	108.4	99.1	106.4	110.7	109.2	107.3	110.7	113.0	106.7	103.1
2017	103.3	96.3	103.1	104.3	100.4	105.3	101.2	109.3	111.5	99.5	107.7	111.4	110.5	107.7	111.3	114.7	108.6	105.2
2018	104.2	95.9	103.6	104.0	101.2	106.6	101.6	110.3	110.0	101.0	109.6	113.8	112.7	109.4	112.5	116.1	110.1	107.0
2019	104.8	96.0	104.5	103.3	100.2	107.0	101.4	111.5	111.4	101.5	112.8	114.5	113.3	110.5	113.6	117.3	112.1	109.2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주: 1)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 100. 주택수에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함

2)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10년 자료부터 재산정함

VIII-3.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¹⁾²⁾³⁾

(단위: 배)

연도	전체	지역별 ⁴⁾			소득수준별 ⁵⁾		
		수도권	광역시 등	도 지역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
2006	4.2	5.7	4.1	3.3	6.3	3.4	3.6
2008	4.3	6.9	3.3	3.0	6.4	4.3	4.2
2010	4.3	6.9	3.5	2.9	6.1	4.2	4.0
2012	5.1	6.7	5.0	3.6	7.5	4.3	4.4
2014	4.7	6.9	4.7	4.2	8.3	5.0	4.7
2016	5.6	6.7	5.3	4.0	9.8	5.6	5.0
2017	5.6	6.7	5.5	4.0	8.3	5.2	4.8
2018	5.5	6.9	5.6	3.6	9.0	5.2	4.8
2019	5.4	6.8	5.5	3.6	8.9	5.2	4.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현재주택가격 ÷ 연가구소득. 주택가격과 연가구소득은 중위값임

2) PIR: Price to Income Ratio

3)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4)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는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Ⅷ-4.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¹⁾²⁾³⁾⁴⁾

(단위: %)

연도	전체	지역별 ⁵⁾			소득수준별 ⁶⁾		
		수도권	광역시 등	도 지역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
2006	18.7	19.9	18.5	17.8	27.6	18.9	16.1
2008	17.5	22.3	19.3	15.9	25.0	17.6	17.4
2010	19.2	20.9	16.4	14.4	28.2	16.6	21.1
2012	19.8	23.3	16.8	14.5	21.8	17.3	22.6
2014	20.3	21.6	16.6	15.8	29.0	17.0	21.6
2016	18.1	17.9	15.4	14.2	23.1	14.9	19.0
2017	17.0	18.4	15.3	15.0	22.2	15.7	20.3
2018	15.5	18.6	16.3	15.0	20.3	16.7	18.3
2019	16.1	20.0	16.3	12.7	20.3	16.7	18.3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월임대료 ÷ 월가구소득) × 100. 월 임대료와 월 가구소득은 중위값임

2) 보증금은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

3) RIR: Rent to Income Ratio

4)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5)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는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Ⅷ-5.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¹⁾²⁾

(단위: %)

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³⁾	시설기준 미달가구 ⁴⁾	침실기준 미달가구 ⁵⁾
2006	16.6	8.0	9.9	1.9
2008	12.7	5.3	7.9	1.0
2010	10.6	5.7	5.6	0.9
2012	7.2	3.2	4.3	-
2014	5.4	2.8	2.9	0.5
2016	5.4	3.1	2.6	0.5
2017	5.9	4.1	3.3	0.3
2018	5.7	4.0	3.1	0.4
2019	5.3	3.8	3.0	0.3
수도권 ⁶⁾	6.7	5.6	3.3	0.3
광역시 등 ⁶⁾	4.3	2.6	2.6	0.2
도지역 ⁶⁾	3.9	1.7	2.9	0.3
소득하위(1-4분위) ⁷⁾	9.2	6.1	6.5	0.2
소득중위(5-8분위) ⁷⁾	3.8	3.0	1.2	0.4
소득상위(9-10분위) ⁷⁾	1.3	1.0	0.4	0.2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에 따른 기준

2)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3)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5)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미만인 가구

6)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는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VIII-6. 1인당 주거면적¹⁾²⁾

(단위: m²)

연도	전체 ³⁾	주택유형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2005 ⁴⁾	23.1	23.8	22.8	22.5	20.2	25.1	29.1
2010	25.0	26.2	24.6	25.1	21.6	26.5	30.4
2015	26.9	30.2	26.3	25.5	19.9	28.7	26.0
2016	27.3	31.4	26.4	25.9	20.1	29.5	26.4
2017	27.9	32.6	26.8	26.4	20.4	30.6	26.3
2018	28.5	33.9	27.3	27.0	20.8	31.5	26.7
2019	29.2	35.3	27.8	27.7	21.3	32.7	27.2
서울	26.3	27.4	28.2	27.6	19.9	26.4	23.9
부산	29.2	30.3	29.6	27.4	23.6	31.8	29.6
대구	30.5	34.5	29.1	29.1	25.7	34.5	27.3
인천	26.9	35.8	26.9	24.4	20.1	32.6	27.2
광주	30.0	35.8	28.2	28.9	23.0	34.2	30.0
대전	30.0	34.3	28.7	28.0	23.1	34.6	34.7
울산	31.1	41.3	27.8	28.2	25.6	37.7	30.4
세종	30.1	37.8	28.8	25.6	23.7	33.6	23.5
경기	28.2	36.0	27.3	27.7	21.0	32.5	28.2
강원	32.5	39.3	27.6	28.3	26.5	35.8	26.7
충북	31.7	39.5	26.8	27.5	24.8	36.2	28.3
충남	32.4	40.7	27.1	28.7	24.8	37.2	33.8
전북	31.6	37.1	27.6	28.9	25.7	35.5	29.0
전남	31.2	35.3	27.1	28.9	26.6	34.8	26.4
경북	32.7	39.1	27.8	28.5	26.2	36.0	28.2
경남	31.1	37.9	27.3	29.0	26.5	35.3	29.9
제주	30.2	34.3	26.2	27.6	24.8	34.5	29.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2015년부터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과 함께 공표 주기 1년으로 변경

2) 1인당 주거면적 = 전체 가구 총주거면적 ÷ 전체 가구 총가원수

3) 오피스텔 주거면적을 포함함

4) 2005년 주거면적은 평수를 제곱미터(m²)로 환산한 수치임

VIII-7. 주택 만족도¹⁾²⁾³⁾

(단위: 점)

연도	전체	주택유형별						소득수준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
2012	2.83	2.75	2.92	2.80	2.72	2.73	2.77	2.75	2.85	2.95
2014	2.92	2.79	3.04	2.78	2.78	2.87	2.97	2.80	2.95	3.08
2016	2.99	2.83	3.15	2.81	2.82	2.76	3.07	2.86	3.04	3.18
2017	2.98	2.86	3.12	2.80	2.84	2.84	2.84	2.86	3.02	3.16
2018	2.98	2.84	3.11	2.86	2.88	2.73	2.79	2.85	3.02	3.14
2019	3.00	2.87	3.12	2.82	2.94	2.79	2.85	2.88	3.03	3.16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주택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2) 2012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3) 2012년은 5점 척도로 조사하여 4점 척도로 환산, 2014년부터 4점 척도로 조사함

Ⅷ-8. 주거환경 만족도¹⁾²⁾

(단위: 점)

연도	전체	지역별 ³⁾			소득수준별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하위 (1~4분위)	중위 (5~8분위)	상위 (9~10분위)
2006	2.86	2.84	2.87	2.88	2.83	2.86	2.93
2008	2.75	2.75	2.79	2.74	2.70	2.76	2.86
2010	2.84	2.82	2.84	2.88	2.78	2.84	2.98
2012	2.83	2.83	2.90	2.78	2.74	2.84	2.99
2014	2.86	2.85	2.89	2.85	2.78	2.87	3.00
2016	3.08	3.05	3.06	3.14	3.04	3.08	3.17
2017	2.97	2.98	2.99	2.94	2.88	2.99	3.09
2018	2.94	2.94	2.98	2.92	2.86	2.96	3.06
2019	2.94	2.96	3.00	2.88	2.86	2.96	3.0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한다'를 4점으로 한 평균점수

2)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3)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는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X-1.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¹⁾²⁾³⁾

(단위: %)

연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1995	3.3	1.9	28.8	9.0
2000	0.6	0.3	4.5	13.0
2001	0.1	0.2	3.4	9.8
2002	0.6	0.4	4.9	14.7
2003	1.2	0.6	6.7	16.7
2004	0.9	0.5	6.3	23.1
2005	0.5	0.3	5.4	21.9
2006	0.1	0.0	12.7	22.6
2007	0.2	0.3	6.6	24.4
2008	0.4	0.2	2.6	21.9
2009	0.0	0.0	5.4	22.8
2010	0.1	0.0	1.8	22.0
2011	0.1	0.0	3.7	25.4
2012 ⁴⁾	-	0.0	-	26.9
2013 ⁴⁾	-	0.0	-	28.3
2014	-	0.0	-	30.2
2015	-	-	-	28.4
2016	-	0.6	-	31.8
2017	0.2	0.1	3.2	36.1
2018	0.1	0.1	3.6	34.7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주: 1) 기준초과율 = (기준초과지점수 ÷ 수질측정지점수) × 100

2)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임

3) 먹는 물의 수질은 수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검사 이외에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 검사 결과임

4) 2012년도에는 서울시 등 7개 지역 수도꼭지 검사만 실시, 2013년도에는 '수돗물 사랑마을' 수도꼭지 검사 결과임

IX-2. 환경성 질환 유병률

(단위: 명, %)

연도	환자수				유병률 ¹⁾			
	전체 ²⁾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및 천식지속 (J46)	전체 ²⁾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및 천식지속 (J46)
2006	6,659,592	3,978,494	1,069,139	2,316,855	13.7	8.2	2.2	4.8
2007	6,873,209	4,292,258	1,086,118	2,270,052	14.1	8.8	2.2	4.7
2008	7,165,431	4,632,526	1,090,377	2,282,108	14.6	9.4	2.2	4.7
2009	7,820,957	5,379,067	1,047,556	2,310,034	15.9	10.9	2.1	4.7
2010	7,824,902	5,481,759	1,038,757	2,230,158	15.8	11.1	2.1	4.5
2011	7,917,865	5,652,281	1,013,380	2,181,996	15.9	11.3	2.0	4.4
2012	8,005,869	5,861,761	970,642	2,079,557	15.9	11.7	1.9	4.1
2013	7,935,853	5,967,512	983,002	1,833,306	15.7	11.8	1.9	3.6
2014	8,265,387	6,367,506	951,141	1,788,974	16.3	12.5	1.9	3.5
2015	8,081,419	6,280,341	925,496	1,668,357	15.8	12.3	1.8	3.3
2016	8,483,105	6,722,894	930,269	1,643,673	16.6	13.1	1.8	3.2
2017	8,538,222	6,892,302	933,562	1,465,975	16.6	13.4	1.8	2.9
2018	8,647,587	7,034,188	917,712	1,438,089	16.8	13.6	1.8	2.8
2019	8,610,660	7,046,897	949,351	1,341,129	16.7	13.6	1.8	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주: 1) 유병률 = (환자수 ÷ 총인구) × 1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전체는 중복 질환자 제외

Ⅸ-3. 대기질 만족도¹⁾²⁾

(단위: %)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36.0	40.1	36.0	31.7	28.6	38.2
동지역	30.5	34.3	30.2	27.0	24.2	34.5
읍면지역	60.5	67.4	63.8	53.9	49.4	55.2
서울	27.0	27.7	23.0	20.9	20.7	26.6
부산	29.3	34.6	35.2	35.2	32.1	47.9
대구	18.4	28.3	21.6	22.1	21.3	29.9
인천	17.3	22.9	24.1	14.1	17.8	23.9
광주	26.7	37.2	34.0	34.9	26.0	40.1
대전	33.4	35.8	35.2	29.1	24.0	38.7
울산	26.0	33.3	25.3	22.1	23.8	35.7
세종	-	-	-	43.7	30.6	36.4
경기	37.1	39.5	33.0	29.4	24.3	36.0
강원	57.2	70.4	61.5	57.9	55.1	62.6
충북	45.9	47.6	49.1	40.3	32.8	34.4
충남	59.0	54.0	51.7	36.4	32.2	37.3
전북	47.3	59.1	50.4	43.1	32.8	41.4
전남	59.1	62.8	57.7	49.6	49.9	62.6
경북	48.5	55.4	50.8	49.2	40.0	50.4
경남	43.9	50.3	50.1	40.7	41.1	51.0
제주	64.4	67.9	62.0	51.8	50.9	65.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Ⅸ-4. 수질 만족도¹⁾²⁾

(단위: %)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33.9	36.9	34.9	33.2	29.3	37.7
동지역	29.5	32.0	30.1	29.4	25.9	35.2
읍면지역	54.3	59.8	57.9	51.4	45.4	48.9
서울	30.1	27.7	25.0	26.2	24.0	30.5
부산	25.6	31.2	33.5	35.1	31.8	42.5
대구	20.5	27.8	23.8	26.4	21.1	31.2
인천	17.2	22.1	23.6	19.1	16.7	22.8
광주	25.6	33.2	32.4	36.5	19.7	32.5
대전	33.2	33.2	34.1	32.0	24.8	39.2
울산	26.5	34.4	27.3	25.1	29.2	39.0
세종	-	-	-	44.0	37.4	44.9
경기	31.0	34.1	31.3	29.2	26.9	36.8
강원	52.3	63.4	55.5	57.5	52.1	55.8
충북	39.3	43.7	44.1	38.3	33.6	36.5
충남	52.6	47.7	44.5	34.9	32.0	35.5
전북	44.9	53.5	48.7	45.3	32.1	41.1
전남	55.8	59.0	53.8	47.9	47.0	56.5
경북	46.2	50.0	47.6	48.5	37.8	46.6
경남	41.6	46.9	49.0	39.6	39.4	47.5
제주	66.1	66.1	63.5	56.5	42.2	51.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IX-5. 소음 만족도¹⁾²⁾

(단위: %)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27.3	29.0	26.9	27.5	29.9	35.7
동지역	23.0	23.9	22.1	23.8	26.1	32.4
읍면지역	46.8	52.8	50.0	45.2	47.8	51.0
서울	23.7	19.9	18.4	20.3	25.4	28.1
부산	19.3	24.7	26.3	28.3	29.0	39.6
대구	15.0	20.5	17.4	21.8	17.5	26.3
인천	17.6	19.8	22.2	17.5	25.2	27.9
광주	14.3	23.2	20.6	20.3	21.4	33.6
대전	24.0	25.4	27.2	27.0	25.5	34.7
울산	20.3	24.6	20.3	19.1	24.6	33.5
세종	-	-	-	36.4	39.3	45.7
경기	27.3	28.0	23.8	27.1	27.4	34.7
강원	40.7	49.5	41.6	42.6	45.3	49.5
충북	30.9	35.0	35.1	33.7	34.3	39.3
충남	44.7	44.7	41.1	32.6	40.1	37.9
전북	32.7	45.7	38.0	36.2	31.9	38.4
전남	47.3	45.2	44.1	38.7	47.5	55.1
경북	37.7	39.3	37.2	41.5	37.6	42.4
경남	32.5	34.7	35.5	32.4	39.6	43.8
제주	40.3	42.6	41.5	35.2	38.7	49.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진동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IX-6. 토양환경 만족도¹⁾²⁾

(단위: %)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30.4	33.5	30.5	29.4	29.4	36.7
동지역	26.5	29.0	26.1	26.0	26.2	34.3
읍면지역	48.0	54.8	51.4	45.4	44.7	48.0
서울	26.5	24.9	21.4	21.8	24.8	29.2
부산	23.0	29.0	29.6	31.7	31.9	42.5
대구	18.2	24.1	21.5	22.7	20.5	30.6
인천	16.5	20.5	21.8	16.9	19.6	24.3
광주	19.7	29.8	28.0	29.3	23.0	34.4
대전	29.9	30.7	31.7	29.9	25.9	36.4
울산	21.9	29.5	21.7	20.3	26.8	37.2
세종	-	-	-	44.7	41.1	46.7
경기	29.7	33.1	28.3	28.3	27.2	36.0
강원	47.6	57.4	46.3	49.6	50.8	52.3
충북	34.2	38.0	40.4	35.0	33.7	37.7
충남	48.2	45.1	41.5	31.8	34.7	35.9
전북	36.3	43.6	42.4	38.3	31.6	37.1
전남	47.8	51.9	45.6	42.0	43.1	55.0
경북	40.4	46.1	41.1	42.7	35.9	44.3
경남	37.1	40.6	40.2	33.5	38.0	45.7
제주	51.8	54.8	49.1	41.5	39.0	49.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IX-7. 녹지환경 만족도¹⁾

(단위: %)

	2010 ²⁾	2012 ²⁾	2014	2016	2018	2020
전체	42.0	43.8	41.2	41.3	50.2	58.7
동지역	37.8	40.8	38.2	39.8	47.3	56.3
읍면지역	60.8	57.7	55.2	48.6	63.6	69.6
서울	39.0	38.7	35.5	37.5	45.8	53.0
부산	33.0	37.5	39.4	39.4	49.6	64.9
대구	26.3	35.8	31.1	38.8	37.0	52.5
인천	26.3	30.2	33.4	29.8	40.3	43.4
광주	29.2	37.5	37.8	39.9	47.2	55.2
대전	36.7	40.0	39.5	40.0	44.4	54.9
울산	34.2	41.9	37.9	34.5	44.8	55.3
세종	-	-	-	57.9	59.0	73.6
경기	44.1	44.6	41.1	44.5	50.6	59.8
강원	54.8	59.9	52.8	52.0	67.1	73.6
충북	42.3	44.9	46.4	41.5	49.6	56.6
충남	58.4	49.6	42.8	38.3	53.2	58.4
전북	50.0	58.5	51.0	45.6	45.1	55.3
전남	58.4	58.2	54.0	47.1	68.6	75.1
경북	50.3	51.5	48.7	47.9	59.1	59.8
경남	51.1	51.0	49.7	42.4	60.7	70.1
제주	57.7	57.0	51.3	44.5	56.1	68.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IX-8. 1인당 도시공원¹⁾ 면적

(단위: km², m²)

연도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²⁾	조성면적	1인당 조성면적 ³⁾
2005	1,136	832	304	6.9
2006	1,141	848	293	6.6
2007	1,190	859	330	7.4
2008	1,284	824	461	10.3
2009	1,112	743	368	8.1
2010	1,089	705	384	8.4
2011	1,008	623	386	8.3
2012	1,020	608	412	8.9
2013	1,005	601	404	8.6
2014	989	583	406	8.6
2015	934	516	418	8.8
2016	942	505	437	9.2
2017	924	469	455	9.6
2018	927	447	480	10.1
2019	904	406	498	10.5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주: 1)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

2) 사업에 착수(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면적

3) 1인당 조성면적 =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IX-9. 환경예산 비율¹⁾

(단위: 억 원, %)

연도	정부예산	환경예산		환경예산 비율 ³⁾	
		환경분야예산 ²⁾	환경부예산	환경분야예산 ²⁾	환경부예산
2000	1,251,792	30,581	13,023	2.44	1.04
2001	1,398,487	32,236	14,143	2.31	1.01
2002	1,497,133	33,465	14,336	2.24	0.96
2003	1,628,435	34,514	14,037	2.12	0.86
2004	1,612,627	31,183	14,519	1.93	0.90
2005	1,679,332	35,578	28,557	2.12	1.70
2006	1,753,882	33,978	29,992	1.94	1.71
2007	1,767,561	32,837	32,203	1.86	1.82
2008	1,951,002	36,568	35,514	1.87	1.82
2009	2,174,723	42,101	40,282	1.94	1.85
2010	2,259,682	46,740	44,832	2.07	1.98
2011	2,355,574	49,741	47,778	2.11	2.03
2012	2,486,125	51,496	49,897	2.07	2.01
2013	2,636,038	54,458	52,477	2.07	1.99
2014	2,746,673	56,119	54,324	2.04	1.98
2015	2,862,471	59,389	57,401	2.07	2.01
2016	2,957,206	59,695	57,405	2.02	1.94
2017	3,031,432	60,232	57,830	1.99	1.91
2018	3,308,414	59,572	57,082	1.80	1.73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주: 1) 2007년에 정부예산구조가 프로그램예산구조로 개편되어 환경보호분야의 범위 재설정

2) 환경분야예산은 환경부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금액임

- 2006년까지 환경분야 예산은 환경부 소관 예산과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방재처, 해경청 소관 환경관련 예산이었으나, 2007년 이후 환경부 소관 예산과 해수부, 해경청 소관 환경관련 예산으로 변경됨

3) 환경예산 비율 = (환경예산 ÷ 정부예산) × 100

IX-10.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

연도	환경보호지출액 ¹⁾						
	전체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	
		공공부문	기업부문	가계부문	환경 전문업체	대기	폐수
2004	16,083.6	7,720.1	4,908.1	490.9	2,964.5	2,656.9	5,857.6
2005	17,630.6	8,407.4	5,438.6	523.4	3,261.2	3,021.3	6,424.9
2006	19,479.4	9,148.8	6,107.1	612.4	3,611.0	3,683.7	7,068.3
2007	21,010.2	9,718.5	6,797.3	626.1	3,868.3	4,487.6	7,421.9
2008	22,032.7	9,926.2	7,272.9	672.6	4,161.0	4,727.5	7,763.0
2009	23,861.7	11,849.8	6,997.8	650.2	4,364.0	4,523.6	8,664.9
2010	23,886.5	11,084.2	7,469.2	507.9	4,825.2	4,767.3	8,418.3
2011	24,353.7	11,216.3	7,788.8	456.5	4,892.1	4,894.9	8,580.9
2012	25,098.6	11,570.8	8,001.9	511.8	5,014.1	5,185.5	9,017.1
2013	25,756.6	12,203.4	7,717.9	599.9	5,235.4	4,917.6	9,480.8
2014	26,354.7	12,080.2	8,141.9	703.5	5,429.1	5,217.9	10,035.9
2015	27,438.9	12,465.2	8,363.8	904.2	5,705.7	5,551.0	10,468.6
2016	29,593.1	13,520.3	8,950.6	1,176.2	5,946.0	6,100.9	10,862.9
2017	29,008.1	12,187.6	9,268.4	1,401.5	6,150.6	6,314.1	9,913.4
2018 ^p	30,447.2	12,907.0	9,436.3	1,413.8	6,690.2	6,346.0	10,688.2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주: 1) 환경보호지출액 = 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수입

2)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환경보호지출액 ÷ 명목 GDP) × 100. GDP는 2015년 기준

(단위: 10억 원, %)

환경보호지출액 ¹⁾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 ²⁾	연도
환경영역별								
폐기물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4,478.9	583.9	179.2	1,242.1	158.4	379.0	547.6	1.77	2004
4,723.6	678.8	212.9	1,434.2	156.8	404.0	574.1	1.84	2005
4,983.3	826.9	212.7	1,562.6	168.1	387.9	585.8	1.94	2006
5,107.9	825.3	192.4	1,807.9	136.9	432.8	597.6	1.93	2007
5,424.3	881.5	203.7	1,816.8	161.0	454.6	600.2	1.91	2008
5,844.2	1,031.5	219.3	2,376.5	166.4	446.2	589.2	1.98	2009
5,859.9	1,041.8	186.5	2,366.9	166.7	459.7	619.5	1.81	2010
5,951.9	1,053.3	206.2	2,421.0	178.2	484.1	583.1	1.75	2011
5,743.0	984.5	205.5	2,690.8	190.6	518.4	563.2	1.74	2012
5,856.4	1,081.9	221.0	2,858.0	215.3	544.7	580.9	1.72	2013
5,693.3	1,083.6	223.7	2,743.1	235.9	556.0	565.1	1.69	2014
5,893.2	1,132.7	219.2	2,913.5	196.9	532.6	531.3	1.65	2015
6,734.5	1,167.4	235.9	3,072.7	222.8	678.0	518.2	1.70	2016
6,818.7	1,285.9	228.7	3,016.7	232.9	650.4	547.3	1.58	2017
7,454.9	1,252.1	259.8	3,061.2	229.3	653.1	502.5	1.60	2018

X-1. 화재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531	100	32	17	15	10	24	11	-	105	44	17	16	29	18	40	48	5
2001	516	98	33	17	16	10	8	10	-	104	16	17	30	35	31	41	42	8
2002	491	61	18	17	35	9	9	12	-	104	24	23	44	26	15	34	52	8
2003	744	60	36	219	28	6	17	17	-	109	29	16	38	42	18	55	43	11
2004	484	56	28	17	13	10	21	7	-	113	29	25	30	28	19	36	44	8
2005	505	79	36	26	31	5	15	8	-	105	33	27	27	21	13	36	30	13
2006	446	56	32	20	24	10	20	7	-	94	25	17	23	18	33	36	24	7
2007	424	67	28	12	15	7	5	11	-	77	21	23	20	18	45	22	43	10
2008	468	54	19	20	17	5	10	12	-	151	17	20	32	17	34	24	26	10
2009	409	37	50	11	15	9	11	6	-	79	24	17	27	23	20	38	34	8
2010	304	42	19	12	15	7	12	3	-	62	13	15	18	20	10	28	24	4
2011	263	29	21	7	16	1	4	6	-	67	17	7	17	15	13	20	18	5
2012	267	31	26	7	12	5	3	6	3	61	8	15	15	11	24	16	18	6
2013	307	31	22	14	13	10	9	2	3	54	10	16	26	13	30	16	26	12
2014	325	36	19	19	12	5	5	6	1	77	20	6	21	13	43	20	17	5
2015	253	27	17	7	16	3	3	6	1	63	13	18	17	10	11	18	18	5
2016	306	40	17	11	10	7	7	16	2	70	20	12	12	17	21	14	29	1
2017	345	37	19	8	7	9	9	2	2	78	24	41	19	15	19	27	24	5
2018	369	53	14	18	21	7	12	5	3	62	14	19	21	21	17	22	56	4
2019	285	37	9	11	14	10	9	4	0	47	16	15	33	13	23	15	26	3
2020	365	37	13	11	22	4	8	9	2	114	18	11	17	17	22	27	21	12

자료: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X-2.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 명)

연도	사망률 ¹⁾	부상률 ²⁾
1970	9.5	132.8
1975	10.8	173.2
1980	14.7	292.8
1985	18.4	451.9
1990	28.8	756.3
1995	22.9	735.7
2000	21.8	908.3
2001	17.1	816.0
2002	15.2	730.7
2003	15.1	786.1
2004	13.6	721.6
2005	13.2	710.3
2006	13.1	702.4
2007	12.7	690.0
2008	12.0	691.0
2009	11.8	733.9
2010	11.1	711.3
2011	10.5	683.6
2012	10.7	686.4
2013	10.1	651.8
2014	9.4	665.1
2015	9.1	686.9
2016	8.4	647.7
2017	8.1	628.5
2018	7.3	626.0
2019	6.5	660.8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도로교통사고 부상률 =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X-3. 시도별 범죄율¹⁾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4	3,810.8	3,903.2	4,285.4	4,180.7	3,628.7	4,731.0	3,235.2	3,951.6	2,806.6
2015	3,961.1	3,887.8	4,532.5	4,363.7	3,823.6	4,458.2	3,383.9	2,940.0	2,081.7
2016	3,921.1	3,786.9	4,178.7	3,807.5	3,769.0	4,017.8	3,365.3	2,539.9	2,031.5
2017	3,553.0	3,609.0	3,800.6	3,347.8	3,472.3	3,653.0	3,296.1	2,291.9	1,891.8
2018	3,368.2	3,516.8	3,712.6	3,244.7	3,219.1	3,429.9	3,174.4	2,193.5	1,756.0
2019	3,418.5	3,524.1	3,816.6	3,408.3	3,440.5	3,537.0	3,176.7	2,251.4	1,902.5
형법범죄	2,013.9	2,280.8	2,402.4	2,011.1	2,155.1	2,028.4	2,005.3	1,145.4	1,215.2
살인	1.6	1.7	2.0	1.7	1.7	1.5	1.5	1.5	0.9
강도	1.6	1.6	2.5	1.5	2.0	2.0	1.7	1.2	-
성폭력	61.9	97.0	61.2	53.0	71.1	57.2	68.1	29.2	29.6
폭행·상해	391.1	405.2	445.1	388.4	489.3	435.5	392.6	241.2	162.8
절도	362.9	438.4	433.7	381.2	344.7	336.0	391.4	190.2	256.7
특별법범죄	1,404.6	1,243.3	1,414.2	1,397.2	1,285.4	1,508.5	1,171.4	1,106.0	687.3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1) 지역별 범죄율 = (지역별 범죄건수 ÷ 지역별 인구) × 100,000. 지역별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단위: 건/10만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
3,606.1	3,891.7	3,512.2	3,697.4	3,427.0	4,010.6	3,575.9	3,688.3	5,525.6	2014
3,806.9	4,170.0	3,667.6	3,899.9	3,579.4	4,435.5	3,725.6	4,352.1	5,980.0	2015
4,151.3	4,260.0	3,857.7	3,674.6	3,400.4	4,156.8	3,585.5	4,292.8	6,050.9	2016
3,596.9	3,872.8	3,539.0	3,425.9	3,130.3	3,599.8	3,328.8	3,812.0	5,382.9	2017
3,299.4	3,451.8	3,314.6	3,459.5	3,096.0	3,682.9	3,192.2	3,493.7	4,612.6	2018
3,274.7	3,513.6	3,309.6	3,374.1	3,217.0	3,867.4	3,306.2	3,701.6	4,293.6	2019
1,882.5	1,900.9	1,871.1	1,837.8	1,751.4	1,871.3	1,819.3	2,107.5	2,643.5	형법범죄
1.3	1.5	2.0	2.1	2.4	1.6	1.5	1.7	3.2	살인
1.4	1.7	2.2	1.5	1.6	1.5	1.0	1.6	3.2	강도
53.3	56.2	50.9	48.1	52.1	49.7	44.4	47.6	77.2	성폭력
382.9	380.8	331.3	310.2	357.3	405.9	346.1	409.7	494.1	폭행·상해
317.4	309.0	366.9	377.2	323.8	323.8	332.4	378.4	490.6	절도
1,392.2	1,612.8	1,438.5	1,536.3	1,465.7	1,996.1	1,486.9	1,594.1	1,650.1	특별법범죄

X-4. 범죄율¹⁾

(단위: 건/10만 명)

연도	전체	형법범죄	주요 형법범죄 ²⁾					특별법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³⁾	폭행·상해	절도	
2000	3,973.5	1,113.9	2.1	11.4	14.9	106.0	351.6	2,859.7
2001	4,192.5	1,168.8	2.2	11.7	14.6	105.2	357.0	3,023.6
2002	4,150.9	1,673.6	2.1	12.5	19.8	95.4	376.1	2,477.2
2003	4,185.1	1,790.4	2.1	15.3	21.6	103.7	392.3	2,394.6
2004	4,327.8	1,719.7	2.3	12.0	23.1	102.1	322.1	2,608.0
2005	3,930.5	1,713.9	2.3	10.9	24.4	105.2	396.6	2,216.6
2006	3,776.4	1,709.4	2.2	9.7	28.0	296.8	393.8	2,066.9
2007	4,038.3	1,736.3	2.3	9.2	28.0	391.9	436.6	2,301.9
2008	4,463.3	1,829.7	2.3	9.8	30.8	397.3	455.1	2,633.6
2009	4,397.2	2,014.2	2.8	12.9	32.8	402.0	520.6	2,383.1
2010	3,869.1	1,895.2	2.5	8.9	40.2	364.0	540.8	1,973.9
2011	3,810.3	1,997.1	2.4	8.1	44.1	382.5	563.8	1,813.2
2012	3,874.3	2,068.9	2.0	5.3	42.5	381.2	583.8	1,805.4
2013	3,979.2	2,097.7	1.9	4.0	53.4	363.2	576.7	1,881.5
2014	3,810.8	2,002.5	1.8	3.2	58.8	418.7	525.7	1,808.2
2015	3,961.1	2,053.8	1.9	2.9	60.9	439.7	483.0	1,907.2
2016	3,921.1	1,963.6	1.9	2.3	57.3	444.8	397.5	1,957.5
2017	3,553.0	1,866.9	1.7	1.9	63.9	418.4	358.9	1,686.1
2018	3,368.2	1,915.3	1.6	1.6	62.2	403.4	343.9	1,452.9
2019	3,418.5	2,013.9	1.6	1.6	61.9	391.1	362.9	1,404.6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1) 범죄율 = (범죄건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2002년부터 형법 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 범죄에 포함

3) 2014부터 강간을 성폭력으로 분류함

X-5. 형사사법기관 신뢰도¹⁾²⁾

(단위: %)

연도	법원	검찰	경찰
2013	41.1	38.6	45.4
2014	37.6	36.1	40.1
2015	35.0	34.3	40.1
2016	29.8	27.5	37.6
2017	34.4	31.3	40.7
2018	33.0	32.2	41.2
2019	36.8	32.2	36.5
2020	41.1	36.3	46.4
남자	39.3	34.7	45.2
여자	42.9	37.9	47.7
19~29세	39.1	34.4	43.3
30~39세	37.9	34.4	44.5
40~49세	42.0	36.1	46.7
50~59세	41.0	34.5	47.2
60세 이상	43.4	39.9	48.7
초졸 이하	46.8	46.7	55.8
중졸	44.1	40.0	50.0
고졸	40.3	34.8	45.1
대졸 이상	40.1	35.0	45.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X-6.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¹⁾²⁾

(단위: %)

연도	법원	검찰	경찰
2013	38.1	36.7	39.7
2014	37.6	36.7	36.3
2015	35.1	35.3	37.4
2016	37.9	34.5	40.8
2017	43.2	40.0	44.4
2018	36.6	35.3	41.8
2019	42.8	37.3	40.5
2020	54.3	49.7	53.9
남자	52.8	47.8	52.9
여자	55.7	51.6	54.8
19~29세	54.4	50.9	55.6
30~39세	52.4	50.5	51.6
40~49세	55.1	47.2	55.2
50~59세	55.0	49.0	52.4
60세 이상	54.1	50.7	54.4
초졸 이하	57.5	56.0	59.2
중졸	58.5	51.7	57.2
고졸	52.2	48.2	52.8
대졸 이상	54.8	49.5	53.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지, 검찰과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X-7. 야간보행 안전도¹⁾²⁾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도시 (동지역)	농어촌 (읍면지역)
2001	51.4	62.2	41.2	42.2	-	45.1	49.2	49.7	56.7	67.4	49.0	60.9
2005	57.4	69.2	46.1	46.2	-	50.2	51.9	57.3	62.5	73.9	55.6	65.6
2008	59.2	72.4	46.5	48.6	-	53.1	51.5	57.1	66.7	75.0	57.9	64.9
2010	59.4	70.9	48.3	49.2	-	51.8	52.5	56.3	64.9	76.5	58.2	64.9
2012	56.0	69.1	43.3	-	45.4	46.6	44.7	53.7	63.8	75.2	54.4	63.7
2014	57.4	70.9	44.5	-	47.4	50.1	48.0	53.7	63.2	74.2	56.2	63.2
2016	59.1	70.6	47.8	-	50.6	51.0	49.7	55.5	63.4	74.6	58.5	61.6
2018	63.5	74.3	53.0	-	58.5	57.5	55.5	59.8	66.3	75.3	63.0	66.0
2020	66.5	83.1	50.2		63.5	64.9	65.1	65.3	66.9	69.5	66.1	68.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8년 까지는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며, 2020년 부터는 밤에 혼자 걸을 때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X-8. 사회안전 인식¹⁾²⁾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600만원미만	600만원이상		
2008	8.2	9.3	7.2	8.1	-	8.8	6.9	8.5	8.2	8.9	7.8	7.9	7.5	8.6	8.9	9.4	10.8		
2012	11.3	13.4	9.2	11.5	-	11.4	9.3	12.7	11.9	11.3	10.8	8.9	10.1	11.2	11.9	17.7	19.3		
2012	13.7	16.2	11.3	-	16.1	14.2	12.0	13.9	13.8	13.5	13.5	11.9	13.1	13.2	15.3	14.8	19.9		
2014	9.5	11.7	7.4	-	14.4	10.6	7.6	8.1	8.5	10.2	9.5	8.6	9.1	8.3	9.8	10.8	13.2		
2016	13.2	15.9	10.6	-	17.6	13.5	11.6	12.2	12.9	13.6	13.8	12.4	11.9	12.5	12.9	14.5	16.8		
2018	20.5	24.5	16.6	-	26.8	23.1	20.3	21.6	19.1	17.2	19.3	17.7	19.6	19.3	19.7	23.1	26.4		
2020	31.8	36.0	27.6	-	39.6	33.0	34.8	37.9	30.2	23.9	24.4	26.1	28.9	31.9	33.2	38.3	40.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XI-1. 시민의식¹⁾²⁾

(단위: %)

연도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사회·정치 활동	타인의 의견 존중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상품 선택	위기 시 군 복무
2013	87.0	92.1	91.9	70.8	43.4	84.3	67.8	73.4
2014	80.3	87.2	87.5	64.6	40.3	81.3	65.1	68.7
2015	84.2	89.4	89.9	67.5	42.0	82.9	64.4	71.6
2016	84.1	90.5	91.8	71.4	42.6	85.1	71.5	73.7
2017	91.0	91.3	92.3	72.8	54.5	85.4	72.1	74.5
2018	90.3	91.7	92.6	75.7	54.8	86.3	73.8	77.7
2019	86.1	90.4	90.8	73.1	51.9	81.1	69.7	73.0
2020	90.6	91.4	91.6	76.5	55.1	85.6	71.5	76.8
남자	90.4	91.6	91.5	79.2	56.3	84.9	71.1	80.7
여자	90.7	91.3	91.8	73.9	53.9	86.3	72.0	73.0
19~29세	84.0	89.7	89.2	72.8	58.3	83.5	73.3	75.8
30~39세	89.3	90.2	92.1	75.7	55.3	86.9	74.0	77.7
40~49세	90.7	90.7	90.6	74.6	53.6	85.9	71.6	76.5
50~59세	91.9	91.4	91.4	80.0	59.0	85.0	71.4	78.0
60세 이상	94.2	93.7	93.7	78.0	51.3	86.4	69.2	76.3
초졸 이하	92.8	92.9	93.5	71.3	47.0	85.5	63.8	71.7
중졸	93.3	91.2	93.2	75.4	51.0	87.0	65.9	74.3
고졸	90.0	90.9	90.8	76.9	53.7	84.4	71.0	76.8
대졸 이상	90.2	91.6	91.8	77.4	58.6	86.6	74.6	78.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 중 5점 이상 응답자의 비중

XI-2. 사회 갈등 인식¹⁾²⁾

(단위: %)

연도	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	남자와 여자	종교 간
2013	87.3	87.9	81.6	66.5	73.6	64.1	46.6	57.4
2014	85.6	85.2	79.0	65.1	71.5	62.3	47.3	59.9
2015	84.1	86.7	81.7	64.2	74.6	65.1	45.2	55.6
2016	85.8	86.2	81.8	60.8	69.1	63.8	49.8	57.0
2017	85.5	88.0	77.1	59.4	66.7	62.3	48.9	56.2
2018	82.4	87.3	76.2	60.4	70.7	64.5	52.0	58.5
2019	80.1	85.1	76.6	63.8	66.3	64.1	54.9	56.7
2020	82.7	85.4	74.2	62.7	68.5	60.9	48.8	55.4
남자	82.4	85.4	75.0	64.1	69.0	61.1	47.3	55.4
여자	83.0	85.5	73.5	61.3	68.0	60.7	50.2	55.4
19~29세	83.3	86.2	74.9	61.0	67.6	62.1	51.6	55.4
30~39세	82.9	85.6	73.8	63.6	70.6	60.0	50.5	54.5
40~49세	83.7	84.6	74.7	64.5	69.4	60.5	51.6	57.7
50~59세	81.1	83.5	74.4	64.5	67.3	61.4	48.7	57.2
60세 이상	82.7	86.8	73.6	60.7	68.1	60.6	44.4	53.1
초졸 이하	79.6	86.5	68.2	55.5	65.5	56.4	39.4	51.8
중졸	82.6	83.5	73.8	60.1	66.8	59.6	49.6	56.2
고졸	83.2	85.9	75.6	62.8	68.5	62.8	49.6	57.3
대졸 이상	82.9	85.1	74.2	64.5	69.3	60.3	49.8	54.3
100만원 미만	80.4	86.1	69.2	54.4	65.6	52.5	42.2	47.4
100~200만원 미만	82.5	86.8	74.0	61.3	67.3	62.9	44.7	56.4
200~300만원 미만	83.1	84.6	74.4	62.1	67.1	60.9	49.7	54.3
300~400만원 미만	81.2	85.6	75.1	61.2	67.5	61.9	48.6	54.8
400~500만원 미만	82.4	84.3	72.9	60.2	66.0	59.3	45.2	50.5
500~600만원 미만	83.9	85.8	75.3	64.7	71.4	61.2	50.7	57.0
600만원 이상	83.8	85.6	75.2	68.2	71.4	63.2	53.8	61.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XI-3. 사회적 고립감¹⁾²⁾

(단위: %)

연도	외롭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2013	28.9	17.3
2014	27.7	19.5
2015	26.1	18.0
2016	23.0	14.0
2017	20.7	13.0
2018	16.0	11.3
2019	20.5	16.7
2020	22.3	16.3
남자	21.2	15.6
여자	23.4	17.1
19~29세	15.3	14.1
30~39세	17.4	16.8
40~49세	19.7	15.8
50~59세	22.6	15.7
60세 이상	30.8	18.2
100만원 미만	54.6	25.1
100~200만원 미만	31.3	18.4
200~300만원 미만	26.0	19.1
300~400만원 미만	19.5	14.0
400~500만원 미만	17.0	16.1
500~600만원 미만	14.0	14.6
600만원 이상	18.8	14.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임

XI-4.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¹⁾²⁾

(단위: %)

연도	전과자	동성애자
2013	68.4	62.1
2014	67.4	56.9
2015	66.5	57.7
2016	69.2	55.8
2017	69.4	57.2
2018	62.7	49.0
2019	68.0	57.1
2020	69.4	57.0
남자	66.4	56.3
여자	72.4	57.7
19~29세	64.9	47.6
30~39세	69.9	55.4
40~49세	69.2	54.8
50~59세	69.3	57.4
60세 이상	72.0	64.7
초졸 이하	74.6	70.0
중졸	73.3	63.7
고졸	69.0	56.7
대졸 이상	68.1	53.6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자신의 배우자, 친구, 직장동료, 이웃, 중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의 비중임

XI-5. 삶의 만족도¹⁾²⁾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13	47.3	44.3	50.3	51.2	49.5	47.4	42.9	44.3	-	30.3	36.3	44.8	54.7	54.3	58.1	55.4
2014	50.7	49.5	51.9	56.6	52.8	51.2	46.2	44.8	-	35.2	37.0	46.5	53.7	56.2	64.2	59.1
2015	52.9	51.7	54.1	54.8	53.3	52.0	50.4	55.3	-	38.8	44.8	45.4	55.7	58.6	60.8	58.9
2016	57.2	57.3	57.2	61.3	58.9	53.5	56.1	57.3	-	44.9	48.2	49.5	57.2	61.3	66.5	62.5
2017	60.2	60.5	60.0	61.8	65.7	59.6	58.4	54.6	-	45.4	51.0	55.9	59.4	62.8	66.2	65.5
2018	63.7	62.6	65.0	64.5	66.6	63.9	64.1	58.5	-	49.3	48.7	58.9	65.4	65.1	66.2	71.1
2019	60.7	59.5	62.0	62.5	63.6	60.5	62.5	53.4	-	41.4	47.9	54.6	63.2	63.9	60.6	67.0
2020	61.6	61.0	62.1	67.1	66.8	66.0	62.7	-	51.8	38.8	50.9	59.4	66.0	66.6	63.1	66.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 점수(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점)가 6점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임

XI-6. 긍정적 정서경험¹⁾²⁾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13	57.0	54.1	60.1	63.7	60.1	55.4	52.6	51.8	-	38.2	46.4	54.7	63.8	65.8	65.9	67.7
2014	59.7	58.6	60.8	62.9	64.3	60.1	54.7	54.8	-	43.6	47.2	53.9	63.6	70.8	68.8	68.3
2015	61.1	60.1	62.0	63.6	64.5	59.6	59.0	57.9	-	46.5	52.6	56.6	62.2	66.7	65.2	68.6
2016	64.6	64.1	65.2	68.8	67.4	63.8	61.8	60.9	-	51.1	54.8	58.4	65.4	68.5	72.1	69.8
2017	69.0	68.5	69.5	70.6	73.8	69.0	68.1	61.9	-	52.2	59.2	65.1	68.0	72.5	75.0	73.9
2018	72.5	71.2	73.8	74.5	74.1	73.2	71.7	68.0	-	58.7	57.8	69.3	73.5	72.2	77.2	78.8
2019	69.4	66.8	72.2	72.9	73.0	70.3	70.1	59.1	-	50.8	56.7	62.8	70.5	73.9	72.6	73.3
2020	70.5	70.0	71.0	77.2	76.0	73.4	71.3	-	61.0	49.6	54.4	66.0	74.1	74.8	74.4	77.9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어제 느낀 행복감 점수(0(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0(매우 행복했다)점)가 6점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임